

시로 읽는 성보순례
중앙탑을 노래함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 ·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 속을 살펴라. 〈잡아함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1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2호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종단 먼저 바꾸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국민 행복 · 평화 우선"

출범 3년차인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하화중생의 불교적 가르침에 의한 국민의 행복과 평화 실현'을 2012년 종단운영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승 스님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2년은 조계종 출범 50주년의 해이자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라며 "종단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여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은 2012년 한해 '대중공사' '천일기도' '쇄신전략'을 추진한다.

대중공사는 ▷수행-불교관 · 수행관 중심 ▷종단운영-자립적 운영 ▷전법-불법호지 위기의 성찰 ▷사회참여-사회갈등 대안제시와 사회참여 기준 등으로 주제별로 중앙 · 직할 · 교구 · 지역사찰 단위별로 추진된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형 '웹 대중공사'도 추진된다.

천일기도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천일기도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소통 · 화합을 위한 '사부대중 야단법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 천일기도를 통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중심으로 민족사 · 문명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시민초청무차대회는 각계각층의 시민을 부처님 모시듯이 공양 올리는 과정 등이 포함된 행사로 조계종이 추진하는 나눔결사 실천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사부대중 야단법석은 개인 · 사회 · 문명사적 문제를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문화결사의 일환이다.

도법 스님은 "야단법석을 통해 우리 시대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실천화된 대승불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쇄신전략은 사찰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영사찰과 직할교구 공찰의 재정공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해 불사관리위원회 신설, 국고보조금 불사 사찰 대상 관리 강화, 중앙종무기관 조직 점검, 신도의 종단운영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합 · 신심 · 원력 · 공심 강조
웹 대중공사로 소통 확대
종단 미래 50년 비전 선포
한국불교 세계화에 역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모든 직할사찰의 재정공개를 올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극복과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을 통한 다양한 활동도 마련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소외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난치병 어린이 치료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선재의 선물보내기 ▷비움과 나눔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만행모금'을 통해 연3000여 명에 대한 기금 · 후원물품 지원 사업 전개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사업' 등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종단출범 50주년 기념사업과 한국불교 세계화 ·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한다.

종단출범 50주년을 맞아서는 자료집 발간과 학술세미나 · 전시회 개최, 대중공사에 기반한 사부대중 결집대회를 통한 과거 50년 점검과 미래 50년 비전 선포를 준비 중이다. 또, 수도권포교 활성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해서는 6월 11일 여수에서 열리는 WFB한국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유네스코 룸비니 복원계획 동참, 국제불교학교 운영 및 외국인 수행자 연수 등 해외특별교구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전통사상서 번역사업과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의 해외홍보도 지속키로 했다.

사회적 공동선 실천을 위해서는 이주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실천사업, 사회 현안 갈등에 대한 불교적 대안제시 활동과 종교간 평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 · 협력사업과 종교평화선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불교계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교지도자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인 불교포럼도 1월 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진년 한 해 '화합'이라는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라는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화합'을 근간으로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효일당 범행 대종사 원적

법랍 64세 · 세수 91세
19일 법주사서 영결식 엄수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대종사가 1월 15일 오전 1시경 수원 팔달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91세. 스님의 영결식은 19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범행 대종사는 당대의 선지식이던 금오 스님(1896~1968)과 혜암 스님(1879~1944)의 지도를 받은 선승임에도 종단 행정과 군포교 등 중생교화에도 앞장서 왔다.

대종사의 가르침은 '사교입선'이었다. 범행 대종사는 법문할 때면 참선에 들기 전 〈화엄경〉까지는 볼 것을 대중에게 권했다. 부처님 말씀은 도에 이르는 길인데 길을 모르고서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겠냐는 이유에서였다.

스님은 "일생동안 많은 일들이 꿈속에 일과 같네. 한생각 내려놓으니 걸림이 없으니 기쁘고 기쁘도다(一生多事 夢中如幻 一念放下 無碍歡喜)"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관련기사 4면

조동섭 기자





"금메달로 보답할게요"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흥)가 1월 18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임진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2012 런던올림픽' 선전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태릉선수촌 법당 주지 퇴휴 스님,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불자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선수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도전정신을 갖고 남은 올림픽 기간을 잘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합장주를 선물했으며, 태릉선촌 법당 지도법사를 위촉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젊은불자 육성 100억원 기금마련 발원대회

2월 18일 대불련

젊은불자 육성을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이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1차로 올해 말까지 30억원을 모금한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젊은불자 육성 100억원 기금 마련을 위한 발원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대불련 재학생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동문회 주요활동 소개, 향후 사업계획 보고, 다짐의 시간 등이 진행된다.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현재 국내에는 350여 대학에 310만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불교활동을 하는 학생은 50여 대학 1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청년불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관련기획연재 1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문불전 수학승 전원 장학 수혜키로

조계종-동국대 불교학술원 MOU 체결…스님 특별전형도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와 한문불전아카데미에서 수학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장학혜택을 받는다. (본지 제871호 1월 13일자 보도)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협력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는 종단의 한문불전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계종 스님이 진학시 동국대가 65%, 종단이 35%를 지원해 전액 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스님 5명을 교육원 추천으로 우선 선발키로 했다. 불교한문아카데미도 스님 10명을 우선 선발하고 종단이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해 전액 장학 혜택을 주기로 했다. (02)2011-1804

조동섭 기자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2월 3일까지 이메일접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5월 28일)을 앞두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글자 수 10자 내외로 부처님오신날의 참뜻과 지혜 · 가르침을 알리는 내용, 사회적 소통과 화합을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 등이면 된다. 기간은 2월 3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메일(kang@buddhism.or.kr)이나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02) 2011-1744

조동섭 기자

872호 CONTENTS

종단 2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신년계획
총지종 괴산에 유기농장 조성
진각종 새해 불공서 화합 다짐

종합 3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지관 스님 사리 공개

시방세계 5
인천불교회관 108산사순례



나눔 6
생명나눔실천본부 신년계획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건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매산 김건원


청곡 이한동

※ 높이 31Cm×둘레 9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설날 파격 선물 SET (발송에서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 298,000~~ → 198,000원

①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② 소품 연화 약 찻잔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③ 진품 포대화상도 작품 (10호)



진품 포대화상도를 집안에 모셔두면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이요, 밝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밖에 있는 복을 집안으로 불러 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④ 진품 달마도 작품 (10호)



진품 달마도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액을 막아 주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언제나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⑤ 부부용 순금카드 2점



복 포대화상1점은 부인이 간직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차고, 용달마 1점은 출근하는 남편께서 지갑에 넣어 다니시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⑥ 2012년도 미니카렌다 (차걸이겸용)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포대화상 6점, 달마도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차안에 걸어 두시면 안전운행을 지켜 줄 것입니다.
[크기 : 가로 9㎝ × 세로 10㎝]

구입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중앙탑을 노래함

신 경 림

강과 산과 들의 푸른 기운을 한 몸에 모아
땅속 저 깊은 곳의 뜨거운 숨결까지 끌어 모아
저 높은 곳 하늘로 쉼 없이 올리고

해와 달과 별의 노래들을 몸으로 받아
넓은 하늘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꿈들을 손으로 따서

이 땅 위에 흘뿌리기 위하여
이 땅속에 깊이깊이 심기 위하여

반도 한복판을 가르며 흐르는 물길을 굽어보며
기름진 들판을 어루만지며
산과 동무해 나 여기 서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을 한데 모아
산짐승 들짐승의 웃음과 울음을 한데 모아
나무와 풀 바위며 돌과 흙의 숨결까지 한데 모아

비와 눈과 바람의 기운까지 끌어 모아
천둥과 번개의 힘까지 끌어 모아

높고 넓은 하늘에 꿈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땅에 널리 퍼져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얼싸안고 뛰노는 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신경림시인은…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1955년 〈문학예술〉로 등단. 시집 〈농무〉 〈남한강〉 등.

교육·포교 화두는 '사이버'

조계종 교육원 2012년 사업계획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수업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강좌를 도입한다. 또, 한글염불의례 정착을 위해 승가고시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교육원 주요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정착은 지난해 1·2학년 표준교과가 시행된데 이어 학인 스님들의 진학에 따라 3학년 표준교과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은 필수(32개 교과목), 선택(7개 교과목)과 불교의식·수행실수·대중습의 등 일상수행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 가운데 전문 교육 교역자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동영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중 불교문화유산의 이해, 포교방법론, 불교와 사회를, 하반기 중 세계종교의 이해, 중관사상, 불교와 동서철학 등 6개 교과목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사이버 동영상 강의가 구현되면 전문교육교역자 수급을 겪고 있는 교과목의 안정적인 강의를 통해 기본교육기관 개편 교과목의 정착을 도모하고 교육의 균등한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행자·학인 교육에 필요한 염불지도교수진을 구성하는 등 행자 수계교육 및 기본교육과정에 한글 중심의 염불의례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한글염불의례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4·5급 승가고시에 한글 염불의례를 반영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교육원 주요 역점사업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정착
▷한글염불의례 교육 시행
▷사이버동영상 강의 시행
▷승가교육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승가고시 개선 연구
▷국제활동·역경 등 전문인력 양성
▷연수교육 정착 및 인문사회분야 강화 운영
▷(가칭)출가예비학교 운영(9박10일)
▷승가교육매거진 발행 등이다.

수업 표준화 위해 사이버강좌 도입

승가고시, 한글염불의례 포함 추진

조계종 포교원, 2012년 포교비전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등록 강화를 통해 신도품계 품수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신도 10만명과 신도지도자인 선혜품수자를 1000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2년 종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주요사업방향과 제6대 포교원 비전을 발표했다.

제6대 포교원은 시대와 사회변화를 관통하는 불교트렌드 구축과 확대, 수도권 및 도심권에서의 생동감 있는 불교위상 회복, 종단 구성원의 확장·조직화를 통한 불교중흥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포교원은 불교트렌드 형성을 위해 법회 및 각종행사의 SNS 중계기반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SNS 활용 불자들을 모아 조직화하고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특히, 사이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연 4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계발할 예정이다.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화·특화시킨 불교 생명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법회 및 생활의례 일상화, 문화 및 사회포교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포교의 장을 확대키 위해 포교원은 전법중심도량 300개소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법단 역할을 강화하는 등 포교 역량을 제고와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인재불사에 기반한 포교 강화를 위해서는 신도품계 품수제를 통한 정예신도 양성과 불교영유아지도자 과정 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포교원은 사찰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산악인불자회 조직을 지원해 종단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안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 7일 계룡산에서 대한산악인연맹과 국태민안 기원 및 산악등반자 위령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SNS 활용 불자 모아 조직화

전법중심도량 300개소 지정

■ 제6대 포교원 종책 목표

▷새로운 불교 트렌드 형성
▷새로운 포교의 장 확대
▷종단 구성원 확대와 조직화

■ 2012년 4대 특화사업

▷취약지역 문화센터 설치 운영
▷발심품계 법회 정례 추진
▷불교스카우트 조직 운영
▷교구 산악인회 결성

동방대학원대학 선암사건 연내 해결

태고종, 연두기자회견서 밝혀

태고종이 조계종과 협의 중인 선암사와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대학원대학 건을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승려노후 전용시설인 기로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월 1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종단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총무원장 임기 3년차인 지금도 운산 前 총무원장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내 부덕의 소치이다. 종도들의 지혜를 모아 올해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종단 발전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승가교육에 종단의 미래가 달렸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원, 불교대학 등을 정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총지종 충북 괴산에 80만평 농장 조성

불교 총지종(통리원장 지성)이 올해 내부적으로는 승직자 자질 향상, 대외적으로는 포교 활성화에 주력 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 괴산에 유기농 작물 재배와 수련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복지종단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한다.

지성 통리원장은 1월 17일 역삼동 총지종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주요 계획을 설명했다. 80만평 규모로 조성될 괴산 종합복지타운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성 통리원장은 "종단이 복지재단을 일찍 설립했음에도 활동이 미약했다. 앞으로 건립될 종합복지타운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종단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성 통리원장은 "총지종 승직자들과 자제공덕회를 방문해 포교 방식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지관 스님 원력 회향 돕겠다" 김용환 신임 문광부 제2차관이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가산불교대사림〉 완간 지원을 약속했다. 김용환 차관은 "지관 스님이 노력하신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을 위해 문광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종단은 정부 예산지원에 큰 관심은 없다. 정부가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화해상생 자주화합' 서원

진각종 새해대서원불공

진각종은 1월 9~15일 1자성(1주간) 동안 진기66(2012)년도 임진년 새해대서원불공을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이번 새해대서원불공은 '화해상생과 자주화합'을 서원의 으뜸 덕목으로 총인 예하의 교시에 따라 ▷화해상생으로 인류공영공존 ▷자주화합 정치와 경제발전 등을 서원했다. **조동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창립 선언문

귀 의 삼보 하옵고

불교 각 종단 종정(宗正)예하(猊下) 총무원장(總務院長)님 고승(高僧) 대덕(大德) 큰 스님 들과 2천만(千萬) 불자(佛子) 사부(師父)대중(大衆)께 아뢰옵니다.

삼계(三界)의 대도사(大道師)이시며 사생(四生)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어언 3천여 년 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佛敎)의 역사(歷史)를 돌이켜보면 왕정(王政) 치하(治下)에서는 귀족(貴族) 불교(佛敎)화 되었고 역사적(歷史的) 법란 속에서는 산중(山中)불교(佛敎)로 대중화(大衆化) 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외침과 위정자(爲政者)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가슴 아픈 역사(歷史) 속에서도 면면히 그 법맥(法脈)을 유지해왔으나 작금의 현실(現實)은 무분별(無分別)한 외래(外來)종교(宗敎)문화(文化)에 밀려 마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으니 심히 통탄(痛嘆)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 각 종단(宗團)은 자신들의 종지(宗旨)만을 고집하고 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은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군소(群小)종단(宗團)의 난립(亂立)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 이에 본 사단법인(社團法人) 한국불교(韓國佛敎) 종단(宗團) 총연합(總聯合) 진흥회(振興會)에서는 수많은 종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화합(化合) 단결(團結)하여 불타(佛陀)의 혜명을 계승(繼承)하고 전법(傳法)도생(度生)의 사명(司命)을 다하고자 법등(法燈)을 밝히노라.

본 사단법인(法人) 진흥회(振興會)는 한국불교의 종조이신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圓融) 무애사상(無碍思想)과 그 정신을 받들어 걸림 없는 대통합(大通合)의 화합을 통해 한국불교 교단(敎團)이 일치(一致) 단결(團結) 하여 21세기 이 시대(時代)가 요구(要求)하는 새로운 불교 개혁운동(改革運動)으로 세계일화의 꽃을 피워 적극적(積極的)인 사회(社會)참여(參與)와 생활(生活)불교(佛敎)를 실천하는 신행(信行)생활을 통해 이웃과 사회(社會) 나아가 세계일류(世界一流)평화(平和)에 기여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고자 그 첫걸음의 행보(行步)를 만천하에 공포(公布)하는 바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 하실 각 종단(宗團) 신행(信行) 단체(團體) 및 사부대중 불자님들의 동참 (同參)을 두 손 모아 앙망(仰望)하는 바입니다.

佛紀 2556年 (2012) 1月 16日

社團法人 한국불교종단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영산 일공
한국불교 종단 총 연합 진흥회 회원일동

임원 명단

총 재 영산 일공 대화상
원로위원 (법광) (동산)
회 장 석연화

부 원 장 운산. 원덕. 성관. 월암
자문위원 지암. 은곡. 도선. 지오
사무총장 승덕 운영위원장 효진
기획실장 법장 사서실장 송현
지도위원장 법붕 호법원장 보성
문화원장 지오 학술원장 청운
감찰원장 종섭 서화위원장 청곡
조직국장 혜월 홍보국장 혜천
사업국장 법성 사서실의전실장 무영
법사원장 장영희 부 원 장 황병권
부 원 장 최광자

회원종단 (당연직 운영이사)

한국불교원융원(종) 성관
세계불교법륜종 법광
대선불교조계종 동산
호국불교선미륵종 효진
대한호국불교극락종 은곡
해동호국불교조계종 운산
중국광동육조사한국육조선원 연화
대한불교법운종 월암
세계선불교조동종 송현
한국불교구산선문회 법장
한국불교동산조계종 원덕
대한호국불교대각종 종섭
대한호국불교연화조계종 혜월
한국불교선재선원 청운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연화
대한불교법계종 청산
대한호국불교조계종 혜일

회원단체

세계선불교 육조선 교류연맹
세계 불교지도자 연맹
혜능 국제 불교 대학
혜능사상 연구회
한국 선 불교 학회
사단법인 세계 예술 교류 연구회
한국 도교 협회
민족 도교 협회
바라밀 예술단 (지우)
사단법인 한국 민속 예술 연구원
한국 풍수 지리 학회

入會案內

● 회원의 자격 : 각 종 단체 및 신행단체, 승려 및 일반불자, 불교 문화예술 전문분야종사자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33길 15
● 전 화 : 02)857-2250. 011-285-6800. 010-4813-6800 FAX 02)853-0533
E-MAIL : duksan0129@yahoo.co.kr

“불교가 한국사회 희망 되자”

한국불교종단협, 신년 하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가 신년 하례법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사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종단협은 1월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012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재가단체 및 정 ·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은 유례를 찾기 힘든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청년실업, 높은 자살률,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지수 등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또 “불자들은 이런 사회 현실을 위무하고 희망을 전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의 한국사회에 이고득락의 길을 열어야한다. 모든 국민들과 중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야 한다”며 불자들이 눈 밝은 수행자처럼 깨어 있을 것을 당부했다.


각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단협 신년하례가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협 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기원사에서 “새해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촉발된 위기와 불안의 국면이 남아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서 각종 견해와 요구가 표출될 것이다. 동체대비, 극기복례를 통한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이어가는 평화와 화합이 웅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도 신년인사에서 수행을 통해 혼잡한 현대 사회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불안한 경제 현실과 이질성만으로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자리에서 키우는 깊고 자비로운 수행의 모습에서 우리들 주변 환경이 진실한 불국토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하례법회 동참 사부대중’ 발원문이 발표됐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불자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원문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낭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영롱한 빛에서 법문 들리는듯…

지관 스님 사리 공개
49재는 2월 19일 조계사


2재에서 공개된 지관 스님의 사리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리가 공개되고 49재는 조계사에서 진행되기로 확정 발표됐다.

1월 15일 서울 경국사에서는 지관 스님의 2재가 열려 맏장좌 세민 스님을 비롯한 종단 내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정치계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前 대표가 참석했다.

2재에서는 지관 스님의 맏상좌 세민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신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염불을 외우고 기도를 올렸다. 일부 보살들은 지관 스님의 생전 모습이 떠오르는 듯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지관 스님 영전에 삼배를 올린 뒤 세민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이 먼저 절을 올린 뒤 마지막에 재가자들이 절을 올렸다. 손학규 前 대표도 신도들과 함께 절을 올렸다.

세민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초재 때 사리를 공개하려다 준비 미흡으로 2재에서 공개하게 됐다. 치아가 고열에도 녹지 않아 치아사리와 원형 사리가 수습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영결식에서는 49재를 해인사에서 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큰스님께서 경국사에 오래 머무르셨고 49재 때 날이 추울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종단에서도 동의해 49재는 조계사에서 지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의 49재는 2월 19일이다.

2재 후에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지관 스님의 사리를 친견했다. 많인 인원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차례를 기다려 모두 사리를 친견했다. 이날 공개된 사리는 치아 사리 5과와 원형 사리 3과 등 총8과였으며 원형 사리는 노란빛을 띄고 있었다. 신도들은 사리의 영롱한 모습에 감탄하거나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리를 친견한 한 신도는 “사리만 봐도 스님이 떠오르는 듯 존경스럽다. 참 신비롭다”고 밝혔다.

권순한 보살은 “젊어서부터 스님을 친견했었는데, 이제 뵐 수 없어 안타깝다. 사리를 보니 스님이 생각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지만 학승이셨던 스님의 면모가 사리에서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관 스님의 사리는 49재까지 경국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동화사 금괴 있어도 ‘못 판다’

금괴 매장설로 곤혹을 치뤘던 동화사에 대한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 됐다.

문화재청은 건축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9일 서울고궁박물관에서 심의를 열었다. 심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은 동화사 발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동화사 대웅전이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됐고, 현상변경을 승인하기에는 신청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탈북한 김 모씨는 남한 출신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40kg 가량의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발굴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다.

김 씨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동화사는 혹시 모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대웅전 보호에 만전을 기울였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한글의식 등 의례현대화 박차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홍원사서 개원


한국불교전통의례 전승원 개소식에 여러 스님들이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다.

한국불교전통의식을 전수하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학장 동주, 조계종 어산어장)이 1월 18일 개원했다.

서울 홍원사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중앙종회의원 도정 · 종민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교육원 인가 교육기관인 전통의례전승원은 학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학감 정오 스님(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한글의례실무위원), 행자교육원 교수사 현준 스님, 영산재 이수자 도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사과정) 등이 지도한다.

학제는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2년, 기능과정 1년으로 불교의식 전수와 연구 뿐만 아니라 한글의례의식 연구 및 교육과정도 개설됐다. 전문과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는 수륙작법도 전수 된다.

학장 동주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의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승원을 개원하게 됐다. 각 분야 전문가인 교수사 스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후학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승원 개원으로 불교가 가진 전통 의례를 전수하는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의례 복원 및 전수 뿐만 아니라 한글의식 등 현대화 등도 전승원 개원으로 크게 꽃 피우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포용화사, 지방의회와 예산 공방

교육 · 복지 예산 삭감 둘러싸고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맞불

교육 및 복지 예산 삭감을 둘러싼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와 김포시의회의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본지 870호 2면 참조)

김포시의회는 1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화사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포시의회 정하영 조승현 유영근 신명순 의원이 참석했다.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4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교육 ·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들은 용화사와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장애인엘리베이터 및 정화조 설치는 당초 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마련한 의원들을 규탄했다.

용화사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무엇이 부끄러워 본질을 숨기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밝힌 예산편성 원칙이 강제 조항이 아님에도 공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용화사와 시민단체들은 “얄팍한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의원들이 소수와 약자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도제 스님, 마주협 상임 대표 선출

2012년 정기총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이 상임공동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2012년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마주협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광주 길상사 주지 도제 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도제 스님은 “(길상사가 있는)광주에도 숙제가 많이 남았는데 마주협 상임대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8개 단체의 대표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주협은 올해를 조직 안정과 회원단체와의 연대 강화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마주협은 지역 간담회,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샵, 이주민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마주협은 또 정관개정을 통해 단체 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주협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공동대표로 참석하고 사회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내부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위한 명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기범 · 주성원 기자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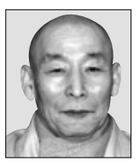
양양 낙산사 새해맞이 노인 잔치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1월 19일 임진년 새해를 맞아 새해맞이 노인 위문 잔치를 개최했다.



청소년 내꿈찾기 의지나눔 제주도 캠프 성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1월 12~14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의지나눔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신년기자회견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도광 스님은 1월 17일 신년 지역 기자회견을 갖고, 2월 27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053)655-3380



제17회 신곡문학상 대상 수상

맹난자 前 수필문학 진흥회장은 신간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로 제17회 신곡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방불교대학 2012 신입생 모집

이상우 동방불교대 이사장은 2월 20일까지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45-2030

〈인사〉 조계종 제9기 교육위원장에 주경 스님



조계종 교육원 제9기 교육위원장에 주경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선출됐다. 교육원은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랍 15일 위촉된 9기 교육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인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선출



종호 스님



이희구 회장



양영자 운영위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가 1월 18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를 선출했다. 새 이사는 제주 제석사 주지 종호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도회 이희구 회장, 양영자 운영위원장이다. 이로써 협의회 이사는 기존 28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박기범 기자

"손길 미치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부처님 세상"

법주사 조실 범행 스님 영결식

보은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 대종사가 1월 15일 오전 1시경 수원 팔달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91세. 스님의 영결식은 19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범행 대종사는 선학원 이사장 등 종단의 주요 종무직과 불국사 등 주지 소임을 공심을 갖고 임하면서도 이(理)와 사(事)를 둘로 보지 않고 항상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신심으로 주력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은 불사를 했던 선지식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보화(普化) 선사의 나무장삼은 동서남북의 문을 드나들었고, 설봉(雪峰) 선사는 네거리에서 선원을 세워 오가는 이를 제접했으니, 범행(梵行) 선사 역시 생사(生死)토록 언제나 무진법등(無盡法燈)이셨도다"라고 법어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가람이 정비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불연이 이어져 교화의 연꽃이 피어났다"고 추모했다.

영결식 후 범행 스님의 법구는 만장행렬을 앞세운 채 법주사 연화대로 옮겨졌다. 상좌와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비식이 거행됐다.

스님의 49재는 수원 팔달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범행 스님은 1921년 경기 화성에서 출생했다. 1948년 태고사를 찾아 포산 스님에게 출가, 1952년 팔달선원 전신인 팔달암에서 피난민들을 위로하며 도심포교에 힘썼다. 1955년 세납 35세때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봉은사 주지, 선학원 중앙선원장, 조계사 주지, 대구 동화사 주지, 경주 불국사 주지, 부산 금정선원장,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 사장 등을 지냈다. 1975년 선학원 제13대 이사장을 역임한 범행 스님은 17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1월 19일 보은 법주사에서 봉행한 범행 스님의 영결식에서 사부대중이 만장을 들고 다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범행 스님 임종게

일생동안 많은 일들이
꿈속에 일과 같네
한생각 내려놓으니 걸림이
없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一生多事 夢中如幻
一念放下 無碍歡喜

효일당 범행 스님 행장

1921년 2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5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남
1948년 건강이 좋지 않아 진산 태고사에 입산, 모다라니 기도정진으로 불보살의 가호를 받아 사경을 헤매다 소생했으므로 발심해서 출가결심
1949년 수원 팔달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4~1957년 서울 봉은사 정화 후 초대 주지역임. 경기도 종무원 교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 정화불사의 혼란 속에 송사 해결하는데 진력함
1956~1960년 종단 정화 과정에서 조계사가 운영난에 처할 때 마다 범행 스님이 주지로 임명돼 이를 극복함. 육군사관학교 포교 및 육군 제28사단 등 군부대 법당불사 등 군포교에 주력함
1959년 조계종 전계화상 동산 스님에게서 구족계 수지
1960~1961년 대구 동화사 주지 역임
1963년 총무원 교무부장 역임
1963~1966년 조계사 주지 겸 총무원 재무부장 · 선학원장을 역임하며 삼보정재가 덕성학원에 넘어가게 된 것을 수습해 되찾음
1963~1967년 총무원 감찰부장 역임
1968~1973년 불국사 주지 재임시 발굴조사 후 옛 모습으로 복원 불사함.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인 30명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후 기업인들에게 복원불사 기금을 모연해 불사를 지원함 불국사 주지 당시 대구 제2군사령부 군법당건립. 영천3사관학교 법당 불사 회향
1970년 대한불교신문사 사장
1973~199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 못해 업자가 선학원 재산을 처분 하려던 것을 수습함.
1975년 수덕사 방장 혜암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당호를 효일로 명명함
1984~1986년 예산 수덕사 주지
1998년~2012년 법주사 조실.
2012년 1월 15일 01시10분 팔달사에서 세수91세 법납64세로 입적

가수 주병선 씨, 생명나눔홍보대사 위촉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40~60대 중년세대들의 애창곡 '칠갑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 씨가 장기기증 홍보에 나섰다.

주병선 씨는 1월 18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장기기증서약을 하고 일면 스님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주 씨는 "작년 불암사 산사음악회에 초대됐을 때 일면 스님의 장기기증 운동 활동을 보고 참여의 뜻을 전했다"며 "앞으로 공연과 음악회에서 적극적으로 생명나눔 홍보를 하겠다"말했다.

주병선 씨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선행을 오래도록 해왔다. 현재는 소외이웃을 돕는 '파랑새'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주 씨는 "젊은 시절 칠갑산이라는 노래로 큰 성공도 거뒀지만 적잖은 실패도 많이 했다. 동전한닢에 기타하나 메고 돌아다닐 정도로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며 "그럴 때 내 주위를 돌아보니 나보다 더 어렵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까짓 꺼 못 버티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씨는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18년이 돼간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하고 오면 기분이 좋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브레인 병원 불자 3귀의 5계 법회

죽림정사 도문 스님 초청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명옥)는 1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브레인병원(원장 김혁준)에서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김혁준 브레인병원 원장과 의사 · 간호사 등 진료진 40여 명이 동참해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했다.

도문 스님은 수계 법어에서 "브레인병원에 와 보니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그야말로 보살행으로 느껴졌다. 오늘 불자 인연을 맺은 의사와 간호사 불자 모두가 자리(自利)의 6바라밀과 이타(利他)의 4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단총연합진흥회 창립 선포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총재 일공, 회장 연화)는 1월 16일 독산동 앰베서더 호텔에서 '창립 선포 및 임원 임명식'을 봉행했다.

종단총연합진흥회는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이 6년 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회원종단을 준비해왔다.

종단총연합진흥회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16개 종단과 11개 단체를 회원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일공 스님, 원로위원 법광, 동산 스님, 회장 연화 스님을 비롯해 80여 대중이 참석했다.

총재 일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융무애 사상을 바탕으로 종단 화합을 이뤄 한국불교가 통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는 향후 호국기원법회 개최와 함께 백제 · 신라 불교권에 대한 학술조사 및 성지순례, 회원종단 종찰 성지순례, 년2회 태고보우국사 및 육조단경 학술대회, 안거 승가교육를 진행할 예정이다. (02)857-2250

노덕현 기자

편향된 사회, 분열된 사회 - 우리사회의 화합은 멀기만 합니다.
이 사회가 화합하려면 불교가 나라의 지도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한미FTA … 좌파와 우파는 사사건건 극한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에서 불교를 비방합니다. 봉은사, 조계사 난동.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에 오물을 싸고, 팔정도 불상에 십자가를 칠하고, "오직 예수"라고 씁니다.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편향되고 분열된 이 사회를 화합시키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배워야 한다, 나에 대한 집착(我相)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불교만이 우리나라의 지도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라는 화랑을 육성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교가 우리 지도이념이 되려면
젊은 불자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4-1번지 한국수입업협회빌딩 4층
E-mail : cogenlee@hanmail.net
전화번호 : 02)720-1963 팩스 : 02)3483-0772

젊은불자육성 발원대법회

일시 : 2012년 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공연장

[주요 프로그램]

주제발표: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
젊은불자 육성사업 실적보고
젊은불자 육성사업 증진계획 보고
대학생 불자들의 국악연주와 율동
만해시 낭송 "당신을 보았습니다" 외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 춤, 연주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 문의 (02) 720-1963

“제2의 108산사 순례…인천이 불심도시 되길”



인천불교 108성지순례에 참가한 3백여명의 인천지역불자들이 힘차게 화이팅하며 성공적인 순례를 기원하고 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불갑사 유래와 함께 성지순례의 꾸준한 진행을 당부하고 있다.


할머니와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는 손자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인천불교회관, 108순례 10년 대장정 첫발

“새로운 각오로 시작되는 108사찰 성지순례를 통하여 불교포교의 붐을 조성하고 청소년 불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다면 인천불교의 미래 희망은 있습니다. 타 종교의 득세로 짓눌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자들의 서원인 불국정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눈물 나는 고행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커다란 서원을 세우고 모두의 힘을 합친다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성지순례를 통한 활성화가 모색됐다. 인천불교 발전을 위해 10년 성지순례의 대장정을 알린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이 1월 14일 백제불교의 첫 시작지인 영광 불갑사에서 첫 걸음을 뗐다.

7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300여 불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집결해 긴 시간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까지 뜨거운 원력을 세웠다.

4시간여의 여정 끝에 도착한 전남 영광 불갑사에는 아직 한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불갑사 마당과 만세루 등 전각 곳곳에 자리한 300여 인천 불자들은 108 참회를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가람을 신심으로 가득 채웠다.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수많은 불자들이 길을 걸었듯 주지 일지 스님의 지도하에 수백 명의 불자들은 불갑사 법당을 돌며 108 성지순례를 통한 인천불교 중흥을 발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인천 108산사 순례단의 시작은 인천불교회관 불자만의 불사가 아니라 인천불교를 새롭게 바뀌게 할 중요할 불사”라며 “우리 인천불자들은 이 세상의 불국정토를 서원하며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사찰을 찾아 참회와 서원으로 다시 자신의 모습을 올곧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우리 불자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찰 곳곳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의 우리 마음을 부처님 전에 인도해 참된 신앙심을 증장시킬 것”이라며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불자로 살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하며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은 법회에서 108성지순례의 서원을 보다 높게 세울 것을 당부하고 성지순례단을 격려했다.

스님은 먼저 “10년 동안 이어질 108산사 시작을 유서 깊은 백제시원지 불갑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연이 아닐 수 없다”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스님은 이어 “13년 전 불갑사에 오며 불사를 시작하면서 15년 불사 계획을 세웠다. 뜻을 세우니 이뤄지더라”며 “10년간의 108산사 성지 순례로 인천불교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진행되는 수련원과 불교대학 건립에 대한 인천불교회관의 방향 때문일까.

올해 500명 규모로 확대
불교열세 인천지역 중흥계획
인천불교회관내 수련관 건립 발원
불갑사서 백제불교 시원 공부

이날 순례단에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불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 · 할머니와 함께 온 수험생부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불자들까지 인천지역 불자들의 신심을 느끼게 했다.

인천 서창동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만경 정유산 불자(50세)는 “도선사 108산사 순례를 지켜보며 부러운 마음이 있었다. 인천지역에 순례단이 생겨 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정유산 불자는 “일지 스님의 원력과 함께 불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천불교가 대중불교로, 또 생활불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불교108산사순례단은 불갑사를 떠나 백제불교의 첫걸음이 시작된 법성포 마라난타사를 참배하고 첫 순례의 일정을 마쳤다. **노덕현 기자**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모악산에 자리한 불갑사(佛甲寺)는 백제 침류왕(384년) 당시 마라난타 존자가 백제에 불교를 전래하면서 제일 처음 지은 불법도량이라는 점을 반영하해 절이름이 붙여졌다.

천왕문 안에는 신라 진흥왕 때 연기조사가 목각하고 고종 1년에 설두선사가 불갑사를 중수하면서 폐사된, 전북 무장연기사에서 옮겨왔다고 전해지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천왕문 우측에는 1층과 2층에 각각 종과 북이 걸린 육각누각이 있고 그 누각 옆에 참식나무 한 그루가 있다.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세 짝 문을 연화문과 국화문으로 장식했다. 불상이 측면으로 모셔져 있는데 이는 남방불교 양식이다. 불갑사 안에는 만세루 · 명부전 · 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이 있다.

“인천불교 성지순례로 중흥”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



“인천지역의 불교세가 약하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이번 인천 108산사 성지순례단 결성으로 인천지역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인천불교회관을 건립해 도심포교를 펼치고 있는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스님은 첫 순례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백제불교가 시작된 의미에서 순례지를 정했는데 전법의 발원 그대로 10년 대불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 인천불교회관을 건립하며 잠재된 불심을 일깨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스님은 지난해 108산사 순례단을 결성하기로 결심했다. 인천불교회관이 모델로 삼은 것은 ‘선묵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매월 사찰순례와 함께 〈금강경〉 1독 및 108참회가 기본 프로그램으로 2012년 말까지 5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지 스님은 108산사 성지순례를 하면서 또 다른 원을 세웠다.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다. 순례단 일정을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10여 년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불심의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큰원력으로 환하게 빛났다.

왕초보 반야심경 박사 되다

김명우 지음
270쪽 / 값 9,500원

왕초보 천수경 박사 되다

성법스님 지음
328쪽 / 값 9,500원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352쪽 / 값 9,500원

왕초보 불교 교리 박사 되다

고명석 지음
316쪽 / 값 9,500원

왕초보 금강경 박사 되다

이제열 지음
320쪽 / 값 9,500원

초짜의 불교공부 첫걸음
왕초보! 결국 불교 고수가 되다!

왕초보 禪 박사 되다

윤창화 지음
424쪽 / 값 11,500원

왕초보 육조단경 박사 되다

김영욱 지음
246쪽 / 값 9,500원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정승석 지음
278쪽 / 값 9,500원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계환스님 지음
302쪽 / 값 9,500원

왕초보 수행 박사 되다

고명석 지음
320쪽 / 값 9,500원

❖왕초보시리즈는 모두 ‘126×187mm’의 판형에 양장으로 제본되어 있습니다. 한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습니다. ❖왕초보시리즈는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교대학 입학 · 졸업 선물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Tel. 02)732-2403~4 ● Fax.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E-mail.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군인에서 불자되길 다짐


군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는 모습

호국적성사 군장병들이 신심 깊은 불자로 거듭났다.

1월 15일 25사단 71연대 파주 호국 적성사에서 거행된 수계법회는 군장병 42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 가운데 수계를 받은 군장병 71명은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기리며 연비를 받았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진행된 이번 수계식은 25사단장 신동만 소장과 71연대장 이재용 대령,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원과 화계사 청년회 불자들이 참석했다.

수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는 삶의 구속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자기와의 약속"이라고 설명하며 장병들에게 삼귀의의 뜻과 오계(五戒)의 실천사항에 관해 설법했다. 또한 스님은 "오계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지 마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며, 불을 켜면 천년만년의 어둠도 한 순간에 사라지듯 수계를 잘 지켜 인류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에 참관한 신동만 사단장은 "수계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진실 된 불제자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수계를 받은 장병불자 모두가 군 생활을 마친 후 사회인이 돼서도 헌신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를 받은 군장병 박다빈 병장(25사단 수색대대)은 "소대 선임이 불교 군종병이었고, 선임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게 됐다. 이 인연으로 제대 후에도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계속 믿음을 실천하겠다"며 법회 소감을 밝혔다.

수계법회 후에는 화계사 청년회가 마련한 공연이 진행됐다. 화계사 청년회 출신 뮤지컬 배우 이민경 씨의 노래와 삼인조 퓨전국악그룹 '소리디딤'의 화려한 국악 공연이 펼쳐졌다.

장병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지속된 이번 수계법회 뒤에는 수년째 장병 불자 양성에 힘써온 유기현 포교사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유기현 포교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포교방식 변화를 고민해 왔다. 그 결과 화계사 청년회의 협조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대형사찰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할 수 있었다.

유 포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재가불자들의 자원봉사로 군포교 활동을 해왔지만, 무엇보다 대형사찰들이 전방부대 포교활동에 적극 동참해 청년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번 법회에 화계사 주지 스님을 모시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군장병 420여 명 중 71명 수계
전문 연예인 공연 열려 성황
대형사찰, 청년불자 육성 위한
불자들의 군포교 동참 절실

적성사 군종장교 법정 스님은 "어렵게 군장병들을 수계법회에 불러도 타 종교에 비해 비좁은 법당 때문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71연대 아래쪽에 480세대 군인 아파트가 완공됐다. 그 아파트단지에는 이미 교회가 들어섰는데 군법당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밝혔다.

공연 준비와 진행을 맡은 화계사 청년회 김무아 회장은 군포교에 경험이 없어서 다소 걱정했으나 군장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김무아 청년회장은 "최근 들어 불교 청년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회 창출이 없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군장병 포교와 더블어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법회 형식 등을 새롭게 구성해, 청년 불자와 군장병도 좋아할 수 있는 불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새터민 · 이주노동자 더 많이 돕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3500명 등 신년 계획

"자살예방 상담과 소외이웃 지원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18일 본부 사무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 캠페인과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생명나눔은 특히 2011년 6월 개원한 '생명나눔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운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 12월 전화 및 면접, 이메일 상담 건수가 184건으로 활발한 활동상을 보였다"며 "올해에는 홍보활동과 함께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6월 28일에는 자살예방 세미나를 계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0명 환우에게 2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다문화 가정, 새터민, 이주노동자, 조선족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에는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불교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보게 되면 본부에 알려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희망자 3500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4000명을 목표로 모집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80~100회에 걸쳐 길거리, 자치단체 행사를 포함해 전국 각지 사찰과 조계종 교육과 연계해 장기기증 모집캠페인을 펼쳐나간다. 또한 조혈모세포 희망자 모집 캠페인은 광주, 부산, 경남, 대구, 제주도 지역 외에도 충청권, 강원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해오던 한다솜 희망음악회, 걷기대회, 천도재, 자비의 쌀 나누기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 밖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후원 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네이버 '해피빈', 기업은행 '참좋은 기부' 등 활성화를 통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ARS를 개설해 전화 한 통당 5000원의 기부금 모금을 전개해 나간다. ARS (060)703-1133

한편 일면 스님은 18일 동국대에 제2건학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총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종립학교인 동국대가 발전하면 불교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이사로서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미얀마 학교 건립

백천장학재단, 더프라미스 협약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등)와 백천장학재단(이사장 조명하)이 미얀마 낙후지역인 딴린시 민가룬 마을에 교실 6칸 규모의 중학교 건물 한 채를 짓기로 하고 1월 19일 협약식을 가졌다.

종로구 더프라미스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천장학재단 조도성 사무국장과 더프라미스 상임 이사 묘장 스님이 협약을 체결했다. 백천장학재단은 더프라미스 측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소중하게 써줄 것을 당부했다.

민가룬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어 진학률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중학교가 있는 도시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주성원 기자

문화재 우리 손으로

대학생 문화유산 서포터즈

불자 대학생들이 올 한해 한국불교문화유산 알림이로 활동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1월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제2기 템플스테이 대학생서포터즈(단장 김도현)를 출범시켰다.

서포터즈 30명은 지정사찰 월1회 이상 업무보조, 블로그 · SNS 등 온라인 홍보, 모니터링 등 1년 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서포터즈 모집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가 주축이 됐다. 대불련은 향후 서포터즈 활동까지 관리한다.

조동섭 기자


"어르신, 따뜻한 겨울 나세요" 조계종은 1월 19일 사회국장 묘장 스님을 대표로 홍제3동 개미마을 경로당에 쌀(20Kg) 10포대와 초코파이, 목도리, 보온양말을 개미마을 오한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과 초코파이는 조계사에서, 목도리와 보온양말은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 가르침 통해 영어가 늘었어요

국제포교사회 '제5회 자타카 영어암송대회'



자타카 영어암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Once upon a time a rich man gave a baby Elephant to a woman(옛날 옛적, 부자인 남자가 한 여자에게 새끼 코끼리를 주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가 개최한 '제5회 자타카(Jataka) 영어 암송대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암송소리가 울려퍼진다.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회 참가 어린이들은 원어민을 능가하는 발음으로 자타카(본생경)의 이야기 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했다.

이날 참가한 24팀 30명의 어린이는 1월 7일 70팀 77명이 참가한 예선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자들이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성실하게 각종 소도구까지 준비해 경연을 벌여 뜨거운 열기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암송대회는 ▷대상에 박주영(성동초5 ·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최우수상에 김은지(문정초3 · 비로자나국제선원) · 김지영(효성초6 · 대구한국불교대학) ▷우수상에 김준수(계남초5 · 봉은사) · 구동욱(계남초6 · 봉은사) · 이수연(영덕초5 · 비로자나국제선원) · 강신지(원일초2 · 오산대각사) · 신윤우(신서초6 · 국제선센터)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지난 4회 때 보다 참가자 수가 약 2배가 늘었다. 지난 4회때 참가해 영어 실력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가한 권민철(부양초4) 어린이의 어머니 오윤영씨는 "2011년에 참석했는데 영어실력이 늘어서 한 번 더 참가했다. 불교공부도 같이 하게 되니 여러모로 아이 학습에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배광식 회장은 "이번 대회는 심사위원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 잘했다"며 "이 대회를 통해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부처님 정신과 유능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게 된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될 때의 동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실사구시 불교학 지향 응용불교 전문지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창간…연2회 발간



전법 ·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고 정법 홍포를 위한 실사구시의 불교학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지가 창간을 앞두고 있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불교가 나아가야할 바를 탐구하고 불교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지 〈전법학 연구〉 1월 30일 창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책은 전통 불교학이 주로 담당했던 교리사상 역사 문헌학 등 학문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를 조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천적 불교학을 개척하게 된다.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창간사에서 "그동안 우리 불교학계의 주류는 학문을 위한 학문, 교리를 위한 불교학에 치중해 '지금 여기'의 한국불교 문제를 연구 · 토론하는 불교학이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오늘 여기서 불교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해 바른 길을 모색코자 전법 · 포교에 초점을 맞춘 실사구시의 불교학을 열어가기 위한 〈전법학 연구〉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불광연구원은 2010년 7월 개원해 1년 6개월 여 동안 12차에 걸쳐 '광덕 스님 사상 연구' '대만불교 연구' '한국불교의 생태운동' '불사의 현대적 의미'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연찬회를 개최해 왔다. 이 과정에서 4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고, 이 논문들은 〈전법학 연구〉를 펴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책은 매년 1월 30일 · 7월 30일 매년 2회씩 발간될 예정이다. 책에는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 발표 논문뿐만 아니라 창간 목표에 부합하는 논문도 투고 받아 심사를 거쳐 게재된다.

지홍 스님은 "〈전법학 연구〉는 전법과 포교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해 한국불교학계에 '전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전법학 연구〉의 내용을 심의하고 편집방향을 논의할 편집위원회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석길암 금강대 HK연구교수, 이도흠 한양대 교수, 조명제 신라대 교수, 조은수 서울대 교수로 구성됐다. 초대 편집위원장은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전법학 연구〉 제1집에는 광덕 스님의 사상연구 · 대만불교 연구 · 전법학 연구 등 14편의 논문이 게재된다.

'광덕 스님의 사상연구' 장에는 ▷광덕 스님 사상의 개요(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광덕 스님의 삶과 불광사상(김재영 청보리회 법사)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과 시대적 의미(이종수 동국대 HK연구교수) ▷순수불교 운동의 의미와 방향(석길암 금강대 HK연구교수) 등 4편의 논문이 실린다.



2010년 7월 10일 불광연구원 개원 법회에서 이사장 지홍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스님은 광덕 스님의 큰 뜻을 오늘에 구현코자 불광연구원 개원에 이어 학술지 〈전법학 연구〉를 펴낸다.

'대만불교 연구' 장에는 ▷대만불교의 실천이념에 관한 고찰(김호성 동국대 교수) ▷대만불교의 성장과정과 특징(양정연 한림대 연구교수) ▷대만불교의 전법과 포교활동(이상미 대만국립대 교수) ▷대만불교의 성공요인과 한국불교의 성찰(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 4편의 논문이 담긴다.

'전법학 연구' 장에는 ▷전법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박경준 동국대 교수) ▷고따마 붓다의 전법행과 교화방편(유성욱 BK21) ▷불사의 교리적 연원과 그 해석(태경 스님 ·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사) ▷원불과 천불조성의 연원과 현대적 의의(금강대 연구교수) ▷서양윤리의 동물권리 논의와 불교생명윤리의 입장(허남결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의 생명살림운동의 역사와 미래(유정길 에코붓다 대표)가 수록된다

한편, 불광연구원은 〈전법학 연구〉 창간 봉정을 광덕 스님의 열반 제13주기일에 맞춰 2월 3일 불광사에서 봉행한다. 봉정식 후에는 책을 전국 주요 불교기관, 불교학자, 불교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最古 금속활자 직지 최초 복원

청주고인쇄博 1차년도 복원 보고회서 5천자 공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의 활자 경판이 600여 년 만에 최초로 복원됐다.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반재홍)은 1월 17일 괴산 연풍 소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임인호의 활자주조 작업실에서 '2011 직지 금속활자 복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물관은 복원한 금속활자본 13장과 목판본 6장을 공개했다.

박물관은 2011~2015년 문화재청과 충청북도로부터 18억원을 지원 받아 〈직지〉 금속활자본(상 · 하권)과 목판본(하권)을 복원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한 글자는 '직지' 금속활자 2만9000여 자(字) 가운데 6분의1인 5000여 글자로 〈직지〉 금속활자본(하) 13장과 목판본 6장 등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씨가 맡았다. 목판 복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인 각자장 전수조교 김각한씨가 담당했다. 서지학자인 남권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밀랍주조법 가운데 100여 자 이상을 주조하는 다량(多量) 주조방식이 사용됐다.

박물관은 이번에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 78장에 이어 2015년까지 상 · 하권과 목판본 하권을 연차적으로 복원한다. 금속활자 실물복원 이외에 고려시대 인쇄기술을 정리하는 연구보고서도 매년 간행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 사용한 한국 인쇄술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이번에 복원되는 활자들은 〈직지〉와 더불어 한국의 훌륭한 인쇄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적인 자료이다. 조선시대 금속활자의 성공적인 복원과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을 통해 청주를 직지의 도시로 특성화해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 · 하권으로 간행됐다. 현재 하권 1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조동섭 기자**



청주고인쇄박물관은 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임인호 씨(맨 왼쪽)의 작업실에서 2011 직지금속활자복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복원한 5000여 자를 공개했다.

문화유산콘텐츠 지도로 만난다

문화재청,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확대 개편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고려…문화재 규제 정보 등 한눈에

인터넷을 통해 지도에서 문화유산콘텐츠와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문화재 규제정보 확인이 가능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이 같은 서비스를 골자로 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eritage GIS)를 1월 16일~2월 29일 시범서비스 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단장한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 · 편의성을 고려해 포털사이트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고, 편리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 나들이' 지도와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를 새롭게 구축했다.

'문화유산 나들이'는 문화재 검색과 동시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국가문화유산포털, 헤리티지 채널,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이야기, 동영상, 사진, 전문지식을 지도기반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정보를 지도에서 검색 · 조회 가능하며,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상세한 지정 · 매장문화재 규제정보를 볼 수 있다. 또, 기존 지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문화재 지정 · 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정보를 제공하며,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도 확인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 지도서비스는 문화재 규제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건설 예정지역의 문화재 훼손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is-heritage.go.kr **조동섭 기자**



'태고사상' 제7집 발간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은 최근 〈태고사상〉 제7집을 펴냈다.

'태고보우 국사의 법향'을 주제로 발간된 이번 논문집에는 ▷이사장 무공 스님의 기조문 '태고 조사의 불조정통 법맥상승과 불교 중흥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법현 스님(前 태고종 총무원장)의 '태고 선사의 상승법맥 연구-권상로의 고조파(古祖派) 주장을 중심으로'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서산의 선풍(禪風)과 그 법통문제' ▷최성렬 조선대 교수의 '간화선법의 수용이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 ▷혜성 스님(덕수사 주지)의 '현대 한국불교와 간화선' 등이 수록됐다. (02)747-8076 **조동섭 기자**

천태학연구' 제14집 발간



천태종(총무원장대행 무원)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최근 〈천태학연구〉제14집을 발간했다.

책에는 지난해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염불신앙의 연원과 전개(김상현 동국대 교수)' '미타염불과 관음염불의 동이점(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대중불교와 염불신앙(김용표 동국대 교수)'가 게재됐다.

또, 제4차 한중포럼에서 발표된 '사회발전과 사찰교육(송리따오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불타와 교육(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새로운 시기의 사찰 교육(쉬원밍 중국사회학학원 교수)' '한국 천태종의 교육이념과 교육현황(김세운 천태종 교육부장)' '낙양 백마사 불교교육의 현황과 전망(쉬진씽 하남성 문사연구관 관원)' '불교의 신도 교육과 사회발전(김상현 동국대 교수)' '당나라 불교교육이 현대에 미치는 영향(궈샤오린 낙양사범학교 교수)' '현대사회에서의 승가의 역할과 승려 교육(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실렸다. 또, '정명국사 천인의 사상과 수행(라정숙 숙명여대 외래교수)' '신라 선덕여왕의 알영신화 재편과 첨성대(조경철 연세대 외래교수) 등 공모논문도 게재됐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우담종문회

원 로 회
원로의장 은파
원 로 원 성파. 원파. 동파. 정공. 정봉. 진파

종 무 원
종문회장 근파 부 회 장 농파. 선파
총무부장 능산 재무부장 해암 교무부장 묵암 사회부장 만산
문화부장 자관 의전부장 덕산 기획부장 등암

교 육 원
불곡사 승가교육원장 영파 불모산 영산재보존회장 한파 본사 불곡사 주지 서암

감 사 원
감사원장 영산 감사위원 거산

법인이사회
이 사 장 근파 이사 은파. 원파. 농파. 영파. 정봉 감사 능산. 서암

우 담 종 문 회 일 동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1036번지 / 전화 055)282-7402

2012 임진년 壬辰年

가피 加被

임진년 한 해에도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가피(加被)란 부처님께서 자비(慈悲)를 베풀어 중생들에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호남을 불국토로 만들자

광주지역 불교단체 신년 계획 발표
포교 및 사회화 추진 의지 뚜렷

최근 광주전남지역 불교는 불교사회단체의 왕성한 활동이 특징적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불교 단체들의 신년 계획 속에 임진년을 포교와 사회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세가 약한 광주전남에서 불교사회단체들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신년 계획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조선대병원에서 무료 차봉사를 하는 광주생명나눔의 활동 모습

최근 섬포교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신년계획을 통해 대불련 팀의 창설과 청소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기존 대학생 법회와 행사지원을 새롭게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불자 장례식에서 염불봉사, 소년원 법회, 군법당(목포 호국사자사, 담양 전차부대, 국군함평병원)활동을 매주 진행하며, 3월부터는 전남지역 섬포교 활동도 실시한다.

정영균 단장은 "올해에는 지역별로 총괄팀을 조직해 각 지역에서 직능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으로부터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한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도 1월 생명나눔 치료비 전달식과 쌀 지원행사 그리고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환우 완치잔치를 시작으로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

생명나눔은 2012년 주요행사로 ▷출가 열반재일 행복한 자비의 1만배 정진기도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등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나눔의 집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작은 음악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원효사 음악회와 나눔행사 ▷소아암 백혈병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나들이 등을 진행한다.

또한 연중행사로 4월부터 8회에 걸쳐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전국 생명나눔 헌혈은행 네트워크사업, 헌혈 및 혈소판 모집, 생명나눔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주권기 생명나눔 콘서트, 조선대학교병원 차봉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짧은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2012 희망선언'을 통해 8가지의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구체적 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 사업 강화 ▷1080회원 증원 사업 및 회원참여사업 강화 ▷불교의 사회참여(불교NGO) 담론의 저변확산 ▷대사회적 나눔과 회향사업 강화 ▷불교NGO활동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회변화에 따른 전략수립 및 홍보강화 ▷정치적 격변기 적극대처 등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따마따 1박2일 프로그램 정례화, 어린이생태학교, 선재역사문화탐방,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후원의 날 행사 등도 개최한다.

또한 1080명 회원을 목표로 회원 증원사업을 위해 밝은마음초록세상 소모임과 산행모임, 공부모임을 활성화 한다. 여기에 대중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나누기, 5·18 묘역 작은음악회, 대중공양 등을 진행한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기존 다문화와 외국인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로 다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주성 센터장은 "최근 다문화가정의 이주민 여성들이 고국의 고유문화를 잊어버리거나 2세에게 전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도 외국 교민들이 한국문화를 잃어버린 아픈 경험을 살려,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를 위해 '아시아 다문화 예술단'의 활성화와 전통의상, 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 미술창작, 한국어 학습, 2세들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대 병원 불자회가 법회를 열고 환우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전북대 병원법당 개원 발원

국내 유일 법당없는 국립병원
병원불자회 등 법회 열고 뜻 모아

전북대학교 병원불자회(회장 김원)가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1월 13일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모악홀에서 열린 임진년 첫 법회에는 전북대학교 병원불자회와 전북대학교 불자, 환우, 가족 등 80여 명이 모여 환우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국악한마당의 진도북춤, 민요 공연과 바순 연주가 펼쳐졌다. 식전 행사 후에는 도영 스님의 법회가 이어졌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병원법당도 없이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법회를 봉행하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스님은 "모두가 병원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는 불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고 "병마의 고통 속에 투병중인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 달라"고 설했다.

2010년 1월 창립한 전북대학교 병원불자회는 80여명의 불자들이 호스피스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법당이 없어 법회 때마다 빈 장소를 찾아 장소를 옮겨 다니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대학 병원 10곳 중 강원대학교 병원은 장소 문제로 종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나 성당 등 타종교 시설은 있으나 병원 법당이 없는 병원은 전북대학교 병원이 유일하다.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은 "김영곤 병원장이 최근 면담에서 법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전북대 병원 개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자 축구선수들 화엄사를 찾다

경기력 향상 위한 템플스테이
참선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체험

한국 청소년 여자축구선수들이 구례 화엄사에 모였다.

화엄사(주지 종삼)에서는 1월 11~12일 1박 2일에 걸쳐 구례군에서 전지훈련중인 경남 함안대상고등학교 외 230명의 여자축구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청소년 여자축구 선수들이 화엄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졌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역에서 전지훈련중인 선수들의 인성순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또한 구례군과 각 학교 감독들이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참가 선수들은 참선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심신을 수련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활동적인 여자선수임을 감안해 해당 감독들이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 참선지도를 요청해왔다.

선수들을 지도한 우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외적인 운동역량 외에도 내적인 마음공부가 같이 진행돼야 진정한 운동선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여자축구선수는 매년 전남 구례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하는 여자국가대표 2군선수를 포함해 전국의 중·고등학생 선수로 구성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진 스님(맨 오른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금을 기탁했다.

수진 스님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 전달

부산 해인정사 조계종 등록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자비나눔 기금 2000만원을 1월 16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10일자로 종단에 조계종 사찰로 등록했다. 스님은 앞으로 장학 사업과 학술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현재 동명대 불교문화학과에서 '선수행실습'과 '원효사상' 등을 강의하고 있다.

수진 스님은 "사설사암 등록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에 등록했다. 〈화엄경 소초〉도 번역 작업 중인데 2014년쯤 마무리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한평생 불자로 조용히 살아왔는데…

강제개종교육피해자聯 기자회견

전주의 한 불자가 강제 개종 요구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1월 16일 전북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강요에 의한 가정파괴 실태를 공개했다. 강피연 회원인 H씨는 이날 자신의 사례를 공개하며 종교 강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H씨는 종교가 달랐던 부인이 2009년 K목사를 알게 되면서 개종을 강요했고, H씨가 개종을 하지 않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H씨는 또 이 과정에서 장모까지 찾아와 개종을 요구했고, K목사와 전처, 장모가 3살이던 딸에게 강제로 성경을 암기시키고 기도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한평생 불교를 신앙하며 조용하게 직장과 가정만 알고 살아왔다. 그러나 K목사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 다시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피연 관계자는 "K목사의 자격 박탈과 정당한 수사를 통해 죄목에 맞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신년하례 및 개원 점안 대법회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은 불기 2556(2012)년 1월15일 종정 법정 스님, 총무원장, 종도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종무원 자비선원에서 개원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자비선원장 관몽 스님은 "다양한 교양강좌 등을 개설해 많은 포교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동방불교대학 201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자격이 주어지며 졸업할 경우 선덕법계를 품수한다.
2. 본교 졸업과 함께 선덕법계를 득한 자가 다시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3.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지원할 수 있으며, 통신반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4.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_역경학과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5. 불교미술학과 연구과정은 당해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과	모집인원		편제	비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승가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역경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 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본과	00명	3년제	정규반
	연구과정	00명	1년제 / 2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학과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2012. 2. 20(월)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2. 2. 20(월)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입학전형 (필기_실기_면접)	2012. 2. 21(화) 10:00 ~ 16:00	• 본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2. 2. 21(화) 17: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Ⅳ.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3.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역경학과는 출가자의 경우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자 교육이수의무를 충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성승려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 재가자는 전문대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 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수학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Ⅴ.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1. 본교 교학처 직접 방문 및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2. 인터넷 원서교부 및 접수한 경우 원서를 출력해 사진부착 후 여타 제출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Ⅵ. 전형료

1. 불교학과_승가학과_역경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_불교미술학과 : 60,000원

※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포교사자격 및 법계 품수와 재학 중 각종 장학제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학사행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2월 2일(목요일)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 그대로가 불성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②

수심결에서의 영성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은 1월 5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고려시대 보조 국사의 저술인 〈수심결(修心訣)〉 강의를 열고 있다.

명상상담연구원 교양대학원 원장 인경 스님이 '불교에서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체험을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 중인 특강은 대승불교에 기초한 간화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성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새로운 시사점을 전한다. **편집자 주**

현대사회와 영성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은 매우 세속적이다. 경쟁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부분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가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역기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현대사회는 병적인 상태라는 진단을 자주 듣는다. 이속에서 거룩함이나 청정함과 같은 영적 가치는 상실하여 버렸다.

그렇다 보니 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의가 요청된다. 건강은 단순하게 몸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웰빙, 안녕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곤 한다. 몸/마음의 건강이란 전통적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건강의 본질을 인간의 본성에서 그 근원적인 원천을 찾곤 한다. 이런 경우에 마음이란 단순하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서 그 이상의 어떤 거룩함, 평화로움, 깨어있음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말한다. 영성의 강조는 현대 사회를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현대 선불교에서 영성을 강조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스즈키 다이세츠의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스즈키는 영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이란 용어와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신은 물질과 함께 짝을 이루는 이원적인 서구적 관점을 반영한다. 반면에 영성이란 분별이 없는 선(禪)적 직관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를 의미하지 않는 핵심된 체험이나 본질이다. 다이세츠는 영성을 종교적인 색체를 지우려 했다. 영성을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고, 특히 선불교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는 서구사회에 불교의 선(Zen)을 전한 인물이다. 선은 곧 동북아의 영적 전통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선불교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대승기신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마음을 크게 생멸심(生滅心)과 진여심(眞如心)을 구분한다. 생멸심은 미혹에 의해서 끊임없이 분별하여 고통을 발생시키는 일상의 세속적인 마음이라면, 진여심은 외적인 환경에서 초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본래의 참되고, 한결같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다. 전자가 인연을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이라면, 후자는 인연을 따라서 한결같은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의 마음이다. 곧 진여심은 영적 본래의 마음으로, 생멸심은 일상의 세속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모두 필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본래적인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심결에서의 영성

보조국사의 〈수심결〉에서는 영성 혹은 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보조국사는 일단 우리의 삶이란 불타는 집처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위해서는 부처를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처일까? 부처를 역사적인 인물로서 본다면, 우리는 먼 과거 BC5세기로 내려가야 한다. 앞으로 올 부처라면 먼 미래의 미륵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는 현재의 부처를 응당 말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 현재의 부처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구체적으로는 내적인 깨달음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함께 하기에 도 닦는 사람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초월적인 존재도 미래의 부처도 모두 관념이고 우상이다.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외적 모양일 뿐이다.

깨달음 바로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본래부터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마음이 그대로 곧 부처인 까닭에, 보조국사는 다만 잘못된 인연만 떠나면 즉시 그대로 한결같은 부처라고 말한다. 불성이 몸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아는 작용'이 그대로 성품, 곧 영성이라고 말한다. 질문자는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해주길 보조국사에게 요청한다. 이에 보조국사는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한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그런 까닭에 잘못된 생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서 고요하고, 외적 대상은 또한 본래 공하다. 이렇게 모든 현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 신령스런 앎[靈知]이 어둡지 않다. 이렇게 텅 비어 고요하고[空寂] 신령스런 앎의 마음이 그대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또한 이것이 과거·현재·미래[三世]의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히 전한 법인(法印)이다.

여기서 보면, 먼저 보조국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으로서 생멸심을 말한다. 이것은 세속적인 마음이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마음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과 일어나지 말아야할 것들이 발생함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본래면목의 영성은 텅 비어있어 고요하며, 그런 가운데 신령스러운 앎이다. 이것이 불성이고, 진리의 도장(法印)이다.

이것을 선정과 지혜로서 다시 설명하면, 텅 비어 고요함이 마음의 바탕으로서 선정이라면, 신령스러운 앎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지혜이다. 보조국사의 정혜결사는 새의 양 날개처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음을 강조하는데, 선정과 지혜는 자성, 곧 영성에 근거한다. 선정과 지혜는 인간의 근본적인 웰빙 상태이다. 선정이 없고 지혜만 있으면 산란함에 떨어지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선정은 어리석음에 떨어진다.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인간은 궁극적인 건강상태가 된다. 이것은 산란함과 어리석음의 결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본성이다.

정혜란 바로 공적영지(空寂靈知)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보조국사의 텍스트에서는 영성이란 '텅 비어 있음[空]', '고요함[寂]', '신령함[靈]'과 '깨어있는 지혜로서의 앎[知]'으로 정의한다. 서구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영성에 대한 정의에는 신성함, 거룩함, 연민, 경이로움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차분한 서술내용이다. 서구의 정의가 보다 놀람의 정서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놀람, 감동, 환희의 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볼 때,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일상성과 영성

그러면 일상의 심리현상과 영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양자는 서로 분명한 경계성을 가지면서 구분된다. 이점은 사회적으로는 일반사회와 출가 승가와의 관계처럼,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예속되거나 아니면 긴장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일상성과 영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언구가 바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이다. 보조의 〈수심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성과 영성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서로 다르지 않는 영속성을 유지한다. 이점은 사회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측면보다는 아마도 인격으로서 실천적인 관점을 말한다. 사회적 혹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양자가 구분되지만, 영적인 실천의 입장에서는 양자는 하나로 경험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성체험, 영적체험, 자성체험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점은 건강이나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보조국사는 바라제 존자와 이견와의 문답을 통해서 이점을 잘 표현하여 준다.

보조 "우리의 삶은 불타는 집, 고통 벗어나려면 부처 찾으라"
돈오는 세속심·영적작용 인지
점수는 영적경험 통한 인식 정화

옛날에 이견왕(異見王)이 바라제존자(婆羅提尊者)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성품을 보는 것(見性)이 부처입니다. 스승께서는 성품(性)을 보았습니까? 저는 부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 성품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性在作用).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바로 지금 작용하는 데에 나타나고 있는데 왕께서는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나에게도 그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까? 왕께서 작용할 것 같으면 성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작용하지 않으면 성품(性)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으로 나타납니까? 여덟 곳입니다. 그 여덟 곳으로 나타나는 데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내(胎)에 있으면 태아(身)가 되고, 태어나 세상으로 나오면 사람이 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이야기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다리에 있으면 달립니다. 두루 나타나면 모래알 같이 많은 세계를 다 포함하고 거두어 들이면 하나의 작은 티끌에도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부처의 성품임을 알고 모르는 자는 정혼(精魂)이라 부릅니다. 왕은 듣고서 마음이 곧 열리어 깨달았다.

이것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작용이 그대로 불성이고, 영성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일반 세속적인 관점과 영적인 체험은 분명하게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된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인 거룩함이나 청정함을 경험하는 경우는 오히려 특별함, 비범함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이런 영적인 경험을 나누지 못한다. 세속적 관점에서 대상을 눈으로 볼 때,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한다. 그곳에는 항상 판단의 왜곡과 갈망의 투사가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닦는 비결로서 〈수심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돈오이다. 돈오(頓悟)란 세속적인 마음이 그대로 영적 작용임을 깨닫는 놀라운 경험이라면, 점수(漸修)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대상을 왜곡하는 인식의 필터를 정화하는 현실의 작용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몸/마음/영성은 하나로 통합이 된다.



순천 송광사에 있는 보조국사 사리탑



명상상담연구원장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2년 2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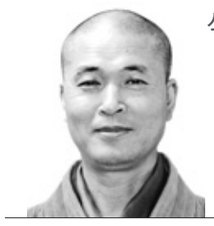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나는 행복하다' 고 매일 말하라

학승이 물었다.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난하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노스님께 무엇을 동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가난을 계속 지키고 있으라."

問 貧子來將什麽過與 師云不貧 云爭奈覓和尚何 師云只是守貧

마음은 오묘하여 가난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무엇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철저히 가난한 상태이다. 너무 가난해 풀 한 포기 심을 곳도 없다. 그러나 마음이 부귀한 것으로 말하자면, 해와 달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한 쪽에 남은 곳이 있을 정도이니 그 크기를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마음은 원래 그러하니, 공연히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중생은 원래 부처이고, 마음은 원래 비어있다. 다만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 가난을 잘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본래 행복하다. 나는 고요하다. 나는 편안하다" 하고, 매일 아침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곧 부처의 삶이 된다. 깨닫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그대가 원래 부처였었다는 사실만은 절대 잊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변신보살이 어찌하여 여래의 정상을 볼 수 없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얇은 비단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과 같다."

問 無邊身菩薩 爲什麽不見如來頂相 師云 如隔羅縠

여래의 정상은 여래의 '최고의 경지'를 비유한 말이다. 부처님의 도는 누구도 간파할 수 없다. 부처의 경지 바로 아랫 단계인 보살도 부처님의 도의 깊이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 보살이라 해도 얇은 장막 정도의 차이는 아직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1세기경 대승불교의 주역으로서 크게 활동한 수행자들이지만, 경전 속 보살들은 부처님의 만년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보살로 보는 것이 좋다. 보살은 보디삿트바(bodisatva)이고 보디는 지혜, 삿트바는 수행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디삿트바는 '지혜로운 대수행자'이다. 이 보디삿트바를 줄여서 '보삿'이나 '보살'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들 보살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양반가의 모자를 썼던 대장자, 대부호들로서 세속 수행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세속인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도를 깨달아 중생들을 위하여 봉사와 법을 동시에 전파했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이들은 부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법당에 삼존불 중에 좌우 보살로 모시기도 했다. 이것은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가 세속인이라해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천상계의 감로는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져다 주어 고마우이."

問 諸天甘露什麽人得喫 師云 謝你將來

천상의 감로는 '단 이슬'이다. 이 감로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쾌락하게 된다. 병은 낫고 즐거움은 배가된다. 마시고 난후 오랫동안 입안에서 향기가 돈다. 이 천상의 감로를 누가 감히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조주 선사와 같은 스승들이나 마실 수 있다. 스승은 중생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강의한다. 그런 스승은 천상의 감로를 받아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걸사(乞士)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출가한 것이 마치 무슨 권력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린다거나, 삼보의 정재가 마치 자기의 재(財)인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배에 기름이 끼는 좋은 음식만 먹고 있으면서, 천상의 감로까지 먹으려한다면 적반하장이다. 그런 사람에게 감로는 영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감로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안은 타들어가고 내장까지 뒤틀리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므로 절대 마실 수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만가태평춘

온 세상이 태평한 봄이로다



萬家太平春(만가태평춘)
온 세상이 태평한 봄이로다

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春: 봄 춘
旦: 아침 단
齋: 재계할 재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③



그대 츈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 〈대반열반경〉

얼마 전 TV에서 들은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1년에 150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꽃피워 보기도 전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하다가 자살을 해버리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떠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미안하게도 나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은 그저 바람결에 들리는 풍문 정도로만 이 문제를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의 A군이 죽으면서 쓴 유서는, 그 유서 속에 담긴 어린 소년의 여린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집단 따돌림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인지 모른다. 인간들의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인 것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연민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점이다.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하는 배려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 더욱 슬픈 일이 아닌가. 더욱이 학교에서 늘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솔직한' 용기가 그리워진다. 또래 집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 말이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스승의 배려를 이 구절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얼마 안 있어서 열반에 드실 부처님께도 염려스런 점이 없지 않았다. 바로 부처님 열반 이후 혹시라도 츈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지 몰라서이다. 다른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츈다를 비난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대 츈다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입멸하셨다는 것은 너에게는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츈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바로 그 점을 부처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다.

그리하여 가까이 시봉하고 있는 아난다를 불러서 부탁을 하신다. "아난다여! 그로 말미암아 대장장이 아들 츈다가 나에게 최후로 공양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난다여! 너는 이렇게 말하여 대장장이 아들 츈다를 위로하여라." 아난이 전하는 부처님의 위로, 그 첫마디는 바로 "그대 츈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이다." 였다.

스스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성의를 다하였건만, 내용물에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마음이 불편한 츈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

츈다에 대한 부처님의 배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슬픔에 대한 공감력(共感力)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츈다의 슬픔에 대하여 미리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다. 이를 우리는 흔히 자비라고 말하거니와, 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고



부처님, 최후까지 츈다 배려
미리 일어날 상대 슬픔도 생각
자비 · 비감력을 길러주어야
왕따 문제도 해결

싶다. 비감력(悲感力)! 슬픔을 느끼는 힘, 아픔을 느끼는 힘 말이다. 이 힘을 우리는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대구의 A군 사건 이래로 연일 언론에서는 이른바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규범을 확립하고,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감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친구는 이렇게 아파할 것이다.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울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 할 것이다.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느끼는 힘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미리, 슬퍼할 줄 아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부처님 같은 스승이 그립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정 벽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빚어낸 사찰 굴뚝

굴뚝(상)

굴뚝은 구들이라는 독특한 바닥난방시설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설치한 장치이다. 구들은 불을 때는 아궁이, 연기가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우도록 도랑처럼 축조한 구들고래, 굴뚝이 있는 벽과 평행으로 깊게 파낸 개자리, 고막이 밑을 통과해 굴뚝까지 수평으로 연기가 빠지도록 만든 연도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으로 구성된다.

구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시설됐는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삼국시대 고구려 지방에서는 이미 난방을 위한 시설로 구들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된 난방장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들이 한국의 집집마다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였다고 한다.

구들을 사용하게 된 초기단계에서부터 굴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의 굴뚝은 단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연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구멍을 내는 정도였다. 구들이 점차 보편화되고 구들 안의 연기를 제대로 뽑아 내기위해서는 굴뚝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굴뚝을 만들게 됐던 것으로 생각된다.

굴뚝은 벽에 붙여 설치하는 벽붙이굴뚝과 독립굴뚝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집에는 단순히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벽붙이굴뚝을 주로 설치했다.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곳에서는 굴뚝이 가진 기능성은 물론 장식적 효과를 고려해 독립굴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굴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연도를 짧게 해 건물의 기단에 놓거나 기단에 붙여 설치하기도 하고, 연도를 멀리 연장해 마당이나 건물 뒤편의 화계에 두기도 한다. 굴뚝의 높이를 기준으로 보면, 키가 낮은 난장이굴뚝이 있는가 하면 높이가 높은 키다리굴뚝도 있다. 한편, 공기역학상으로 볼 때, 굴뚝은 원형이 가장 좋으나,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굴뚝을 만들기도 한다.

사찰 굴뚝 화려하지는 않아도
사찰경관 형성하는 주요 요소
사격따라 위치 · 형태 결정되나
지나침 없이 단정 · 소박함 특징

감춰진 것 많아 눈여겨 봐야
은밀한 아름다움은 즐거움 줘
재료는 와편 · 진흙 함께 사용
봉정사 영산암 굴뚝 등 빼어나


봉정사 영산암 굴뚝. 자신을 낮추고 있는 투박한 아름다움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 굴뚝 가운데에서 가장 장식적인 것을 꼽으라면 경복궁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굴뚝(보물 제811호)과 자경전 십장생굴뚝(보물 제810호) 을 들 수 있다. 아미산에 설치된 굴뚝은 육각형으로 지금 4개가 남아있다. 높이는 2.60m이며 당초문 소나무 대나무 매화 모란 국화 용 호랑이 박쥐 해태 구름 등 의미 있는 다양한 문양을 색깔 있는 조형전을 써서 벽면에 박아 넣었다.

자경전 십장생굴뚝은 담장 한 면을 한 단 앞으로 돌출시켜 만든 것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굴뚝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굴뚝은 굴뚝면 중앙에 십장생 무늬를 조형전을 사용해 박아 넣고, 그 사이에는 회를 발라 화면을 구성했다. 화면은 너비가 3.81m, 높이가 2.36m, 두께는 65㎝로 1888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무늬의 주제는 해 산 물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 등 십장생과 포도 대나무 국화 새 연꽃 등이며, 둘레에는 학 나티 불가사리 박쥐 당초무늬를 새겨 넣었다. 굴뚝 상단에는 용을 중심으로 좌 · 우로 학이 배치돼 있다.


굴뚝면 중앙에 십장생 무늬를 사용한 자경전 굴뚝


우리나라 굴뚝 중 가장 장식적인 경복궁 아미산 굴뚝

사찰의 굴뚝은 주로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승방과 수행공간인 선방의 구들과 연결되며, 대체로 독립굴뚝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그 사찰의 격이나 규모에 맞도록 위치와 높이 그리고 형태가 결정되는데, 언제나 지나친 법이 없이 소박하고 단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식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어떤 경우에는 굴뚝이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찰의 굴뚝은 드러나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찰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찰에 머무는 스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각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 굴뚝을 장식적 측면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사찰경관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찰의 굴뚝은 역시 은밀하게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이 제 격이다.

사찰의 굴뚝은 독립굴뚝이 많기는 하나, 그 크기는 사찰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것은 난쟁이굴뚝으로 높이가 낮고, 어떤 것은 키다리굴뚝으로 높이가 높다. 높이가 낮은 난쟁이굴뚝은 보통 1m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며, 독립굴뚝이기 때문에 비아무림을 위해 굴뚝 상부에 연가(煙家)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연가는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본격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고 지붕형태로 만들거나 평기와를 몇 단 올려놓은 정도에 불과하다.

굴뚝의 재료는 와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켜켜이 와편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는 것으로 와편과 진흙의 놓기 비율이나 와편의 쌓기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순천 선암사 굴뚝


완주 화암사 굴뚝

난쟁이굴뚝으로 대표적인 것은 안동 봉정사 영산암 안마당의 굴뚝, 순천 선암사 달마전 옆마당의 굴뚝, 완주 화암사 요사채 뒤편 한 단 높은 곳에 설치한 굴뚝, 익산 숭림사 요사채 뒤편 한단 높은 곳에 있는 굴뚝, 봉정사 극락전 옆마당에 설치한 굴뚝을 꼽을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길을 잃었다면 발길을 동학사로…

공주 동학사(東鶴寺)



1879년(고종 16) 어느 날. 스님은 문득 스승이 생각났다. 출가한 지 25년만이었다. 스승이 보고 싶어진 스님은 이튿날 바로 길을 나선다. 하지만 길을 나선지 며칠 되지 않아 스님은 발길을 돌려 돌아온다. 절은 동학사. 스님의 이름은 경허(鏡虛;1849~1912)다.

계룡산. 눈이 왔다. 하얀 숲이 햇살 아래 고요하다. 까치 한 마리가 산을 내려온다. 까치 울음소리가 산을 덮는다.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산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고요'가 아닐까. 모든 언어가 산 앞에서는 '고요'가 된다. 그리고 그 고요의 점정(點睛)은 '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계룡산 기슭에도 고요하게 절이 하나 있다. 동학사.

동학사는 724년(신라 성덕왕 23)에 상원 스님이 조그만 암자 하나를 지으면서 시작됐다. 스님이 입적한 후 제자인 회의 스님이 도량을 다시 짓고 청량사라 했다. 고려에 들어와 도선국사가 중창했고, 이후에 사찰이 커지면서 동학사로 고쳐졌다. 한국전쟁 때 거의 소실된 도량을 1975년 보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을 찾아가던 경허 스님은 괴질이 돌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 허망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본 스님은 많은 생각 끝에 발길을 돌려 동학사로 돌아온다. 스님은 동학사 강원에서 여러 해 동안 강사를 지내고 있었다. 길 위에서 길을 잃은 스님은 동학사로 돌아와 그 날로 목숨을 건 참선고행을 시작한다. 스님은 3개월 만에 문을 열고 나온다. "세속과 청산 그 어디가 옳은가 / 봄볕 있는 곳에 꽃 피지 않은 곳 없구나." 끊어졌던 우리 불교의 선맥은 그렇게 다시 시작됐다.

강원(승가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공부를 마친 스님들이 산문을 나선다. 그 옛날 경허 스님이 스승을 찾아 나섰던 그 길. 그리고 길을 잃고 돌아왔던 길. 그들도 스승을 찾아 그 길에 섰다. 어쩌면 길을 잃고 돌아와 그 옛날 서안 앞에 다시 앉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길을 찾는 것도 길을 잃는 것도 결국 길 위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설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충분하지 않을까.

북적이던 도량이 고요해졌다. 어디선가 길을 잃었다면 동학사로 발길을 돌려볼 일이다. 한국 선불교의 나침반 같은 이름 '경허'와 그가 걸었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더 큰 길을 걸어갔던 선지식의 발자국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밝혀준 해가 산 너머로 식어간다. 산도, 절도, 다시 고요하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초발심자경문 불교학개론, 근본불교 불교문화사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입학원서 1부(5,000원) 반명함판사진 3매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무 료
	2학년		한국천태종사 밀교사상, 천태수행론 금강경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법화경, 포교방법론 천태사교의, 유마경 중관사상, 천태정토 불교의식, 유식사상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 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 접수 : 2011년 11월 21일 ~ 2012년 2월 19일 18시까지 • 면접 : 2012년 2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우면AP,관문사에서 하차)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단법인설립허가 제 2010-17호

佛紀 二五五六年 壬辰年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한국불교연화조계종



종 정 운허당 연화대종사 서사실장 혜인

승정원장 정각
종회의장 영각
포교원장 도심
중앙선원장 운암
비구니회장 동성
총무원장 보월
사정원장 마하
교육원장 혜월
문화원장 도산

사회부장 지성
재무부장 일영
총무부장 도경
문화부장 혜광
교무국장 일승
총무과장 광일
교육부장 정인
교육국장 혜정

금 강 회 비 구 니 회

본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비 없음>

■ 총본산 대인사 연락처 055)375-2076-7
■ 총무원 구운사 연락처 054)231-3101 FAX 054-242-9301

민족정신 고취에서 민중 속으로 파고 들다


①


②



③


④

①1972년 일본 교토에서 진행된 한일학생불교학대회(대불련 총동문회 제공)

②1971년 12월 29일 수련대회에 참가한 대불련 회원들과 성철 스님(현익채 씨 제공)

③1975년 2월 26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기념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현익채 씨 제공)

④부산지부 제6차 동계수련대회. 6차수련대회에서는 성철 · 고암 · 지월 · 지관 · 일타 · 홍교 스님의 법문이 있었다.(현익채 씨 제공)

② 1970년대 – 전국 조직으로 확대 시기

대불련은 창립과 동시에 전국 조직을 지향했다.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확대 된 것은 70년대 초였다.

전국 조직 강화는 헌장 개정으로 이어졌다. 1970년 3월 5일 대의원기구 축소 및 지부장 회의를 대표자 총회로 통합했으며 총재 제도를 재 신설했다.

그해 3월 27일 열린 대불련 7차 전국대표자 총회에서는 회장단 및 의장단을 선출했고 총재를 추대했다. 그동안 대학생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물심양면 대불련 활동을 지원한 덕산 이산상 거사가 초대 총재로 추대됐다. 1973년 2월 8일 개최된 '제10차 대표자 총회 및 지부장 회의'에서는 지역별 33인 대표자를 뽑던 것에서 대학별 83명의 대표자를 뽑도록 했다. 지역 조직을 확대한 대불련은 1970년대 말 130개 대학에 지회를 뒀다.

내부 역량을 한군데 모으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대회도 잇따라 열렸다. 첫 시작이 1972년 열린 '화랑대회'다.

제1회 화랑대회는 1972년 8월 17~22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됐다. 제1회 화랑대회에는 전국 17개 지부 83개 지회 간부 120여 명이 참석했다. 화랑대회는 그동안 대불련 각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수련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로 발돋움시켰다.

화랑대회는 대불련 통합과 진로를 모색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화랑대회는 매년 진행됐고 초기 120~150명 규모에서 1970년대 중반 300명 규모로 확대됐다.

당시 대불련은 화랑대회 취지에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성취한 신라 화랑 정신을 고취해 한국청년의 새 기운 진작운동으로 화랑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대회도 개최됐다. 1973년 1월에 열린 겨울 수련회는 '지구별 연합수련대회'로 개최됐다. 대회는 대불련 본부의 주도 하에 영남권과 호남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당시 대학별로 진행되던 수련대회가 각 권역별로 진행됨으로서 역량 결집의 계기가 됐다. 대불련은 이후 여름에는 화랑대회, 겨울에는 수련대회, 가을 창립기념 청년제 등을 개최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한일 학생교류도 불교를 주제로 활발히 진행됐다. 1970년대 초 대불련은 일본 학생들과 정기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1973년 6월에는 서경수 교수를 단장으로 대불련 회원 6명이 일본에서 제4회 한일학생불교회의를 개최한다. 1975년 3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사에서 한일불교세미나를 열었고 1976년 10월에는 일본 동경대, 경응대, 와세다대 초청세미나도 개최했다.

1970년대에는 대불련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만해 한용운 스님 관련 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1973년 2월 22일 대불련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추진위가 발족하며 당시 국립공원이었던 망우리 묘지로의 이장과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 그해 3 · 1절에는 삼보

화랑대회 계기로 조직확대 박차
만해 한용운 스님 선양 사업전개
민중불교 운동의 씨앗 뿌려

회관에서 만해 한용운선사사상 대강연회도 개최했는데 탄허 스님(불타의정신) 등이 연사로 나섰다.

민중불교 운동으로 이어져

대불련의 가장 큰 행사인 화랑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당시 화랑대회는 신라의 화랑정신 고취 및 민족사관, 종교관, 생사관의 확립과 국가 사회 전체에 참신한 윤리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개최됐다. 민중의 개념보다는 민족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1976년 열린 제 4차 화랑대회는 민중불교의 신호탄을 알린 대회였다.

그동안 대회를 통해 역량을 확인한 재가청년불자들은 1970년대 중반 새로운 불교운동을 고민한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수행과 수련, 불교공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1970년대 중반까지 개인적인 활동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동국대와 서울대 대학생 불자들 사이에 '민중불교운동' 이념이 싹을 트며 대회의 양상은 다르게 변한다.

1976년 8월 12~17일 열린 화랑대회에서 이항령 '민중불교운동', 전재성 '민중불교운동서론', 이선주 '불교의 사회성과 민중불교운동론', 전보삼 '만해에 있어서 민중불교', 배춘상 '한국사회에 있어서 민중불교', 최주홍 '대불련으로서의 민중불교' 등이 발표됐다. 이는 대불련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했다는 반증이었다.

이후 민중불교운동 1세대인 여익구를 중심으로 1975년 고준환 황석영 등이 민중불교회를 결성한다. 대불련 회장이 전재성이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민중불교를 알린다. 하지만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이들이 구속되며 민중불교운동 이념은 조직운동이 아닌 이념으로 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민중불교 이념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활짝 꽃피게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억원 기금모아 젊은 불자 육성"

윤제철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300만 학생중 불자 2000명
장학사업 · 군포교 지원
100억 기금마련은 불교미래
2월 18일 발원대법회 개최

"젊은 세대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도록 지원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소규모 활동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젊은 불자 육성을 위한 전불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불련이 진행하는 젊은불자 육성은 어떻게 진행될까. 윤제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1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불자 육성기금 마련 및 회관 건립,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청사진을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군부대 법당 건립 및 군포교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현재 타종교에 비해 열세인 청년불교 현실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전국 350 여 대학 중 불교학생회가 조직된 대학은 144개에 불과하며 300만 대학생 중 불교활동을 하는 학생은 약 20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국 군부대의 경우도 심각해 개신교 · 천주교 교회는 1200개에 달하는 반면 군법당은 410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족한 군승으로 군승법사 135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불련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대학생불자들에게 약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3개 군부대에 2억 6000만원 규모의 법당 불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활동만으로는 젊은 불자들에 대한 포교가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기금마련에 나서게 됐다.

윤 회장은 "대불련 총동회는 향후 포교사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젊은 불자들을 위한 회관 마련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젊은불자육성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2월18일 '젊은불자 육성발원 대법회'에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과 후원으로 불교중흥의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젊은불자육성대회는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행사에서는 '왜 젊은불자에게 기대하는가?'를 주제로 대불련 학생들의 국악연주와 율동과 함께 동문회 주요활동 및 젊은불자 육성 성과보고가 이어지며 공로자 및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시간 또한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만해시 낭송을 시작으로 젊은불자 육성 사업계획이 보고되고 젊은불자 육성을 위한 현장 기부약정식이 개최된다.

3부에서는 대불련 동문들의 성악과 연주 등과 대불련 동문들의 젊은 불자 육성불사를 위한 서원과 다짐의 시간이 진행된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마음챙김 통해 환경운동 하는 그린상가

월간 '불교문화' 명상 기반 美 대안적 환경운동 그룹 소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연기를 바탕으로 동체대비를 체득해 자리이타를 실천함에 있다. 또 이를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나와 남이 공생할 수 있다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1월호에는 미국의 환경단체 그린상가를 소개했다.

책이 '북부 캘리포니아의 대안적 환경운동 그룹'이라 소개한 그린상가(Green Shanga)는 정신심리치료사인 조너선 거스틴에 의해서 2000년 설립됐다. 활동 10여 년의 이 단체는 美 버클리,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이스트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북부, 북부 해안지역인 마린 카운티, 내륙에 위치한 소노마 카운티와 반도 지역까지 5개의 지부에서 100여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명상 지도자 잭 콘필드, 캘리포니아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에드바 산티도 그린상가의 회원이다.

그린상가는 작은 규모지만 회원 각자가 교육 강좌와 캠페인을 이끄는 실력을 갖추고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을 쓴 안희경 저널리스트는 "그린상가의 회원들은 모든 회합, 교육, 캠페인에 앞서 명상을 한다. 적어도 30분 이상 명상하며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며 "이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은 반은 환경을 주제로 반은 명상수행으로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장을 하다보면 '특정한 대상에 반대하는 우리'가 되기 쉽지만, 그린상가 회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곧 우리가 곧 전체이며, 대상이 곧 우리라는 것.

그린상가에서 10년간 활동해 온 간사 엘리자베스 리틀은 "우리의 운동은 환경적인 상가(Shanga)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불교적인 종교색이나 환경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린상가를 처음 찾은 이들은 각자의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한다. 그린상가에서 진행되는 회의 · 교육 · 워크숍 등은 자신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며, 보다 깊은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기회이다.

엘리자베스 리틀은 "명상을 하면 서로에게 채워진 경계의 빗장이 자연히 풀린다. 더불어 세상을 향해 뿜어내던 내 안의 화도 녹아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상가는 ▷플라스틱 공해 캠페인 ▷잔디 걷어내기 운동 ▷10대 환경 지도자 아카데미 등 3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美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린상가 회원들은 명상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삶부터 바꾸고 있다. 〈사진제공=불교문화〉

플라스틱 공해 캠페인을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우유회사인 클로버(Clover)의 포장용기에서 플라스틱 마개를 없앴다. 대형상점의 봉지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서는 연간 8톤에 가까운 비닐봉지 사용도 줄였다. 잔디 걷어내기 운동은 걷어낸 잔디를 대신해 밭을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캠페인으로 진행 중이다. 10대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그린상가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린상가는 환경 캠페인 등을 설명할 때는 '감사합니다'로 편지를 시작한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 · 요구를 정중히 요청한다. 대상과 하나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다.

안희경 저널리스트는 "그린상가는 환경운동 속에 마음챙김을 실현하는 단체"라며 "스스로 세상과 하나 돼 연결됨으로써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얻고 있다. 그린상가 활동은 대안적인 환경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대기설법 학문적 해석 돋보여

세계의 불교학자(3)

곰브리치 英 옥스퍼드대 불교학센터 교수



많은 경전 가운데 붓다의 말씀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팔리 경전이다. 팔리 경전은 현존 문헌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빨리 경전은 최근 새로운 자료들이 첨가되고 몇몇 경전들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 또, 붓다 당시 및 그 이후의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된 형태를 보여 경전의 정통성이 도전 받고 있었다.

팔리 경전의 학문적 위기를 구한 이가 英 옥스퍼드대 곰브리치 불교학센터 교수이다.

곰브리치 교수는 팔리 문헌의 판본별 비교연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붓다의 대기설법과 이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 메타포에 주목했다. 그는 대기설법과 비유적 언어들에 투영된 붓다의 의도를 살려내는 작업이 초기불교 이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

대기설법은 붓다의 독특한 대화법이다. 붓다는 다양한 종교 ·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교화시킴에 있어 대기설법을 활용했다. 붓다는 스스로를 질문자 입장에 가깝게 접근 시킨 후 상대의 견해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토의를 했다. 붓다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 주고 받은 각각의 용어들에 새로운 불교적 관점 등을 더해 붓다 자신의 결론으로 상대를 유도했다.

곰브리치 교수는 "붓다의 대기설법은 당시 다양한 교리들과 우파니샤드로 대표되는 브라만 사상을 불교로 수용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글자 자체의 정의에 바탕을 둔 아비달마 논사들의 직설 화법으로 붓다의 방법론과 비유적 언어들 속에 투영된 숨은 의도가 잊혀지고 결국 초기경전의 교리들이 점차 다르게 해석되고 조직화됐다고 보았다. 곰브리치 교수는 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발전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시했다.

곰브리치 교수의 학설은 영국의 불교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곰브리치 교수는 런던 킹스컬리지 수 해밀턴(S Hamilton) 등과 함께 아비달마적 변형을 일종의 오염으로 보는 전통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로 자리를 굳혔다. 이같은 그의 견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가설이었다. 아비달마적 변형과 다양한 해석을 일종의 교리적 발전으로 보려는 랑스 카진(L Cousins) 등 팔리 아비담마 학자들과 많은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곰브리치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계율과 실천: 스리랑카 고원지대의 전통적인 불교'이다. 스리랑카 시골 마을에서 6개월간 거주하며 그곳 출 · 재가자간 관계를 사실적으로 분석해 작성된 논문은 불교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곰브리치 교수의 논문은 1970년대 초반 문헌 중심의 불교 연구 풍토를 살아 있는 불교의 모습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일대 혁신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이후 곰브리치 교수는 1976년 옥스퍼드대 동양학부에 소속된 '보든 범어 교수'(Boden Professor of Sanskrit)로 임용되면서부터 점차 문헌 중심의 불교 연구에 힘썼다.

팔리 문헌 연구 한계 다다르자
대기설법 통해 학문적 해법 제시
팔리본 등 초기경전 연구 석학
옥스퍼드 내 불교학센터 설립

곰브리치 교수는 〈범어: 고전 언어 입문〉을 저술해 범어학자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마이클 쿨슨(Michael Coulson)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사라져 버릴 뻔했던 미완성 범어 문법책 원고를 물려받아 세심하게 교정해 펴낸 책은 현재 범어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반듯이 거쳐야하는 기본 교재로 유명하다. 또, 저서 〈불교의 세계〉도 불교입문서로 영미권에서 각광받고 있다.

곰브리치 교수가 1994년에 팔리경전협회장에 취임하면서 한국 불교계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대 교수 퇴임 후 그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를 설립하고 옥스퍼드의 불교학 연구 전통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동국대 안양규 · 황순일 교수 등이 그의 지도를 받았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美 스프링필드에 첫 불교사원 생긴다

지역 베트남인사회 숙원 … 오는 5월까지 완공

미국 미주리 주 소도시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첫 불교사원이 세워진다. 스프링필드 온라인 매체 오자크퍼스트(http://ozarksfirst.com)는 "1월 15일 스프링필드 하이 스트리트(West High Street) 인근에서 베트남 불교계의 '사원 건축 기공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틱 통 찬(Thich Thong Chanh) 스님의 축원으로 시작해, 150여 명의 대중들이 쌀과 소금을 사원건축 부지에 뿌리는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공식의 열기는 스프링필드의 매서운 추위를 잊을 만큼 뜨거웠다.

사원이 들어서는 곳은 스프링필드 남서부에 위치한 '2901 W. High St.'의 9308㎡(2816평) 규모의 대지로, 베트남인사회의 기부로 매입됐다. 완공은 베트남인사회의 축제인 Buddha Day(붓다일, 음력 4월 8일)에 맞춰 오는 5월 말까지이며, 베트남 불교사원 특유의 기와와 벽토로 마감될 예정이다. 시공은 설계 · 건축 전문회사인 RWA(Ross Williams Architects)가 맡았다. RWA는 미국 내 30여 개의 종교시설을 지은 바 있는 베테랑 시공업체이다.

"사원이 지역 불자들에게 평화와 행복의 요람이길 희망"한다는 틱 통 찬 스님은 "그들은 베트남의 전통을 잊지 않고 지켜내며,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며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스프링필드 베트남인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베트남인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힘도 키워내고 싶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트렁 팟 호크(Trung Phat Hoc) 사원에서 수행한 틱 통 찬 스님은 1년 전부터 스프링필드에서 활동했다. 당시 스프링필드에는 불교사원이 없었던 터라, 어렵게 법회장소를 섭외하며 비정규 법회를 봉행해 온 스님은 '사원 건립'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베트남인사회를 중심으로 건축자금을 모아, 부지와 부속가옥을 사들이는 등 건축불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기공식에 참석한 부 니구엔(Buu Nguye · 59)은 "그동안 예불을 하려면 캔자스시티(Kansas City)와 세인트루이스(St. Louis)를 가는 것은 물론 미주리 접경 도시인 털사(Tulsa, 오클라호마 북동부 소재)까지도 가야했다"고 전했다.


미국 미주리 주의 소도시 소프링필드에 첫 사원이 들어선다. 베트남 불교사원 기공식 현장. 사진 맨오른쪽이 틱 통 찬(Thich Thong Chanh) 스님.

사원건축을 위해 베트남인사회에서 가장 큰 기부를 했던 그는 32년 전 베트남전쟁이 종료된 직후 이곳에 정착해, 현재 닉사(Nixa, 미주리 크리스천카운티 소재)에서 상하이 뷔페를 운영하고 있다. 부 니구엔은 "베트남인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불심이 없었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스프링필드 인구통계에 따르면, 불교도의 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이어 네 번째에 머물 정도로 미미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순례자에 우호·사랑 자비 전달

네팔 정부가 1월 14일 카트만두 룸비니에서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2, 룸비니 방문의 해(Visit Lumbini Year 2012)'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람 바란 야다브(Ram Baran Yadav) 네팔 대통령은 "보다 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부처님 탄신지, 룸비니 동산을 방문해주길 희망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 곳곳에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카르마 상보(Karma Sangbo) 스님은 "우리는 룸비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순례자와 여행객들에게 우호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전하기 위해 '2012, 룸비니 방문의 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캠페인은 과거 수년간 공산주의자 반란으로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현 네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 지 순 례

미 얀 마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23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9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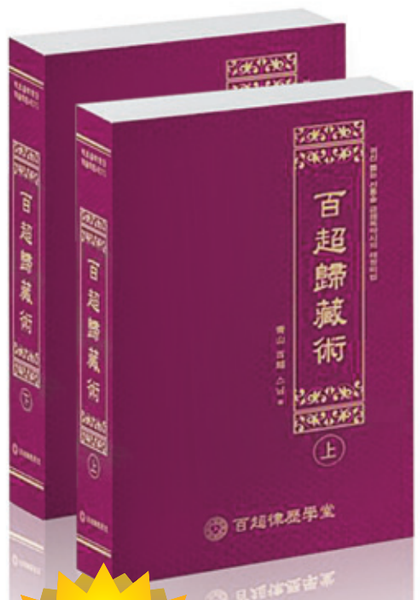
▣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양곤 | 바간 | 헤오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41)943-6882, 010-3813-4443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머슴살며 여인희롱 매맞아 피투성이 되어…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④ 지장암 토굴에서

경허 스님이 지장암 토굴에 있을 때의 일이다.

천장암(天藏庵)에서 조금 떨어진 산모퉁이 골짜기에 작은 초가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자가 바로 지장암이었다.

스님은 그 곳 토굴에서 한 겨울을 혼자 정진했다. 지장암은 수리를 하지 않아 벽 사이에 틈이 나고, 문창이 뒤틀린 고옥이었다.

그런 토굴에서 한 겨울을 지내게 된 스님은 불장에 보관된 〈화엄경〉을 뜯어서 문도 바르고 벽도 발라 추위와 바람을 막았다.

"경전을 뜯어 도배해도 됩니까"
"자네들도 이 경지 이르면 해 보게"

스님을 뵙기 위해 찾아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둘러보고 깜짝 놀라 여쭈었다.

"스님, 경전을 이렇게 도배하는데 사용해도 됩니까?"

스님은 태연히 "자네들도 이러한 경계에 이르면 이렇게 해 보게나"하고 평온히 대답했다.

찾아간 제자들은 스님의 깊은 경지에 자신들이 감히 미치지 못함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암자를 나왔다.

⑤ 어촌 만행

경허 스님이 충청남도 서산 개심사(開心寺)에 주석할 무렵의 일이다.

경허 스님이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출타해 여러 날을 들어오지 않자 이를 걱정한 대중이 사방으로 찾아 나섰다.

한 달가량 아무리 찾아도 스님의 종적은 묘연했다.

경허 스님이 간 곳은 서산 태안반도의 해변 어촌이었다. 생선 도매상을 하는 집에 우연히 들어가 주인에게 인사를 청하며 하는 말이 "이 곳을 지나는 중인데 배도 고프고 올 데 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라오, 이 댁에 무료로 일이나 거들어 줄 테니 나를 좀 여기 머무르도록 써 줄 수 없겠소?"하고 머물러 있기를 청했다.

도매상 주인이 경허 스님을 보니 체격이 장대하고 힘깨나 쓰게 생긴 것이 아닌가. 주인은 품삯 안 주고 일 꾼 하나 잘 생겼다고 생각해 즉석에서 흔쾌히 승낙했다.

경허 스님은 그 날부터 일꾼들이 자는 머슴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부터 물을 길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두다 군말 없이 할뿐더러 일도 척척 잘해 주인은 날로 경허 스님을 좋아하게 됐다.

어느 날이었다. 스님은 드디어 가풍을 드러냈다. 주인집 부인이 부엌에 나와 밥을 짓고 있는데 아궁이에 불을 때던 스님은 난데없이 그 부인의 궁둥이를 넙죽한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참 잘도 생겼다"하고 나갔다.

주인집 부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울면서 남편에게 무도한 머슴을 따끔히 혼내 줄 것을 호소했다.

부인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한 도매상 주인은 "이 중놈이 오갈 데 없어 불쌍하기에 동정했더니 아주 나쁜 놈이군"하고 독한 생각을 품었다. 도매상 주인은 동네 무뢰배들에게 술을 사며 청했다. "저 중놈이 못된 짓을 했으니, 아주 죽도록 패서 일어나 걸어가지도 못하도록 하게. 힘이 장사니 아주 처음부터 반신불수가 되도록 해야 하네"하고 신신당부까지 했다.

십여 명의 장정들이 술기운에 다짜고짜 스님을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때렸다. 경허 스님은 조금도 피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스님은 있는 그대로 온 몸뚱이를 내 맡겨 버렸다. 동네 무뢰배들은 스님이 숨이 떨어지면 갖다 묻기로 하고 동네 생선 창고에 가두었다.

그리고 15일 정도가 지났다. 다른 상인이 생선을 사려고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신의 물건을 들쳐가며 고르고 있는데 어디서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상인은 숨소리를 따라 고기



그림 · 박구원

"살려 줄테니 속히 떠나시오"
경허 스님 말없이 개심사로
"어디에서 이런 고초를 겪으셨어요"
"갯가에 구경 나갔다가 해풍에…"

상자를 들쳐보았다. 거적을 들추자 전신에 피가 시커멓게 엉겨 붙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 상인은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분명 아직 죽지는 않은 사람이었다. 부랴부랴 끄집어 내놓고 거적을 풀어보니 동네 도매상에서 예전에 일하던 일꾼이 아닌가. 상인은 더욱 놀라며 연유를 물었지만 스님은 일체 말이 없었다.

상인은 도매상 주인에게 물었다.

도매상 주인은 "그 중놈이 워낙 나쁜 짓을 했기에 저렇게 된 모양이오"라고 답했다.

그 상인은 도매상 주인을 보고 크게 나무라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 처리해야지, 어찌 사람을 이처럼 잔인하게 하였단 말인가. 내가 관가(官家)에 고발해 이런 무도한 행패를 막겠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그리 아시오"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제야 주인은 상인을 붙잡고 "제발 고발만은 말아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 치료해 자기 본처로 보내겠소"하고 통사정 했다.

도매상 주인의 다짐을 받은 상인은 자기 물건을 싣고 길을 떠났다.

그 뒤 도매상 주인은 경허 스님에게 "살려주는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속히 당신 갈 곳으로 가시오"하며 떠나기를 재촉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에서 나와 개심사를 향해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서 경허 스님은 큰 스님을 찾아 나온 만공 스님과 혜월 스님을 만났다.

경허 스님의 모습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이 전부 깨진 상처투성이가 돼 차마 몰라볼 만큼 초라했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스님 어디에 가셔서 이런 고초를 겪으셨습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갯가에 구경나갔다가 해풍이 심해 자연 이렇게 됐다"며 크게 웃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스님을 구했던상인이 우연히 개심사를 방문했다. 그 상인은 당시 머슴이 경허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다른 스님들에게 알렸다. 그제야 대중들은 깜짝 놀랐다.

경허 스님 일화 편집자는 말미에 '스스로 마군과 부처를 동시에 작했고, 생사 없는 곳에서 생사 있는 곳까지 등한히 체험하셨다' 는 평구를 덧붙였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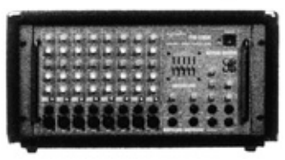
각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나의서원 나의 신행 〈1〉

‘나는 불자’ 인식 확고해야 어떤 서원이든 성취

역경불사의 代父 월운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 1928년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 한학을 수학 하고 남해 화방사에서 운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 통도사 해인사 등 강원 졸업 강사 역임. 중앙승가대 교수, 봉선사 주지 등 역임.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과 원장을 맡아 고려대장경 완역 불사를 견인했다. 봉선사 능엄학림, 불경서당 등을 통해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현재 봉선사 조실. 〈금강경강화〉〈원각경강화〉 등 저서와 〈전등록〉〈조당집〉〈선문염송〉 등 번역서를 합해 80여 종을 냈다.

“오지 마. 도망 갈 거야.”

봉선사 가는 날은 가슴이 설렌다. 봉선사 가는 길은 차가 막혀도 즐겁다. 언제나 따듯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에 가는 기분이다. 봉선사 조실 월운(月雲, 85) 스님을 뵈러 가는 설렘과 즐거움. 스님을 인터뷰 하는 동안은 고봉준령을 오르내리는 심정이다. 설명 없이는 못 알아들을 어려운 용어도 적지 않지만 욕설도 마다 않는 꾸미지 않는 말씀의 맥락에 언어도단의 기상이 활달자재하기 때문이다.

“새해도 되었고 하여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전화로 하면 되지 뭣 하러 와? 오지 마. 나 도망 갈 거야.”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그대로다. 항상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도 찾아뵙겠다고 하면, 끝내 마다 않으신다.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봉선사 다경실의 정갈한 풍경이 그려진다.

총원을 향해 가는 별원

누군가 하나의 서원(誓願)을 세웠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서원은 이타적 가치를 가질 때 참다운 서원이다. 서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만중생의 것이다.

수행자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 마련한 금강좌에 앉기 전에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고 정각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서원했다. 그리고 깊은 선정에 들어 수행을 하는 동안 단 한 찰나도 그 서원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얻었을 때, 그 서원은 이제 일체중생의 번뇌를 다 제거해 주는 자비행으로 승화되었다. 그로부터 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서원이 없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 없다. 불보살이 불보살일 수 있는 것도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서원이 아침햇살처럼 중생계를 두루 덮어주기 때문이다. 법회를 마치면서 다짐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은 불자들의 궁극적 목표인 총원(總願)이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경우처럼 각자 세운 서원은 별원(別願)이다. 이는 각자의 인연에 의해 세운 원이지만 결국 총원의 성취를 향하고 있다.

우리시대의 사부대중 역시 크고 작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과 신행을 이어간다. 총원을 향해 있는 별원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서원을 이뤄가는 과정은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도 넘어야 하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기도 한다. 서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요 자비사회를 이루어가는 길이다.

월운 스님의 일생은 ‘법문무량서원학 자성법문서원학’의 총원을 향해 가는 서원 ‘역경불사(譯經佛事)’ 하나로 일관되고 있다. 교종본찰 봉선사 조실의 면모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다. 동국역경원장을 맡아 고려대장경 완간이라는 대작불사를 마무리 했고, 그에 따른 다사다난한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수많은 저서를 냈다. 월운 스님의 서원과 성취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별원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알 것은 완벽하게 다질 것은 철저하게

다경실은 고요했다. 능안 마을을 휘돌던 겨울바람도 다경실 앞에 오면 미증유의 온기를 얻어 봄의 전령으로 변할 것 같다. 인사를 드리고 “조실 스님의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듣고자 한다”고 여쭈었더니 “내 살아 온 이야기라면 할 것이 없다”고 자른다. 스님의 이력이나 역경불사의 진행과정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의미다. “어릴 때야 뭘 알았나? 밤길 가는 데는 도둑놈도 불빛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내 길을 밝혀 주는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 경전 번역하는 것을 두고 서원이다 뭐다 따로 이름 지을 생각도 못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공부이고 하루하루가 내 일이었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 늙어서 보니까 이쪽 일(역경 분야)에 대한 걱정만 많고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어. 당장 이 걸 좀 봐.”

스님은 책상에 펼쳐 놓고 보시던 책을 내밀었다. 페이지마다 오탈자를 수정한 글자들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다. 운허 스님이 번역한 〈능엄경〉인데, 동국역경원에서 전산화 작업을 한 번역본을 출력해 편집한 것이다.

후학 육성 ‘고려대장경 완역’ 견인 주역
2월 7일 봉선사서 ‘경전공부 비법’ 강의

“내가 찾아가서 교정을 봤어야 하는데, 그냥 뒀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교정교열을 했나봐. 죄다 틀린 글자이고 엉터리야. 원본은 그렇지 않은데, 교정보는 사람이 자기 안목에서 단어를 마구 바꾸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해도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대 부족인 게 현실이지. 해서 다음달 7일에는 봉선사에서 승속 구분 없이 한글 경전 보는 방법을 전하는 강의를 할 계획이야.”

월운 스님은 오래전부터 “역경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종단이 큰 맘 먹고 전문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주장과 염려는 어디서도 공감해 주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발등의 불’로 여기고 종단 차원에서 세워야 할 ‘역경불사 서원’이 무관심보다 먼 곳에 버려져 있음이다.

“어쩌면 불교 밖의 사람들이 경전을 번역하고 불교공부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몰라. 안목이 갖춰지지 않은 목수는 대패질하고 다듬은 것에는 능할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보는 혜안이 없거든. 도편수는 그저 뒷짐 지고 다니면서도 소목들 일 하는 것을 척 보면 알거든. 머릿속에 집 한 채가 상세하게 들어 있으니까. 번역일도 마찬가지야.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마흔 살이 넘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니 언제 공부가 되겠어?”

월운 스님의 염려는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하는 ‘묵은 종교’의 폐습을 정곡으로 찌르고 있다.

“서원이라고 지나치게 거창하면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야. 자신이 불자라는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지. 불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석가모니불!’ 딱 한 번 하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무관세음보살!’ 딱 한 번 하고 자는 거지. 딴 생각은 할 것도 없어. 그렇게 일주일을 해 봐. 쉬울 것 같지? 하지만 사람이란 게 살면서 자신의 주체의식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무튼 일주일을 그렇게 ‘석가모니불!’로 시작하고 ‘나무관세음보살!’로 마치는 일과를 성공했다고 치면, 다시 한 달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게 되면 석 달을 하고, 일 년을 하면서 매일 자신이 불자임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변화를 느끼게 되지.”

자신의 정체성, 주체적인 삶의 바탕을 먼저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서원을 세워도 성취할 수 없는 가르침. 기초공사 없이 어떻게 수 십층 빌딩을 짓겠는가? 새 해가 되어 이러저런 서원을 세운 불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초공사가 잘 되었나?’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다.

“절집에 ‘처사님 불경 보듯 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 경전이고 건성건성 읽고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런데 몇 구절 이해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아무리 견해에 따라 다양한 것이 세상이라지만 경전의 심오한 이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망상일 뿐. 알고 보면, 경전 보는 것도 아주 과학적이야. 원리가 있는 것이지. 어지간한 사람도 한 4~5년 집중해 공부하면 기초를 익히고 문리(文理)를 터득할 수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들이 문제야. 어디 역경만 그렇겠어? 무슨 일이든 알 것은 완벽하게 알아야 하고 다질 것은 철저하게 다져 놔야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힘이 가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

작심삼일? 그것도 재발심하면 성공

은사이신 운허 스님의 서원은 어떤 것이었는지 가까이서 보신 소감이 궁금했다.

“사실은 감히 근처에 갈 수도 없었어. 항상 어려운 분이었지. 상당히 스케일이 큰 삶을 사신 분이야. 다만, 오고가는 말없이 배운 것이 있다면 독립운동 하실 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절집으로 오셔서 공부하실 때는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었지. 교회에도, 대종교나 천도교에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항일운동의 측면에서 필요했겠지. 그러니까 서원이란 지금 당장의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또 그게 전부야. 그것이 자기결제야.”

스스로 결제하고 스스로 경책하며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삶. 월운 스님은 서원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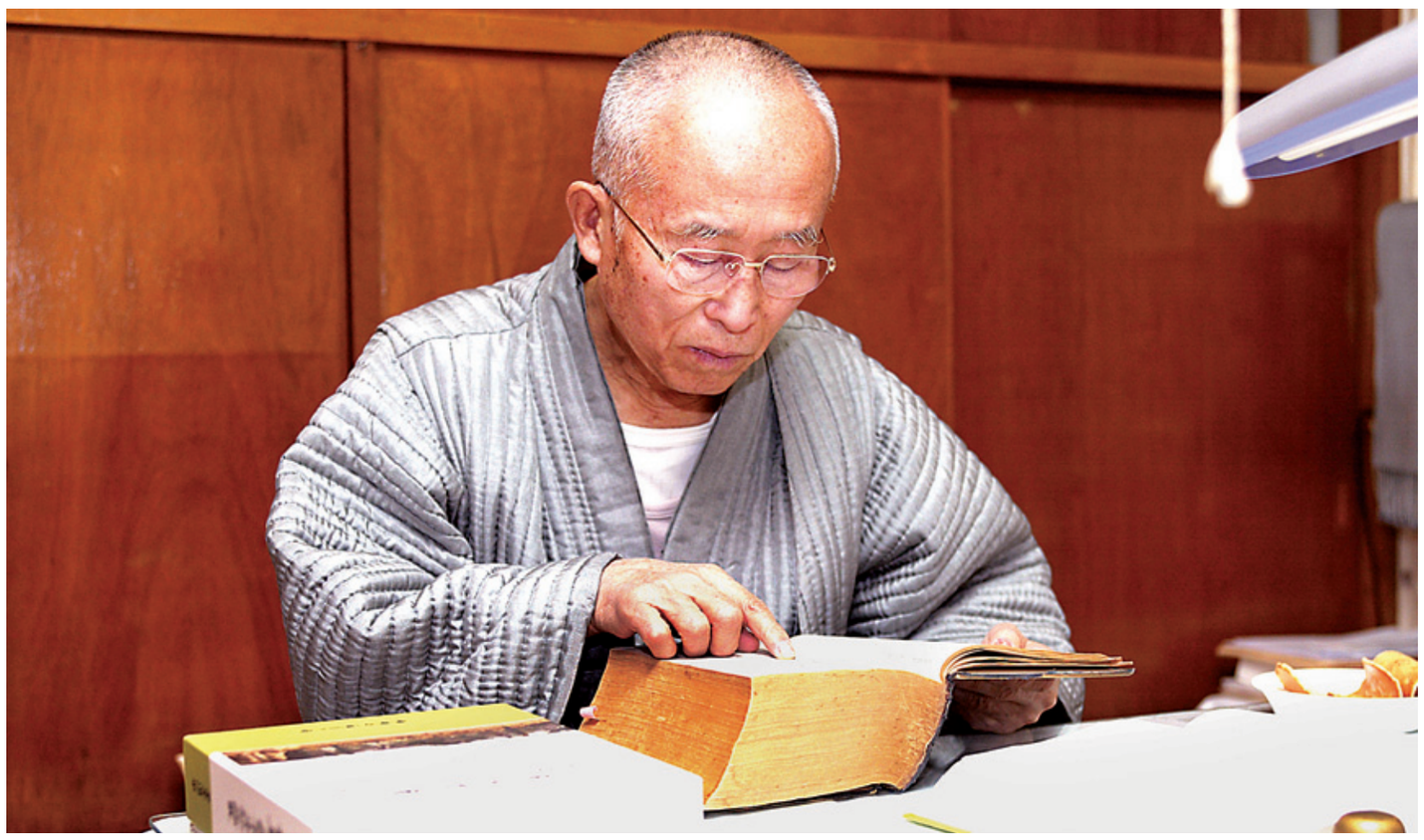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있었던 일들을 바르게 정리하고 현재의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陽后人 洪吉童 靈駕 行孝 伏爲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게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게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법성게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종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서원 없는 불자는 표류하는 배와 같아
서원 했거든 부단한 자기 점검 · 발심을



(위)월운 스님이 봉선사 다경실에서 번역원고를 검토하고 있다. (아래)월운 스님이 2010년 6월 봉선사에서 〈인본욕생경〉 시역고 · 강평회를 주관하는 모습.

다가 올 일을 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성인의 삶이야. 은사스님의 삶이나 내가 살아 온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지성적인 삶의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지.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개인의 일보다 대중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야. 경전에 '안락행품'이 있듯이 생활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이 해관계에 따른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야. 화두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서원을 가졌으면 오직 그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서원이라면, 그것을 철저한 화두가 되게 하라는 것을 월운 스님은 거듭 강조했다. 철저할 때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 잠깐의 실수로, 한 순간의 착각으로 큰일을 저지르거든. 자기절제가 흐트러진 것이지.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찰나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서원에 대한 집중력을 찰나라도 놓치지 말라는 것이야. 늘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산을 봐도 강을 봐도 '관세음보살!' 할 수 있어. 자신이 지금 어딜 가든 그렇게 가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신비한 것도 수행이 아니고, 어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 수행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런 차원에서 서원을 세우고 놓치지 말면 되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게 여기니까 공부의 방향이 흐려지고 있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무렵이면, 새 해를 맞아 세웠던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집중력을 잃고 방황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 월운 스님은 그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빨리 잘 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야. '아하,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다시 재발심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역경관련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잘못된 경우가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면서 끝을 보게 됐거든. '미워도 내 낭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단한 자기 점검과 발심, 새로운 출발이 없으면 서원은 물거품이 되는 거야."

살아 온 그 과정이 새로운 서원

월운 스님은 인터뷰 내내 살아 온 날들에 대한 회고를 자제 했다. 역경불사에 대한 남다른 서원을 이야기 하는 것도 짐짓 피했다. 동국역경원장직을 '황당'하게 그만 두어야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역력했다. 불경서당도 지금은 중단되었고 능엄학림과 홍법강원 등도 옛 명성에 많이 부족한 것을 씁쓸해 하는 듯했다.

어느 법회든 요청이 오면 달려가 법문을 하고 법문 말미에는 반드시 "국민에게 세금 낼 의무가 있듯 불자에게는 역경 후원금 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경에 대한 한결같은 노심초사. 그래서 적지 않은 역경(逆境)도 견뎌야 했던 월운 스님의 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공덕의 빛으로 중생계를 비추고 있다.

–지금 스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서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일 해 온 것이 다 새로 세워야 할 서원이고, 오늘 아침 이야기 한 것들이 다 내 숙제들이지. 나도 이제 갈 때가 다가오는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옛말에 '어영부영 납월 말일'이라고 했어.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한 해가 오는 거야. 돌아보면 아직 죽는 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죽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누가 물으면 '아직은 잘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스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위가 가벼워야 한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연구실에 화분이 있다. 탐스럽게 핀 꽃송이가 보는 이의 마음을 밝게 한다. 옆에 옷을 걸다 보면 소매에 닿아 꽃이 상할까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저 꽃은 부드럽기 때문에 위에 자리 잡은 것이다. 반면에 뿌리는 단단하므로 아래에 놓였다. 사회구조 역시 강한 사람이 뿌리를 맡고 유연한 사람이 상부를 맡으면 이상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인과 화가가 사회의 상부를 맡아야 하며, 성자와 현자가 최상부를 맡아야 한다. 군인과 정치가와 사업가는 하부를 맡아야 한다. 하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상부를 차지하는 바람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세상은 마치 뿌리가 나무의 정상을 차지하고 꽃을 밑으로 밀어낸 형국이다. 인도의 사회구조를 보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스트의 제일 계급이 승려계급인 브라만이 상부를 맡았다. 브라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면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궁극을 깨달은 사람이 브라만이며, 브라만은 사회의 꽃이다. 그래서 상부를 맡았다. 힘 있는 제후나 왕은 브라만의 발아래 절을 했다. 왕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왕 일 뿐이다. 대부분의 속인은 야망을 쫓기 때문에 정신이 병들어 있다.

부처님은 한 나라를 찾아왔다. 이때 이 나라의 왕은 도성 밖으로 나가서 부처님을 영접하길 꺼려했다.

지혜로운 재상이 왕에게 조언을 했다.

"가 보셔야 합니다."

왕이 대답했다.

"격식이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요? 그냥 오라고 하시오. 왜 내가 도성 밖에까지 나가 영접을 해야 하오. 나는 왕이고 그는 거지요."

그러자 재상은 바로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속이 좁으시니. 저는 더 이상 모실 수 없습니다. 전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분은 왕국을 버린 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더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가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 사직서를 받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전하를 보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가서 영접을 했다.

왕이 부처님께 절을 하자 부처님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하는 마지못해 나왔지요. 마지못해 나오는 건 진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이야말로 이해하든가, 못하든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를 보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왕이 울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을 깨달은 것이다.

시인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늘날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은 간디이고, 그는 아힘사(ahiṃsā)의 정신으로 인도인의 버팀목이 되어 독립의 주역이 되었다. 간디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정치가 네루 수상이 배출되었다.

현대 사회구조는 너무 위가 무거워졌다. 가벼운 꽃이 정상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다. 현자와 시인이 정상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성인은 말했다. '정상에 서고 싶다면 부드럽고 약한 사람이 되라. 유하고 부드러워져라. 거대한 나무처럼 강하지 말고 작은 풀처럼 부드러워져라.'

설날이 되면 평소 못 뵙던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다. 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이 미풍양속이 상도(常道)를 벗어나는 일도 있다. 앞에 언급한 왕과 부처님과의 관계처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세배도 있는 듯 하고, 세배하면 세뱃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두 경우 모두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현대 사회는 위가 너무 무거워
현명한 사람 사회 위에 있어야
정상 서고 싶다면 강하지 말고
작은 풀처럼 유하고 부드러워져라

설날을 맞아 변화라는 의미를 음미해 보자. 변화란 오래된 것이 소멸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이다. 변화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거듭나기 위한 통과 의례 쯤으로 여긴다면 쉬 수용이 될 것이다. 고요한 휴화산에서 시뻘건 용암이 분출되는 모습을 보면 변화의 극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내면세계에 엄청난 진동을 느꼈다. 그 진동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위대한 행위로 나타난다. 인류애로 각색되어 중생제도의 길을 걷게 된다. 많은 수행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진동을 느끼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숱한 해를 맞고 달을 맞는다. 나의 내면의 세계가 성장이 되어야 만이 부처님과 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악에서 화음은 8음계의 배열에 달려있다. 수행자에게 화음은 음악의 음계 보다 낮은 수인 삼독심의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특허등록(30-0607637)

法性圖 所持者 成就一切萬法 消滅一切諸障碍

법성도는 心지요체 정법입니다.
혹 方便으로 사용하고있는 符籍보다는
천만배 이상 靈驗과 隨乘한 공덕이 있습니다.
회화나무 꽃으로 수제품 딱종이에 염색한
槐黃紙에 鏡面朱砂로만 특수 제작하여
불자님들께 護身(휴대)용으로
염가 普及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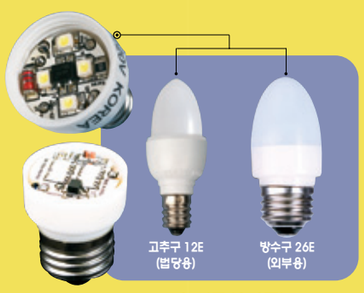
호신용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장용
윤달 예수제용 등 주문제작합니다
槐黃紙 원지 판매합니다.

법성원 : 051)532-1113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에서도 구입가능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고리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새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진취적이며 한국적인 불교이념 구현 도량

현대의 비보사찰(裨補寺刹) 묘각사

지금도 전국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발견된다. 산 정상에 쇠말뚝을 박아 한국의 정기를 끊으려 한 흔적이 대표적이 예이다. 일제는 경복궁에 총독부 청사를 지을 때 근정전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방향에서 약간 빗겨나게 지었다. 북악에서 뻗어 내려오는 혈맥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총독부 청사에 소요되는 석재를 좌청룡인 낙산에서 채석함으로써 혈의 파괴와 지배자의 권위의식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조선이 건국하고 한양을 도성으로 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좌청룡인 낙산의 지세가 약한 것이었다. 이를 우려한 사람들은 좌청룡의 지세를 강하게 하는 묘안을 내었다. 먼저 동대문 운동장이라 불렸던 곳까지 흙을 쌓아 낙산 좌청룡의 지세를 강하게 했다. 그곳을 성 동쪽이라 해서 성동원두라 불렀다.

이곳도 일제의 만행을 피해갈 수 없었다. 조선의 정기를 끊는 한편 1924년 1월 결혼한 히로히토(裕仁)를 위해 운동장을 만들었다. 이곳을 허물고 터를 닦은 후 1926년 3월 축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을 준공했다. 그리고 명칭을 동궁전하어성혼기념경성운동장(東宮殿下御成婚記念京城運動場)이라 했다. 이곳은 광복 후 한국 스포츠의 산실이었으나 개발에 밀려 2009년 10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됐다.

다음으로 동쪽에 큰문을 세우면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이라 했다. 궁궐 정문을 비롯해 다른 도성 문이 모두 세 글자인 것과 달리 한 글자를 더해 기를 북돋은 것이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조선은 500백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했으니 풍수란 그리 허황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풍수와 불교가 합해진 것이 비보사탑설(裨補寺塔說)이다. 이것은 신라말 도선(道詵) 국사가 주장한 것으로 우리나라 지형에서 악(惡)하고 흉(凶)한 지역에 사원과 탑을 세워 국가의 안녕을 도모한 사상이다. 이는 태조 왕건은 물론 고려시대 사원 창건과 탑의 조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비보사탑설이 신라 말에서 후삼국과 같은 혼란기에 유행한 것은 위정자들이 현세적 어려움을 물리치고, 지역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대중들을 위로하는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서울에도 이런 비보사탑설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 있다. 지하철 1호선 동명역 2번 출구에서 인근 숭인근린공원 밑에 자리한 묘각사가 그곳이다. 이곳은 1940년 태허 홍선(太虛 泓宣)이 세웠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한 태허는 1965년 중생구제의 염원을 세워 대한불교불입종을 창종했다. 불입종은 1988년 5월 28일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태허홍선은 1904년 음 8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에서 아버지 전주 이씨(李氏) 응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용이(龍伊)였다. 부친 응준이 종로에서 포목상을 크게 하던 거상(巨商)이어서 매우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부친은 신앙심이 깊은 거사로 법명이 선지(善智)였다. 불심 깊은 생활을 한 탓에 용이 역시 어릴 때부터 불심이 깊었다. 11세가 되자 서당에서 한학공부를 시작했으나 신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現 경복고등학교 전신인 경성예비고등전문학교에 들어가 공부했다.

용이가 본격적으로 불교에 귀의한 것은 집 근처에 있던 각황사(覺皇寺)의 영향이 컸다. 1910년 10월 27일 원종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사찰로 도심 속에 세운 각황사는 갑작스럽게 추진한 탓으로 공간이 협소했다. 그래서 1914년 9월 28일 모두 철거하고 일본과 서양을 혼합한 양식으로 2층 법당을 세웠다. 이렇게 세워진 각황사(現 조계사)에는 불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개설됐다. 당시의 유명한 선승을 초청해 대중 설법을 개최했다. 초청된 고승 가운데 경운(擎雲) 선사는 세간의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당시 선사는 30여 년 동안 산문을 나오지 않고 학식과 도가 높아 당시 생불과 같이 존경받았기 때문이다.

각황사에서 경운 선사의 법문을 자주 듣던 용이는 26세인 1930년 그를 은사로 출가해 홍선이란 법명을 받았다. 출가 후 그의 수행은 다양하게 전개됐다. 27세가 되던 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가게이오 대학에서 공부했다. 유학 후 31세 때부터 소요산 백운암에서 천 일 기도를 했다. 34세인 1938년에는 중국 산서성을 순례했다. 학업과 수행을 마친 태허는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대중교화를 36세인 1940년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했다.

대한불교관음종 종조 태허홍선 스님
각황사서 경운 스님 법문 듣고 출가해
서울시민 편안케 하겠다는 원 세우고
36세인 1940년 낙산에 묘각사 창건


태허홍선 스님이 창건하고 불입종을 창종한 서울 숭인근린공원 인근의 낙산 묘각사. 지금은 종명을 바꾼 관음종 총무원이 있는 사찰로 도심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사찰을 세운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 이곳에 도적이 들끓으면 서울 시민 모두가 불안해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찰을 세워 헐벗고 가난한 시민을 구제한다면 서울이 평온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비보적(裨補的) 성격을 띤 창건이었던 것이다. 그런 탓에 그는 중생구제로 일관된 수행을 보여줬다.

이곳 묘각사에서 수행하던 태허는 8·15광복을 맞았다. 그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불교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그러나 불교계 역시 좌우 대립에 휩싸였고, 이어 발발한 6·25사변으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수행처를 경북 상주 백화산으로 옮긴 태허는 이곳에서 6년간 수행에 전념했다. 1956년 서울로 돌아온 후 비구·대처의 대립으로 혼돈된 불교계를 바로하기 위해 1957년 일승불교현정회(一乘佛教顯正會)를 조직했고, 1958년부터 2년 동안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거리 설법을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 운동이 될 수 없음을 느낀 그는 1965년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불입종을 창종했다. 그가 〈법화경〉의 파사현정 교리에 입각해서 종단을 설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 근대 격변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대중들의 성품이 심한 갈등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파사현정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태허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겨레를 위해 눈과 등불과 그리고 길잡이가 되겠다는 서원을 실천하다가 1979년 6월 낙산 묘각사에서 입적했다.

태허의 사상을 계승한 제자들은 1988년 5월 28일 종명을 대한불교관음종으로 개명하고 내면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도모했다. 종명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음보살의 방편력을 수용했다. 소의경전 역시 〈법화경〉은 물론 〈화엄경〉을 비롯해 여러 경전을 폭넓게 수용했다. 본존 역시 석가모니불에서 법보화(法報化) 삼신불로 확대됐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관음종으로 개명한 것은 대승적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단으로 거듭난 관음종이 앞으로 걸어가야 길은 쉽지 않다. 전통을 계승해 시대에 맞는 종단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21C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종단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허의 정신이 잘 계승돼야 한다.

태허는 고식적인 불교에서 탈피해 진취적이고 한국적인 새로운 불교이념을 기원했다. 그래서 출가수행자 중심의 종단이 아니라 승속 혼연일체가 되는 종단으로 만들었다. 또, 대중의 종단으로서 부처의 지견을 계발하고 실천 수행함으로써 자아완성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태허는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닌 사회구제의 이념을 제시했다.

관음종으로 변경한 후학들은 이런 이념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명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이 보이고 있다. 먼저 기복적인 불교에서 자오(自悟) 자각(自覺) 자증(自證)의 신앙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 불교문화대학을 통해 체계적인 불교 이론과 실습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이런 교육이 출가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 점에서 승속 동행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포교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실천하고 있다. 그 예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낙산 묘각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해 운영한 결과 2004년 이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참가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다. 사회적으로 관음종을 알리는 일이지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현대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통의 발달로 풍수에 의존하던 것이 많이 사라졌다. 비보사찰 역시 은 현대적 의미를 찾을 때이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중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찰이 비보사찰일 것 같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사주프로그램 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을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샵 02)2004-8215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니르바나(열반)를 향해 나아가라. - 장부경전 -

아 름 다 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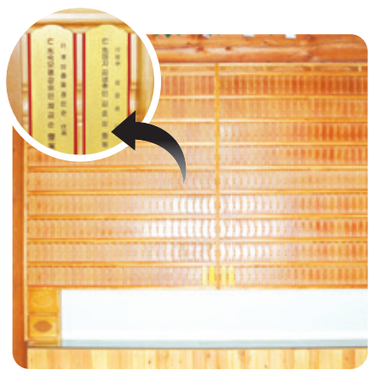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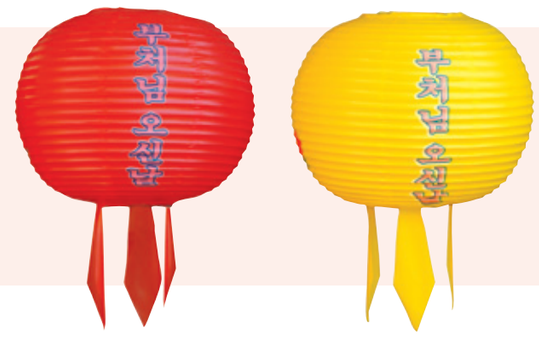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 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재산과 보물이 집안에 넘쳐나려면

원각경(圓覺經)의 비밀(秘密)


삼주호법 위태존천 동진보안보살도

서양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유명한 속담 중에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Money makes the world go around)"가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빈부 격차는 사람의 삶과 행복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다.

가난과 풍요는 사람들의 행불행을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남아국가의 사람들처럼 낙천적이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북미나 유럽, 한중일에서는 본 적이 드물다.

필자가 스리랑카 수도 항구도시 콜롬보에서 잠시 지낼 적에, 빅토리아 파크(영국여왕 빅토리아를 기념해 지음) 공원에 자주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넓디넓은 공원 한 쪽 켠에, 시골에서 올라와 가족전체가 함께 살며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누더기옷을 간신히 걸친 아이들이 내게 와서 돈을 요구하곤 했다.

비가 오면 커다란 종이박스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비닐을 씌운 후, 서너 명이 그 안에서 잠자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단정한 교복을 입혀 학교를 보낸다. 아이들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파하면 다시 돌아와 누더기옷을 입고 공원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다.

보안보살과 화엄신중이 주인공인 〈원각경〉 수지독송은 삶을 풍족하게 해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밝은 얼굴로 웃으며 다니는지 내가 거지인지 그들이 거지인지 가끔 분간을 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리랑카 국민은 전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 3위안에 든다고 한다. 2005년 당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고졸 초봉이 5만원 정도였고, 시내버스운전사 월급이 8만원,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8만원 정도였으니, 한국의 같은 직무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의 20분의 1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1% 부자들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에 열등의식을 앓고 있다. 사실 출가하여 비구계를 받은 우리 스님들은 비구라는 명칭이 걸사(乞士), 즉 얻어먹고 사는 선비정도의 의미라는 것을 잘 알기에 마음의 풍족함으로 살지, 통장이 빵빵한 느낌으로 살지는 않는다.

'삼주호법 위태천존 동진보안보살(三洲護法韋馱尊天童眞普眼菩薩)'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보안보살과 화엄신중을 주인공으로 하는 〈원각경(圓覺經)〉의 제12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에 보면, 현선수보살이 석가세존께 여쭙기를, 〈원각경〉을 수지독송(받들어 지니고, 읽어 외우는)하고, 널리 유포하는 공덕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유포하는 공덕은 칠보(七寶)를 삼천대천세계에 쌓아 보시하거나, 백천개 항하(恒河, 갠지즈강)의 모래알 숫자보다 많은 이들을 아라한도를 얻게 한 공덕보다 수승하다고 설하신다.

이후에 화수금강(火首金剛)과 최쇄금강(摧碎金剛), 니람파금강(尼藍婆金剛)과 팔만금강과 그 권속들이 부처님께 서원하되, 누구든 말세중생들이 이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 그를 마땅히 수호하여, 눈을 지키듯 하며, 그 수행도량을 무리지어 새벽부터 황혼까지 수호하고, 그 집엔 영원히 재앙, 장애가 없게 하겠으며, 항상 그 집안엔 재산과 보물(財寶)이 풍족하여 궁핍하거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서원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세세생생 〈원각경〉을 수지독송해 깨달음에 이르러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삶과 생활에서 궁핍함을 모르고, 넉넉하여,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나눠드리시기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나무 석가모니불

판화로 만나는 아시아 각국의 용

고판화박물관, 5월 31일까지 아시아 흑룡판화 100선 특별전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이 5조 용판화를 들고 흑룡전시전을 설명하고 있다.

흑룡의 해인 임진년을 맞아 아시아 각국의 용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2일~5월 31일 '비상하는 우리의 꿈-아시아 흑룡 판화의 세계전'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용을 소재로 한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고판화 각 30점, 티베트·몽골·네팔과 일본의 고판화 15점 씩을 비롯해 고판화 자료·서책 등 총 100점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판화박물관의 용 관련 소장품 100점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연화(年畵) 목판인 '어룡변화(魚龍變化)도'가 눈길을 끈다.

청나라 말기에 제작된 이 목판은 길이 210㎝·폭 70㎝·두께 4㎝ 크기로 현존하는 중국 목판으로는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긴 널빤지 2쪽을 상하로 결합한 구조로, 머리가 없는 두드린 못을 두 나무 사이에 넣고 이었다.

'어룡변화도'는 남아와 여아가 잉어를 껴안고 있는데 남아의 잉어가 하늘의 운룡으로 변해 승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자아이의 머리 위에는 '장명부귀 금어만당(長命富貴 金魚滿堂)', 남자아이 그림에는 '어룡변화(魚龍變化)'란 글씨가 적혀있다. 남아의 경우 부귀·장수를 통해 출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석학 관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화인 어룡변화도를 보며 임진년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용문양은 우리 선조들이 대문이나 집안에 붙여 한 해의 불운을 막고 집안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던 세화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흉배, 책표지를 박아내는 능화판의 문양으로 이불보를 찍어내는 보판 등 생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중국·티베트 등에서는 집안이나 자손들의 소구소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판화를 찍어 대문이나 집안에 연화를 붙였다. 또 고원지대에 바람에 펄럭이면서 발원자의 소원을 실어 보내는 타르초에도 주요 소재로 용문양이 사용됐다.

전시장에는 명·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주도, 티베트 사람들이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는 깃발인 타르초 운용문 목판 등도 전시한다. 또 채색 기법을 활용한 일본의 용문양 작품도 볼 수 있다. 먹을 활용해서 찍어 자연스럽게 흑룡으로 표현됐으며 흑과 백으로 표현된 판화의 특징으로 인해 강렬한 소망이 표출되는 듯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어룡변화도

어룡변화(魚龍變化)

하늘에 한 마리 운룡이 있으며, 수중에 한 마리 잉어가 있는 도안. 또는 용머리에 잉어의 몸통이거나, 잉어 한 마리가 용문 위로 뛰어 오르는 모습. 잉어가 용으로 변해 출세한다는 의미.

고대에는 잉어가 용문(龍門)에서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 잉어가 용문을 도약하여 올라가면 용으로 변화하지만, 용문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마에 점이 생겨나 되돌아간다고 했으며, 황하의 잉어 가운데 이마에 홍색의 점이 있는 잉어가 많은데 모두 용문을 뛰어넘지 못한 잉어라고 전해진다. 어약용문은 청운의 뜻을 이루어 비상한다는 의미이다.

금어만당(金魚滿堂)

금어(金魚)로 표현되는 금붕어는 금여(金餘), 즉 재산이 넉넉하다는 의미다. 물고기 문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잉어이다.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되는 모습을 그린 〈어변성룡도〉와 물 위로 힘차게 뛰어 오르는 잉어 모습을 그린 문양은 출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잉어는 자손 번창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잉어의 머리를 남근 모양으로 묘사한 문양을 보아도 그런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한 번 알을 낳으면 수천수만의 새끼를 볼 수 있는 잉어의 생식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강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스님·불자·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불교미술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총 10주에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불교미술개론, 고려불화, 석등, 전통탁본기법, 불교공예전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증한 승려연수교육 인증서가 수여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흥선 스님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 흥선 스님(사진)은 금석학 전문가이자, 前 직지성보박물관 관장, 현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위원으로 종단 내에서 손꼽히는 문화재 전문가다. 또한 불교문화재와 답사기행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시행한 강좌는 종단 내 스님과 재가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사회전반의 불교문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불교미술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신청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buddhism.or.kr)와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02)2011-195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언니 따라 왔다가 저의 재능 발견했어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2012년 신입단원 모집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토 · 일요일 합창연습을 한다. 지휘자 혜총 스님과 단원들 모습

불교계 유일 어린이·청소년 합창단
잠재력 있는 학생 60명 재능 키워
성악·예술 전공자로 양성
2013년 20주년 해외공연 준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1월 중순 토요일 오후,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에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래 소리가 울려퍼진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 청소년 10여 명이 모여 노래연습을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불교계 유일한 어린이 · 청소년 전문 합창단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원들로 매주 토 · 일요일 황학현 단장과 지휘자 혜총 스님(한마음선원)의 지도 아래 노래실력을 키워가고 있다.

불교계 합창단이지만 이들은 반드시 찬불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처럼 가요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캐럴을 연습하는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연습한 실력으로 합창단은 매년 20~30회 전국의 사찰행사와 주요종교행사, 연등제 등에 참석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한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단장 황학현)은 구랍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을 공연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황학현 단장은 “부모은중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곡을 붙인 것으로 바흐, 헨델의 종교 칸타타에 버금가는 정통 불교 칸타타로 평가 받았다”며 “특히 출연진 전원은 어린이, 청소년들로 이들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른들의 오감을 맑게 씻어 주고 효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은 1993년 8월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키우는 일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창단한 단체다.

합창단은 해마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예술적인 성장과 함께 60여 전공자를 배출하는 동시에 음반을 출반해 불교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합창단은 2009년 창단 17주년을 맞이해 민족종교로서의 자존심을 고취하고 불교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불교예능 법인 (사)해피월드(이사장 초격)를 설립해 불교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노래와 무용에 소질이 없어도 예술을 좋아하는 초 · 중고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취미로 노래와 무용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성악전공자들을 배출하는 등 전문적으로 단원들을 키우고 있다.

김정우(고2) 양은 성악전공을 목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우 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친한 언니를 따라 합창단에 가입했다. 주말마다 노래연습과 공연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노래에 재미가 붙었다”며 “노래에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단장님께서 내 재능을 발견해주셔서 새로운 길을 찾게 돼 좋다”고 말했다.

합창단 활동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인관계를 넓혀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시연(고2)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합창단 활동을 했다. 이곳에는 전국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모이는데 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노래 연습하고 배우는 것도 매우 재밌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2012 신입단원을 수시 모집한다. 용모단정하고 노래와 무용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무용과 재즈 · 합창을 가르친다. 특히 8월 제주도 공연과 미국 순회 공연이 확정돼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황학현 단장은 “예술단에 소속된 단원 중 예중 · 고 · 대학 진학 또는 심화된 교육을 희망하는 단원들의 출석율을 평가해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불교음악지도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02)725-7849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구랍 24일 개최된 ‘부모은중송’ 공연



“20주년 공연위해 많은 학생 모였으면”

“해피월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진로를 열어주고 불교 음악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학현 단장(사진)은 불교교육자, 불교음악가이면서 찬불가사를 쓰는 작사가다.

황 단장은 20여 년간 불교교육연구원을 이끌면서 불교어린이 · 청소년교육의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조계사 어린이법회를 20여 년간 지도하면서 전국 불교어린이교육의 선구적 모범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황 단장은 현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화계사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황학현 단장은 찬불가 작사가의 삶에도 매진하고 있다. 봉축찬불가로 유명한 〈오늘은 좋은 날〉 〈길 떠나자〉 등 600편의 찬불가 노랫말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에 가장 정열을 쏟고 있다.

2013년 창단 20주년을 앞두고 황 단장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리틀엔젤스처럼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20~30명의 단원으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리기에는 벅찬 면이 있다.

황 단장은 “단원이 많아야 학생들을 선별하고 공연에 출연시킬 수 있다. 이번에 단원이 많이 모집돼 교육반, 연주반 나누어 체계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20주년 기념으로 북미지역에서 공연은 성공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단장은 “단원이 많아짐과 동시에 운영규모도 늘려야 한다. 현재 1080명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1구좌 당 1만원씩만 모아도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더 많이 발굴해 키워낼 수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www.weart.or.kr

이나은 기자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영해약탄 선사의 ‘외 심어 외 딴다(種瓜得瓜)’

어떤 밭에 무슨 종자를 심는가

種瓜數畝發黃花 (종과수묘발황화) 외를 심은 몇 이랑에 노랗게 핀 꽃
先發將衰後發嘉 (선발장쇠후발가) 먼저 꽃 지려하자 나중 꽃 곱네.
露濕叢中靑葉茂 (노습총중청엽무) 이슬 젖은 떨기 푸른 잎 무성하고
雨饒培上綠枝加 (우요배상녹지가) 비로 기름진 두둑 푸른 가지 더하네.
蔓莖尺許長兼短 (만경척허장겸단) 짤따랗게 뻗은 넝쿨 길기도 짧기도
結果寸餘豎復斜 (결과촌여수부사) 쪼끄맣게 달린 열매 섰거나 누웠네.
形似龍蹄色似錦 (형사룡제색사금) 용 발굽 인 듯 비단 빛깔 인 듯
令兒採得供親家 (영아채득공친가) 아이에게 따게 해 부모께 공양하네.

조선 영해약탄(影海若坦; 1668~1754)스님이 22세 때 무용 스님에게 처음 참학했는데 이 시는 그 때에 준 시제에 응하여 지은 작품으로 인과법(因果法)을 외가 자라나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해 순차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외를 심었기 때문에 꽃이 피었으나지고 피는 시기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나 근기가 각각 달라 현행하는 것이 같지 않음의 비유이다.

옥토에서 자라난 오밀조밀한 새싹 무더기가 이슬과 비라는 연(緣)을 만나 무성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음에 길고 짧음과 가로세로가 있다. 선지식 등 외연(外緣)에 의하여 신심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키워나가되, 중생의 마음 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발현됨을 보인 것이다.

이제 각각의 모양과 빛깔로 영글어진 열매를 따다가 어버이께 공양한다. 자기가 일궈낸 법의 향기를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영해라는 자신의 인(因)이 무용 스님이라는 선지식의 연(緣)을 만났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용의 발굽과 비단 같은 아름다움에 비유했으며 그 깨달음은 곧 중생을 위함이라는 스님의 서원까지 실었다.

〈화엄경〉에 “보리심은 불법을 자라게 하는 종자와 같으며 중생의 밝고 깨끗한 법을 잘 성장시키는 좋은 밭”이라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밭에 무슨 종자를 심었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무엇에 쓰고 있을까?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조선의 아픔이 말을 건네다

사진가 이재갑의 ‘상처 위로 핀 풀꽃’展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재갑이 강제 징용된 조선의 흔적을 중심으로 한 ‘상처 위로 핀 풀꽃’전을 연다. 이재갑은 1996년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일본에서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흔적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작가는 흐르는 시간의 자취와 변해가는 사물의 형태에 대한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령처럼 떠도는 잔영들을 불러내고 있다.

이재갑은 “길 위에서 발견한 조선의 아픈 역사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때론 비명에 가까운 소시로 내게 말을 건넨다”며 “도처에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당시의 일상들은 아직도 내게는 생생하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후쿠오카 조선 초 · 중급학교: 2004년 4월 이전까지 사용하던 후쿠오카 재일조선인학교 운동장으로 우리 정서가 스며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우렁찬 기상과 힘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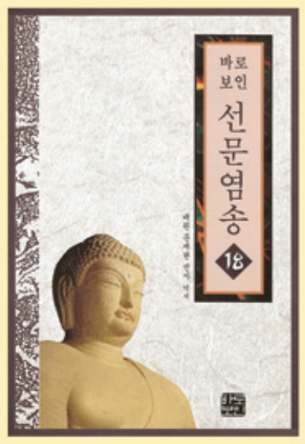
전시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당시 고통의 시간들을 현대에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전시는 서울 견지동 스페이스99에서 2월 10일까지 연다. (02)735-5811~2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 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상쾌! 가뿐!
new
▶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다리,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허리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즉시배달(1~2일) www.BB21.com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주 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 무 조고담 교 무 전지암
재 무 김미산 사 회 박처명
사부대중일동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총 재 김구해
회 장 마일운 부회장 최원허
총 무 조고담 교 무 전지암
재 무 김미산 사 회 박처명
홍 보 김효천 실 장 황청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일동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 장 최원허 실 장 김혜련
옥천범음대학 학생 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법공양시 특별 할인!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a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88세 노익장 40년 수행 일기



부처님을 만남
한갑진 지음
한진출판사 펴냄
1만원



미수(米壽)의 나이에 날마다 부처님 만나기를 쉬지 않는 이가 있다. 영화사 한진흥업의 한갑진 회장(88).

한 회장은 한국영화 황금기인 1960년대부터 충무로의 중심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1979년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을 역임한 영화인이다. 영화인 이전에는 국제신문 정치부장 출신의 기자였다. 촌철살인하는 글로 세상을 바로 잡던 기자직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활동사진으로 담아내 180편의 작품을 만들어 내던 영화일도 그의 갈증을 풀어낼 수 없었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불자 한갑진 회장이 최근 저서 〈부처님을 만남〉을 펴냈다.

한진출판사는 한 회장이 직접 부처님 법음을 글로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이다. 한갑진 회장은 한진출판사를 통해 〈알기 쉬운 불교〉 〈인도의 불교〉 〈부처님의 생애〉 〈새 천년을 헤쳐 갈 불교〉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알기 쉬운 불경집〉 〈알기 쉬운 법요집〉 〈불교성전〉 〈석존의 직관〉 등 편역서까지 포함하면 한 회장이 펴낸 불교도서는 20여 권에 이른다.

〈부처님을 만남〉의 첫머리에서 저자는 "내 나이 88세다. 이 나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처럼 흔하지 않은 일을 한 회장이 하는 것은 부처님을 향한 원력 때문이다.

저자는 "불보살을 향한 신심을 통해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젊은 사람 못지 않은 맑은 기억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48세에 부친과 사별하면서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 사유를 통해 불교를 만나 부처님 생애를 연구하면서 그 가르침을 책으로까지 펴낸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한 회장은 자신의 40년 수행일기와 함께 부처님의 생애와 교리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위한 길 안내도 담았다.

한갑진 회장은 해외여행 중에도 빠지지 않고 예불을 할 만큼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매일 수행 · 기도를 통해 부처님을 만나기를 거르지 않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가 생겨납니다. 절제된 생활방식은 자신부터 변화시켜 나이가 들어도 주위로부터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을 듣게 합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심 깊은 불자로만 반평생을 넘게 살아온 저자는 스리랑카 최고국민훈장과 스리랑카 주한 명예총영사로도 활동하며 불교국가와 우리나라의 민간외교에 기여한 인물이다.

저자는 최근 〈대반열반경〉을 번역하고 있다. 한갑진 불자의 신심이 녹아든 〈대반열반경〉은 2013년 만날 수 있다.

조동섭 · 주성원 기자

현대 산업문명의 죄악을 밝히다



굿 워크
E.F. 슈마허 지음
느린걸음 펴냄
1만5000원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단 한 문장으로 인류의 '생각의 대전환'을 이뤄낸 슈마허의 최후의 강연록이다. 역사상 가장 창조적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슈마허는 평생에 걸쳐 기존 경제학과 기술, 그리고 이를 떠받쳐온 가치체제에 대한 근원적 도전을 던지며, 우리를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끄는 길을 탐색해 왔다.

책은 거대한 현대 산업사회의 악을 드러내는 문명비판서이다. 슈마허는 현대 산업문명이 저지른 4대 죄악을 밝혀냈다. 특히 '인간의 노동을 가장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만들며, 인간의 총체적인 본성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해 인간의 삶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그대들 여기 주목하라. 부처님 말씀에"



맨발로 오신 부처님
효림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2000원

효림 스님의 현대판 '불소행찬' 부처님 일대기 285편의 詩로

"저기 빈 들판 길을 홀로 걸어오신 분이 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맨발로/ (중략)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판 길을 맨발로 걸어와/ 세상을 바꾸셨다/ 오직 사람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바로 그대들 여기를 주목하라/ 스스로 자기 삶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부처님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운율에 맞춰 노래로 합송했다. 이 노래들은 훗날 불교경전의 토대가 됐으며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불소행찬(拂所行讚)〉의 근간이 됐다.

〈불소행찬〉은 고대 인도문학의 고전으로 서시로 이뤄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경원사 주지인 효림 스님은 최근 현대판 〈불소행찬〉인 〈맨발로 오신 부처님〉을 출간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찬탄과 감동으로 얽힌 시로 승화했다.

효림 스님은 "43년 간 수행자로 살다보니 자연스레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게으르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그나마 내가 내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아직도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한마디에 이끌려 출가를 결심했다. 때문에 부처님 전기에 관해 꼭 한번은 시로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효림 스님은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를 공부한 후 2002년 불교잡지 〈유심〉에 작품을 게재해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흔들리는 나무〉 〈꽃향기에 취해〉 〈그늘도 꽃그늘〉 등의 다수의 저서들을 통해 전태일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한 수행자이자 시인이다.

스님은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 또한 부처님에 대한 나의 주관적 주장들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부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성장사 가족사 출가 고행 열반 가르침 제자들 열반까지 시대적 상황과 공간의 움직임에 따라 부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스님은 "부처님에 관련된 책은 이미 시중에 많이 널려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려고만 했다"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효림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를 담담하게 서술하면서도 매순간 주인공이셨던 당당한 부처님의 모습을 심도 있게 그려냈다. 또 각 시마다 각주를 통해 2500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적절한 안내도 덧붙였다.

스님은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항상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라며 "부처님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격변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계급과 인종, 성을 넘어 설법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반면, 무사계급인 국왕의 지배력이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부처님의 모국인 가비라국도 꼬살라국에 의해 멸망 당했고, 꼬살라국은 마가다국에게 멸망 당했다. 이처럼 세상은 격변과 혼란으로 어지러웠다.

효림 스님은 책에서 "불가촉천민, 하인, 기생, 살인마 등 모두 부처님이 제시한 깨달음의 길에 차별이란 없다"라고 설명하며 부처님의 인간 평등사상을 강조했다.



특히 효림 스님은 책에서 "여성출가에 대해 '팔경법'을 운운하는 것은 부처님의 절대평등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팔경법을 따지는 비구 스님들을 질타하고 비구니 스님들에겐 더욱더 당당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좇는 한 수행자의 감동어린 진솔함이 285편의 시를 통해 담겨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초보불자들이 읽어야 할 불교입문서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 기본 교재 펴내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펴냄
7000원

현대인의 삶은 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매우 편리해진 듯 보이지만, 세상은 더 힘들고 각박해져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최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다스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초보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을 펴냈다.

〈불교입문〉은 1996년 발간이래 불교계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불교입문〉 그동안 초심자들이 읽기에 분량이 많고 내용도 다소 어려웠다. 포교원은 이번 '2012년 불교입문 개정판' 재발간을 통해 기존의 불교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간추려 불교 전반에 이해를 도왔다.

포교원은 이번 개정판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강조하고, 불교의 핵심사항을 전달하고자 했다.

또 학술적인 내용보다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사에 대한 이해와 조계종사를 소개해 신도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책은 사찰에서의 불자예절과 자세, 사찰의 구조,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신행생활 등 신도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을 담고 있다.

또한 책은 조계종 신도들을 위한 신도 기본교육의 교재로 사용돼 의미가 깊다.

책에는 불자들 '왜 절에서 목탁을 치고 예불을 할까?' '사찰에서는 왜 아침저녁마다 북과 종을 칠까?' '사찰의 전각마다 모셔진 불상은 똑같아 보이는데 왜 다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나?' '기도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등 누구나 불교문화에 대해 갖는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불교에 대한 깊이와 폭을 넓히고,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조계종출판사
3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명진	말글빛냄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8	금강경, 문수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시다	이수덕	운주사
9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10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더난출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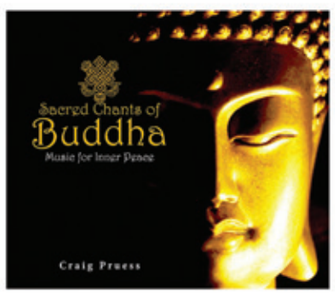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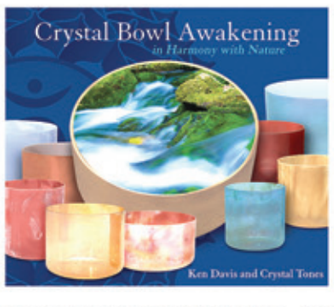
대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궁극의 명상음반



나왕 케촉 티벳 명상음악
그래미상 지명자 나왕 케촉이 티벳 불교와 명상음악 여정 20년을 정리하며 헌정하는 티벳 명상음악의 역작!
나왕의 진언과 티벳 대나무 피리, 명상주발과 종, 풍경소리 느낌의 드릴부, 가야금 소리와 유사한 우드, 마림바, 첼로 등의 선율과 음색의 미묘한 하모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명반!
1CD/Contents Korea/16,000원



신성한 붓다 찬트
불교의 만트라를 현대적으로 창작한 뉴에이지 찬트! 명상음악 궁극의 극치를 보여주는 걸작!
장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저음 남성 코러스의 하모니 울림이 우리 내면에 이완과 심신의 치유를 가져다 준다.
1CD/Contents Korea/15,000원



크리스탈 울림 주발
크리스탈 울림 주발과 자연의 소리와 조화로운 앰비언트 사운드와의 환상적인 만남!
신비한 파동과 공명이 경이롭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균형을 조화롭게 하고 명상적인 상태로 유도하여 내면의 의식을 각성시킨다.
1CD/Contents Korea/15,000원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지금 이 순간, 오늘 잘 살기

현대인들은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을 하는 이들이 많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대동소이한 바람들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지금 이 순간 그대로 행복하라〉와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은 올 한해 매일매일 곁에 두고 들춰 볼 수 있는 책이다.



지금 이순간 그대로 행복하라
틱낫한 지음
티난출판 펴냄
1만 4000원

그대 자신의 마음을 열기만 하라

틱낫한 스님은 전 인류의 정신적 멘토, 살아 있는 부처라 불린다. 프랑스 남서부의 청정수도원 플럼빌리지에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스님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늘 행복과 성공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틱낫한 스님의 책은 이러한 물음에 우리 스스로 해답을 구할 수 있게 돕는다. 책은 1년 동안 한주에 하나씩 만나는 짧은 명상에세이와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스님은 참여불교의 주창자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틱낫한 스님은 이들의 고통을 목도하면서 "아픔을 통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한다. 책은 스님의 이런 삶의 깨달음을 아름다운 글과 풍경 사진 등으로 담아냈다. 책은 바쁜 일상에서 지친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감로수이다.

책에서 스님은 "알고 들이쉬고 알고 내쉬고…의식하고 호흡하면 방황하는 정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한다.

"연꽃이 진흙탕 없이 자랄 수 없듯, 뼈아픈 고통을 겪은 연후 행복의 가치는 더 절실하고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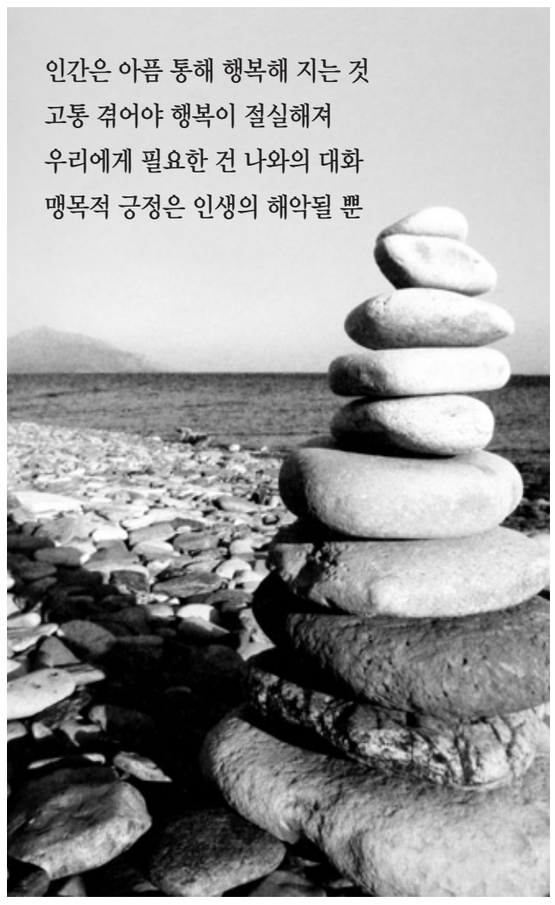
책은 한주마다 하나의 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되고 명상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주제는 ▷평화로운 삶을 위한 호흡 ▷깨어 있는 마음으로 걷기 ▷그대 곁에 숨쉬는 행복 ▷관념에서 벗어나기 ▷산처럼 수행하라 ▷여전함의 소중함 ▷내 몸에 감사하라 ▷행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깨어 있는 호흡이란 ▷흔들림 없는 삶을 위하여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지구와 함께 걷는다는 것 ▷고통 놓아 버리기 연습 ▷나 자신부터 사랑하기 ▷우리 모두가 기적 ▷세상의 평화는 나로부터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 등이다.

스님은 다시 말한다.

"우리는 어느 다른 곳으로 가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가 우리의 참된 집이다"라고.

인간은 아픔 통해 행복해 지는 것
고통 겪어야 행복이 절실해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와의 대화
맹목적 긍정은 인생의 해악될 뿐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
보경 스님 지음
조계종 출판사 펴냄
1만2000원

하루를 준비하라

보경 스님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 명상〉은 날마다 한 편씩 읽도록 날짜별로 365일 구성돼 있다. 연도와 요일 표시가 없어 해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며 명상을 할 수 있다. 책은 보경 스님이 불경에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과 함께, 스님이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가 담긴 글들로 구성돼 있다.

스님은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라는 말이 있다. 매일 아침 직장 혹은 가정에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읽으며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할지 차분히 떠올려 보라"고 조언한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하는 대화"라며 "책의 짧은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삶을 만들지만 맹목적인 긍정은 오히려 인생의 해악이 된다"며 "오늘 나의 무지와 잘못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삶의 진보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채식이 맛 없다는 통념을 깨트리다

영혼까지 맑히는 힐링 푸드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의 '평화가 깃든 밥상2'



평화가 깃든 밥상2
문성희 지음
샨티 펴냄
1만5000원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채식은 자연스레 웰빙음식의 대표주자가 됐다. 채식이 건강에 이로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채식요리가 맛이 없다는 것이다.

2년 전 〈평화가 깃든 밥상〉을 펴내 큰 관심을 모았던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는 최근 맛있는 자연 요리 레시피들을 모아 〈평화가 깃든 밥상2-반찬편〉을 출간했다.

문성희의 요리책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녀의 채식 요리들은 맛있다는 것. 그녀의 음식을 먹어본 이들은 한결 같이 채식 요리도 맛있다고 말한다. 책은 채식 요리가 맛이 없다고 단정 짓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어준다.

두 번째, 그녀의 요리는 쉽다. 실제로 그녀의 레시피는 재료를 씻고, 썰어서 굽고 먹기만 하면 된다. 책에 소개된 모든 요리들은 간단한 조리법으로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성희가 만든 자연 요리는 속을 편하게 해준다. 그녀는 음식을 조리할 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으며, 몸에 부담을 주는 과한 양념도 넣지 않는다. 재료의 있는 그대로를 살려내, 우리 몸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몸과 환경을 동시에 살린다는 것이다. 그녀의 요리는 몸과 마음, 자연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다. 유기농으로 키운 재료를 사용하고, 유해 첨가물이 들어간 양념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요리 연구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음식을 6가지 부류로 나눠 풍성한 반찬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다. '국물 요리'에는 29가지의 국물 요리가 소개 되는데,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지 않는 찌개나 전골은 맛이 없다는 통념을 깨트리고 채소만으로도 맛있고 품격 있는 찌개와 전골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담겨있다.

'무침 · 볶음 요리'에는 파나 마늘을 일절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나물 요리들 38지가 소개된다. 또 '부침 · 구이 요리' '찜 · 조림 요리'에는 담백한 맛을 잘 살려낸 밑반찬요리 42가지가 소개되며,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절임 요리' '김치' 등이 소개돼 있다.

저자는 20여 년간 요리 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화려하고 멋진 요리상을 차리는 일에만 몰두해 왔다. 하지만 결국 훌륭한 요리는 재료가 가진 본래의 생명력과 색깔을 망가뜨리지 않고, 조리 과정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저자는 생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일 년에 한번 ' 행복한 식탁이 있는 산속 음악회'를 여는 등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단련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를 간직한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신한 저자는 본격적으로 자연 요리를 연구하며 자연식 요리들을 만들고 있다.

현재 저자는 충북 괴산에서 생태 공동체 '미루마을'에 터를 잡고 '평화가 깃든 밥상' 학교을 운영하고 있다. 또 파주 헤이리에서도 매주 '평화가 깃든 밥상' 요리 강좌를 통해 행복한 밥상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책에는 몸과 마음, 영혼까지 평화롭게 해주는 저자의 힐링 푸드들이 담겨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책 쓰는 삶 자체가 수행"

판사가 쓴 경전 해석서





불교공부 15년 만에 〈화엄경〉 완역서를 출간해 눈길을 끌었던 김윤수 前 판사가 최근 〈해심밀경〉과 〈대승입능가경〉을 펴냈다.

김 前 판사는 2003년 〈육조단경 읽기〉, 2005년 〈반야심경, 금강경 읽기〉 등 〈반야심경〉 〈금강경〉 〈묘법연화경〉 등 불교계 대표경전을 번역해 왔다.

김윤수 前 판사는 "내생에는 동진출가하고픈 생각이 있다. 현생에는 일할 때는 일만 전념해서 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짬내서 공부하고 책 쓰는 삶 자체가 수행 아니겠냐"고 말한다.

김 前 판사는 "불교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깊은 철학을 갖고 있는지 불교 전체를 꿰뚫되, 있는 그대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펴낸 〈해심밀경〉은 3세기 경 대승불교 중기에 성립된 경전으로 유식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능가경〉은 대승불교가 후기에 접어들 무렵인 400년 경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이다. 〈능가경〉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전으로 오랫동안 평가돼 왔다.

저자는 〈해심밀경〉은 원측의 소에 의해 번역했다. 〈능가경〉은 보신의 주를 참고해 번역했다.

저자는 "늦게 불교를 만나 안타깝다"며 "무(無)의 상태에서 홀로 일궈온 연구이지만 불교를 알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 책을 통해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해심밀경 · 대승입능가경 | 김윤수 역주 | 한산암 | 2만원 · 3만원

조동섭 기자

이 제자 알아줄 이 남양혜충선사이니



서울 종로에 대승사 도량을 열고 역경불사에 앞장서 온 학담 스님이 최근 〈남양혜충선사어록〉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석해 펴냈다. 보조지눌 국사가 남양 선사의 신아론(神我論)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선병(禪病)을 반성한 글을 보고 학담 스님의 〈남양혜충선사어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님은 책에서 "지금 한국불교에는 혜충과 현사가 '풀과 나무에 붙은 귀신' '들여우 넋' 이라 꾸짖는 것과 같은 영혼주의 · 영육이원론이 조사선으로 포장돼 광범위하게 포장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양혜충선사어록 | 학담 평창 | 큰수레 | 1만7000원

조동섭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의 불교 공인이 늦어진 까닭은 ?

아도阿道 법사가 신라 불교 기틀 다져

1. 아도의 터잡기

일연은 고구려의 불교 전래 과정을 '순도조려' (順道肇麗)라고 했다. 순도법사가 고구려에 불교문명을 열었다는 뜻이다. 백제의 불교 전래 과정은 '난타벽제' (難陀闢濟)라고 했다. 마라난타법사가 백제에 불교문명을 열었다는 뜻이다. 일연은 두 나라 모두 '열었다' [肇, 闢]고 표현했다. '열었다는 것' 은 국가와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 불교의 기초와 기둥과 지붕과 벽을 마련한 뒤 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라의 불교 전래 과정은 '아도기라' (阿道基羅)라고 했다. 아도법사가 신라에 불교문명을 터잡았다는 뜻이다. '터잡았다' [基]는 것은 국가와 왕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도법사 스스로 불교의 터를 잡고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과 벽을 마련했음을 시사해 준다. 일연이 단지 동어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구려의 '조' , 백제의 '벽' 과 달리 신라의 '기' 로 조목명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라불교의 전래와 수용이 수많은 아도들과 그들이 가르친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구려·백제, 왕실이 불교 수용
신라, 불교 수용에 왕실 도움 無

무릇 새로운 사유가 처음 들어올 때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기존 사유는 새로이 전래해온 사유에 대해 본능적으로 강력한 배타의식을 지니게 된다. 고구려를 거쳐 들어온 인도 서역의 수많은 '아도' 들은 낙동강 중상류에 자리한 일선현(善山, 一善縣) 속림(續林)에 자리를 잡았다. '머리카락을 깎아 구릉같이 이마가 드러난' 아도(阿道, 阿頭)들은 하나 둘씩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 '모례의 집' [毛祿家, '祿' 은 '禮' 의 誤記]은 육지와 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런데 왜 하필 모례의 집이었을까? 그리고 음독(音讀)인 '모례' (毛禮)는 사람이름이었을까? 아니면 '털례' 라는 훈독(訓讀)의 발음처럼 일본의 사찰을 가리키는 '테라' (寺, てら)의 어원이었을까? '테라' 는 일본의 사찰을 나타내는 '지' (寺, じ)와는 분명 구분된다. 그렇다면 '모례' 는 사람이름이 아니라 '성황당' 혹은 '띠로 엮은 집' [茅屋, 草堂]을 가리키며, '모례가' 는 사모례(史毛禮)라는 어느 남자의 집을 그렇게 부른 것이었을까?

모례의 누이동생 이름이 사씨(史氏)였다는 사실을 통해 모례 역시 사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모례' 는 '초기 사원' 의 역할을 했던 '모례' 에 살던 주인집의 사씨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는 평범한 서민이었을까? 아니면 성황당 혹은 종교적 성소인 '모례' 에 살면서 무당이나 박수 역할을 했을까? 그리하여 그곳으로 점차 아도들 혹은 묵(흑)호자들이 다가오자 그들과 친해지면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을까? 마치 법흥왕 때 나라의 성황당인 천경림(天鏡林)의 고목을 베어내고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大王興輪寺)를 지었듯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성소였던 사씨의 집이 '모례' (테라)인 절로 바뀐 것은 아니었을까? 왜 그 많은 아도들과 묵(흑)호자들은 '모례가' 에 모여들었을까? 오빠의 집이 비구들로 가득 차자 그 영향을 받은 사씨 남자(모례?)의 여동생인 사씨 여인은 아도법사에게 귀의하여 신라 최초의 비구니가 된 뒤 삼천기에 영흥사(永興寺)라는 절을 지어 살았다.

얼마 뒤 미추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 사람들이 아도법사를 해치려 했다. 아도법사는 속림의 모례가로 돌아가서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을 떠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불교 또한 폐지됐다고 한다. 일연은 〈아도본기〉와 〈아도본비〉를 대비하면서 두 기록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연은 '짐짓 이것을 논해 보겠다' [嘗試論之]며 "아도가 고구려를 하직하고 신라에 온 것은 마땅히 눌지왕 때였을 것"이며 아도는 "고결한 행동으로 세상을 피하면서 성명을 말하지 않은 까닭"에 " '묵호자' 니, '아도' 니 하는 이름으로써 두 사람을 만들어 전했을 뿐 아도는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일연은 '논평하여 말하기를' [議曰] "관중에서 온 중국승 담시(曇始)가 동국에 머문 지 10년이나 됐는데 우리 역사에는 그 기록이 없으니 아마도 아도와 묵호자와 난타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필경 그의 바뀐 이름[變諱]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아마도 아도는 얼굴이 검었을 묵호자나 난타와 달리 흙탕물을 건너도 발이 젖지 않았던[白足]화상인 담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법흥왕과 이차돈의 신략

법흥왕(元宗)은 키가 7척이나 됐다. 성품이 너그럽고 덕이 있어 사람들을 사랑했고, 행동은 신령스럽고 거룩하여 만백성들이 밝게 믿었다 한다. 태자시절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불교를 공인하여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왕위에 오른 그는 부왕 지증마립간이 벌였던 일련의 개혁정치를 계승하여 중앙집권화



순천 선암사의 아도 화상 진영

법흥왕, 불교 일으킬 '신략' 모색
이차돈 희생으로 불교 수용

하고 고대국가로서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재위 4년(517) 째 되던 해에 눌지왕 이래 신설되어 왕의 직속으로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장군(將軍)과 같은 직책을 중앙관부로 흡수하여 병부(兵部)를 설치했다. 재위 7년(520) 째 되던 해에 율령을 선포하고 백관의 공복(公服)에 붉은 빛, 자줏 빛 등의 차등을 정했다. 17관등과 골품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을 율령의 제정은 신라 내부로 통합된 이질적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법흥왕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의 정비와 왕권의 강화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에 대응할 통치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어 금관가야 등 작은 소국들을 합병해 가면서 영역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 가장 절실히 요구됐던 것은 평소 지니고 있던 불법(佛法)을 일으킬 신략(神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법흥왕은 날이면 날마다 깊이 고뇌했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과 달리 이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싣고 있다. 당시 신하들은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천경림에 절을 지으려는 법흥왕의 정책을 거스르며 따지지 않았다. 법흥왕은 누군가가 나타나 '묘한 법의 방편' 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기를 바랐다. 한동안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어느 날 스물 두 살(혹은 26세)의 청년이자 내사(內史)의 사인(舍人) 박염촉(異次頓, 居次頓)이 찾아왔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의리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다.

염촉은 왕의 큰 소원을 돕고자 하여 가만히 아뢰었다. "왕께서 불교를 일으키시고자 하신다면, 신이 거짓으로 왕명[僞傳王命]이라 하여 유사에게 전하기를 '왕께서 불사를 창건하려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반드시 간할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바로 칙령을 내려 '나는 그런 영을 내린 일이 없는데 누가 거짓으로 왕명이라 꾸며대었는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신의 죄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때에 만일 왕께서 그 신하들의 아뢲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복종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들은 이미 완고하고 오만하니 비록 그대를 죽인다 한들 어찌 복종하겠는가?" 염촉이 아뢰었다. "대성(大聖)의 가르침은 천신(天神)이 받드는 것이옵니다. 만일 소신을 베시면 마땅히 천지의 이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변이 있다면 누가 감히 오만스럽게 거역하겠습니까?" 왕은 말했다. "본래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없애야 하거늘 도리어 충신을 해한다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염촉은 대답했다.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은 신하된 자의 큰 절개이옵니다. 하물며 불법이 영원히 빛나고 왕조의 영원한 결속을 위해서라면 신이 죽는 날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될 것이옵니다." 왕은 크게 감탄하고 칭찬하여 말했다. "그대는 베옷을 입었지만 뜻은 비단을 품었구나." 왕은 염촉과 함께 깊이 큰 서원을 맺었다. 꽃다운 나이의 염촉은 인과 의를 위해 죽은 것인가? 과연 종질을 죽인 원종은 마음 편히 왕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그의 순교는 제국의 서울을 뒤흔든 진리의 종소리가 되어 절들은 별처럼 벌려서고[寺寺星張] 탑들은 기러기처럼 연이어 서게 [塔塔雁行] 됐다.

3. 신라 최초의 절 대왕흥륜사

왕위에 오른 지 14년(527)에 법흥왕은 신라 최초의 절인 (대왕)흥륜사(조카 진흥왕이 붙인 이름)의 터를 닦고 절을 짓기 시작했다. 천경림의 나무들을 크게 베어내고 불사를 시작했다(535).

불교 공인 후 살생금지령
일본 학자 "법흥왕 출가 없었다"

법흥대왕은 염촉(厭髑)의 멸신을 통해 불교 공인한 다음 해(528)에 살생을 금하라는 영을 내렸다. 절이 어느 정도 낙성되자 왕은 임금의 관[冕旒]을 벗어던지고 가사를 입고 이름을 법공(法空)이라 고쳤다. 궁에 있는 왕의 친척을 내놓아 절의 종[寺隷, 왕손과 逆臣의 후손]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세 벌 옷[三衣]과 흙발우[瓦鉢]만을 생각했다. 법공의 뜻과 행은 원대하고 고매했으며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를 가졌다. 왕비(妙法, 巴刁夫人) 또한 부처님을 받들어 비구니가 돼 영흥사를 짓고 그 절에 머물렀다. 법흥대왕이 재위 27년(540) 째 되던 해 가을에 입적하자 나라에서는 애공사(哀公寺) 북쪽 봉우리에 장사를 지냈다. 지금의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기슭에 있는 능(사적 176호)으로 알려져 있다. 진흥왕은 원종(元宗)이 큰 불사를 열어 일으켰으므로 그 시호를 법흥왕이라 했다. 후대에 완공된(544) 그 절 이름을 조카인 진흥은 '대왕흥륜사' 라고 했다. 이것은 법공(法空, 법흥대왕)이 머물러 있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최근 경주공고 자리에서는 '대왕흥륜사' 가 적힌 기와 조각이 발견돼 이곳이 나라의 성황당이었던 천경림이었으며 대왕흥륜사터였음이 확인됐다.

진흥왕 역시 숙부의 영향을 받아 전륜성왕의 꿈을 실현하고 말년에는 왕비(妙住, 思刀夫人)와 함께 출가했다. 일연은 "진흥과 법흥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사관이 쓰지 아니한 것은 출가한 일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때문일까? 〈조선선교사〉를 지은 누카리야 카이텐은 각훈이 〈해동고승전〉에서 법흥왕이 왕위를 양보하고 티끌을 벗어나 흥륜사에 있으면서 법공이라고 일컬었고 그 비 또한 비구니가 돼서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법흥왕은 출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법흥왕과 그 비의 출가사실은 진흥왕의 출가사실을 혼동한 오류라고 적고 있다. 1) 법흥왕 때는 흥륜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2) 〈삼국사기〉에는 왕이 양이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3) 법흥왕이 죽은 뒤 왕위를 이은 진흥은 겨우 7세여서 왕태후가 섭정했으니 양위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4) 〈아도비〉에서 법흥의 출가명을 법운이라하고 자(字)를 법공이라 했으니 진흥왕과 법흥왕을 혼동한 것이며, 5) 법흥도 진흥도 다 법운이라 칭하고 그 두 왕비가 모두 영흥사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혼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누카리야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대왕흥륜사의 착공과 완공 시점이다.

〈해동고승전〉 기록에 왕은 절이 완공되자 왕위를 벗어던지고 절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절이 모두 완공되지 않아도 왕이 거주할 요사채는 먼저 지을 수도 있으며, 영흥사는 "아도기라"조에 나타난 일연의 할주에 근거하면 이 절도 흥륜사와 같은 시대에 착공되어진 절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법흥왕비였던 묘법비구니 뿐만 아니라 후일 진흥왕비였던 묘주비구니도 이 영흥사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가들이 혼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법흥왕은 입적 때까지 왕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절에서 머물렀을 수는 있다. 대왕흥륜사에는 후일 선덕여왕 때의 승상 김양도가 조성한 미타삼존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동쪽 벽에는 서향으로 앉은 아도·염촉·혜숙·안함·의상과 그 서쪽벽에는 동향으로 앉은 표훈·사파·원효·혜공·자장 등의 신라 십성을 신라의 흙과 물로 빚은 소상으로 만들어 모셨다. 54대 경명왕 때 조성한 보현보살벽화가 특히 유명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형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잡다한 생각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변명이나 잡다한 생각 따위는 늘어놓지 않는다. 그는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오염시킬 수 없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법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훈위주로 상담합니다.
신고 서대문 11-0006
원갑사 결혼정보
02)365-1345
010-9114-4345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불교(범음,범패)교육대학

범음,범패,작법무
단기간 속성(실무위주),행사 출장
퇴마(5일완성), 사주(5일완성),
작명(3일완성) 전수
풍수상담, 교육 출장교육
부산 미타사
010-4611-3738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당나라 때부터 황실에서 비밀리에 사용하여 온 비법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010-4735-3232
범 송

웰강. 황토. 상황. 氣 토굴. 쑥 뜸방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가맹점 모집
011-573-4438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 도심포교당)
02)338-21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 용암사
02)387-3216

미국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모십니다.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템플스테이 새해 해맞이

자유명상, 정초기도, 참선
황토방 토굴에서
장기 요양 휴식
(동해안 양양 왕금산 현불사)
033)671-6280
010-8317-2520

2012년 임진년의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진학및 성적운,
이성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중률
90%가 넘는 효타비결서(신수비결)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해결하세요.

효타비결서 (신수비결: 정가 1만원)

전국유명 서점 도서출판 청연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 릉
02)919-0480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천
010-2828-0664

한글 팔만대장경 시주하실 분이나 파실분.

덕산 스님 합장
011-9228-67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후반~65세미만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사)
▷ 한라산 관음기도도량
010-5219-7021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귀 신 학 교

귀신을 스님들과 같은 강원교육으로 왕생극락을 시킵니다.
어떠한 천도재 보다 훌륭한 천도의 방법입니다.
1년 교육과정이며 매월 초하루 보름 천도재를 지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전화 055)391-3014(원장실) 3004.3024(종무소) 3016(팩스)

등록가입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설립운영하실 분
설립운영하고 계신 분
등록 가입 받습니다
한국불교문화원 연합회
010-6838-8040
법 광

불자님 무료상담 안내

매월 초하루, 보름 및 각 재일에
불자님 사주무료 상담합니다.
시간 : 오후 2시~ 7시
1호선 종로5가역 5번출구 20m 전방
공생약국 3층 김현산역리원
010-9113-8545 (예약문의)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정암
• 법 명 : 지안 (박미순)
• 주 소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927-2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5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 팩스768-8413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 환 백반증(백납) 건 선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정보 26 | 872호 | 전면광고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실평20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및 요사 13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인천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80평
-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별장)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 2층건물 1층 요사채 , 2층 법당
- 대지 150평
- 건평 1층 32평, 2층 30평
- 가액: 4억 2천만원
- 산세 수려함

010-9058-535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6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017-502-940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마을 버스 종점에서 약 120m 도보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 대지 400평
- 답 250평, 전 520평
- 건평 가옥2채(70평), 임법당1, 방8칸
- 가액: 1억 3천만원

017-534-13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여평
- 삼존불 및 후불탱화(맞춤) 신중탱화
- 법당, 거실, 방2, 주방, 화장실 창고 등
-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 대지 135평
- 건물 3동
- 법당 14평(삼존불)
- 도로변200m위치
- 주차시설 원만
- 가액 1억1500만원

010-4146-655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명동 산 3-1번지
- 평수 : 4천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체 : 방 4칸)
- 대중공양 거실 큼, 좋고,물좋은 곳. 마당까지 주차 100대 가능 (여름 피서객많음)
- 가격: 상담후 가격절충

010- 3737-7372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32평 시설완벽
- 법당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 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전답 827평
- 법당, 요사채 약 50평
- 산신각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평당 40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대웅전 목재3포(31평)
- 종각, 산신각, 요사채등
- 부지 약 1,000평, 임야 약 3,000평
- 교통양호 (국도변)
- 가액: 11억

011-257-4985
052)238-900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토굴(임법당)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147평
- 건물 2동 외 부속동
- 삼존불 외 시설집기일체
- 가액 : 5천만원(절충불가)

010-9545-94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대리 907번지
- 대지 190평
- 법당 28평, 요사채 24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707-131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약 50여평
- 법당 2층건물, 요사1채
- 양도가액: 1억 4천만원
- 현재 운영중. 시내에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양도

019-305-9138
051)466-0450

사찰(급)안내

- 위치 : 국립고원 유달산 내
- 평수 : 200여평
- 특징 : 전설과 영험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6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솔내과 안
- 1층건물 사용 총면전 약 50평
- 법당1, 방2, 거실1, 부엌넓음,
- 뒷마당 및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불사 1000만원
- 더 넓은 도량으로 이전

010-4134-4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9사단 근처)
- 대지 300평 3층 상가 내, 2층 45평.
- 큰법당, 방1칸,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 양도 1억 9천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 4668 - 655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밑 밭1800평
- 물좋고,산세수려함
- 가액: 1억1천만원 (3년전 인수가격임)

010-3540-01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청주시내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
- 사찰 내 토굴스님, 보살님께 세 놓습니다
- 황토방 단독 20평
- 보증금 1천 500만원

010-9036-2131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평2리 23
- 대지약 150평 170평사용,건평 법당 약 40평 , 요사채 약 40평
- 불상: 아미타불2불, 관세음보살1불, 대세지보살1불, 지장보살1불,
- 후불탱화 3점, 감로탱화 3점, 사천왕도1점
- 사물일체(몸만 오면 됨)
- 가액 6500만원 절충가능

직통 010-5777-00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 목조한옥독채, 마당포함60평
- 임법당(청동삼존불)
- 방3개.범종, 엠프시설완비 , 마당에는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 시설비4천4백만원(절충가능)

010-4056-5677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 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 법구경 -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부산경남 실전위주 범음범패 학인 모집

일 년 과 정

1학기
1) 조석 예불, 타종, 상단불공
2) 사물 다루는 법

2학기
1) 각종 재공편 의식 49재, 시다림, 다비식
2) 천수바라, 오공양나비춤, 작법, 태평소

◑ **강 사 진 :** 도성(영담), 성암, 철암
◑ **회 비 :** 월 10만원, 일년 완납 100만원, 6개월 완납 50만원 (교제비 별도)
◑ **교 육 :** 매주 월요일 오후1시부터 5시 까지 (단, 초하루, 15일, 18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교육)
◑ **찾아 오는 길 :** 김해시 지내동 504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영 봉 정 사
◑ **개 강 :** 2012년 3월 5일(월) 입강
◑ **문의전화 :** 011-852-8595 055)322-8595

★ 꿈이 이루어 집니다! ★
보현사신협과 함께하면
- 사찰대출 전문 불교은행 -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명상 8주 프로그램

화·욕망 등 올라오면 그대로 껴 안으세요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③ – 감정과 함께하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면 그날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면 아마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 차만 망가졌네, 다행이야."

감각이나 감정, 마음의 상태는 주위 환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당신의 삶에 끼칩니다.

슬픈 기분이 들어 흐느껴 울게 되었다면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슬픔 아래에 다른 감정, 예를 들어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와 같은 감정이 숨어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까지 느끼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면 명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 즉 화나 분노도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 즉 화나 분노도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화에 대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로 가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기 위한 진실된 출발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풀밭에서 잘난 척 폼을 잡으면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창의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바빴고, 이따금 호흡을 지켜보면서 고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 앉았습니다. 간질거리는 느낌이 불쾌했기 때문에 파리를 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잠깐, 나는 사람들에게 감각을 관찰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냥 파리와 함께 있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고 파리가 코끝으로 옮겨갈 때 '가려워, 가려워, 가려워' 이름을 붙이면서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더웠기 때문에 콧구멍이 축축했습니다. 아마 파리가 내 코의 습기에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깊은 호흡을 한 후 감각과 함께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혹시 숨을 쉬면서 파리도 함께 들이마셔서 파리가 콧구멍 안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콧구멍 가장자리를 옮겨 다니는 파리의 발자국을 알아차릴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리가 머문 10여 분 동안 나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세금 계산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파리 외에는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이러한 사소한 발자국 외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1개월 동안 명상센터에서 명상하는 것보다 더 현재에 존재했고 집중했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명상 중에 경험하는 첫 번째 감정은 욕망, 즉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기만 한다면(if only mind)'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에 이름표 붙이고
사라질때까지 집중하면
덧없음을 깨닫기 시작

명상 중에 어떤 욕망이 느껴지면, 몸의 감각을 지켜볼 때처럼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억압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욕망이 당신을 옭아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욕망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욕망을 통찰과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욕망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욕망, 욕망'이라고 불러봅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세세히 살펴봅니다.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배가 허기진 것인가요? 혀가 허기진 것인가요? 혹은 당신 마음 안에 배고픔이 있는 걸까요? 당신의 가슴에 있나요? 흔히 마음이 외로울 때 배가 고파집니다.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고요히 욕망을 느끼고 그 본성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몸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느끼면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마침내 한 가지 욕망이 지나가고 그 다음 욕망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모든 생각이나 욕망을 실행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욕망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따를 필요가 없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욕망이 당신의 어깨를 계속 건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욕망이 무어라 말하든지 간에 그 것은 단지 원하는 마음임을 인식합니다.

고요하게 호흡을 지켜보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 것을 원하지 않아.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욕망하는 마음과는 정반대로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이러한 힘에 굴복합니다. 한 쪽에는 욕망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경험을 판단하거나 밀어내는 마음인 혐오, 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혐오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루는 명상의 핵심전력은 그 것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실천에 옮기거나 밀어내지 않고 껴안는 것이지요. 화가 날 때 화를 그냥 내버려둔 채 '화가 난다, 화가 난다.'라고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화가 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그 에너지가 어떠한지, 화 때문에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흔히 화를 뜨거운 열기로 느끼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쾌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화가 나기 바로 전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화나기 바로 직전에는 대개 상처나 두려움 혹은 상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 삶의 많은 부분과 자신이 단절돼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낄 때 마다 이름을 붙여보면 그 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쏜살같이 오며 대개 몇 초 정도 머물 뿐입니다. 몸의 감각은 조금 더 오래 머무는데 기분은 그 중간 쯤 머물게 됩니다. 대체로 1분에 2~3가지의 다른 감정이 옵니다. 한 감정의 이름은 고작 15번 정도 되뇌면 그 다음 감정이 오게 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자신의 호흡, 몸, 소리, 마음의 움직임에 닻을 내리고 머무십시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유도문

몸이 고요히 지도록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허리를 바로세우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몸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느껴지나요? 지금 느껴지는 것이 당신이 보낸 오늘 하루의 느낌입니다.

긴장하고 있다면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십시오. 눈과 얼굴의 긴장을 풀고 턱에서 힘을 뺍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편한 자세로 둡니다. 가슴과 배의 긴장도 편안하게 풀어버립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느껴보십시오. 초조하거나 졸리거나 평화롭거나 당신의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좋은 기분도 나쁜 기분도 없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기분을 느낍니다. 그 것이 어떤 감정이든 생각이나 감각이든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생명의 호흡임을 자각하십시오.

호흡이 길든 짧든 숨이 쉬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호흡을 느낍니다. 호흡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면 몸에서 따갑거나 저린 강한 감각이 나타납니다. 행복한 느낌이나 슬픔, 두려움이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호흡을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감각이나 기분에 이름을 붙이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합니다. '가려움', '따가움', '슬픔', '기쁨'. 이름을 붙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봅니다. 계속 느껴지나요? 점점 강해지나요? 이제 사라지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과 함께 존재하면서 그 것이 사라질 때까지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공상을 하거나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얼른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의 호흡이나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을 깊이 자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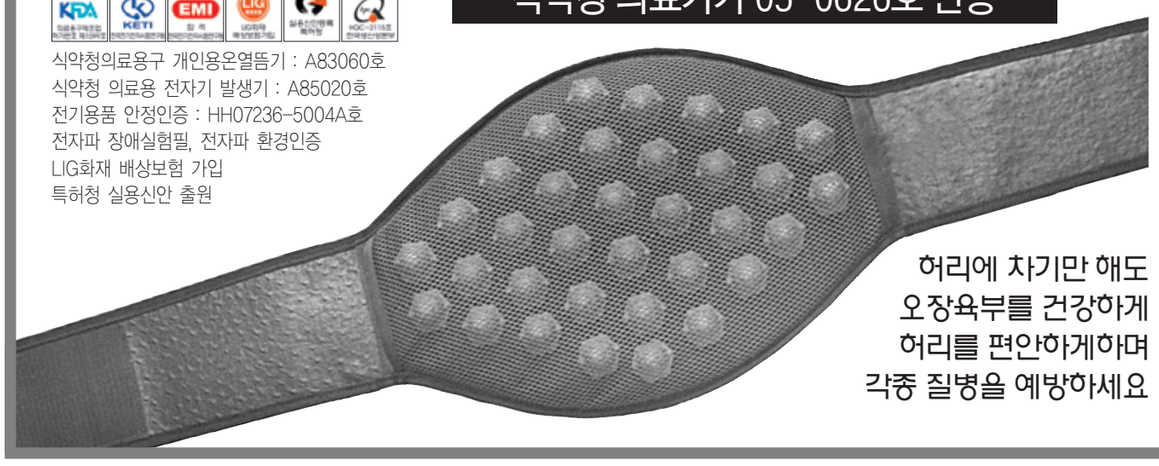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15,000원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현우경' 이야기 (4)

"거짓말 한 큰아버지 죄값은 다음생에…"

몸통에 음경만 있는 아기

옛날 한 부자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내와 다섯 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여섯째를 임신했을 때 그 부자는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이 죽고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쳐야만 했다. 그의 딸들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임신 중인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우리 집 재산은 모두 동생의 것이다."

딸들은 왕에게 찾아갔다.

"지금 어머니가 임신 중입니다. 만일 딸이 태어나면 모든 재산을 임금님께 바쳐야 하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재산의 주인이 돼야 합니다. 어머니가 해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왕은 딸들의 청을 수락했다. 몇 달이 지나 부자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는 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없고, 몸통에 음경만 있을 뿐이었다. 딸들을 왕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했다. 왕은 생각했다.

"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여야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왕은 딸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이웃에 사는 한 여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사실에 대해 물었다.

"부처님 어찌하여 눈 귀 코 혀 손과 발도 없는 사람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 단야세질과 시라세질 형제가 살았다. 형인 단야세질은 어릴 적부터 정직하고 성품이 올 곧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단야세질을 신뢰하고 좋아했다. 단야세질의 어진



삽화 · 강병호

성품은 왕에게까지 알려져, 왕은 단야세질에게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판결을 맡겼다.

어느 날 그의 아우 시라세질이 단야세질을 찾아와 말했다.

"얼마 전 한 상인이 제게 많은 돈을 꾸었습니다. 그 상인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하니,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들이 꼭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형님이 증인이 돼 주십시오."

얼마 후 동생 시라세질은 세상을 떠났다. 돈을 빌렸던 상인도 바다에서 돌아오게 됐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그 상인이 바다에 나가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상인을 찾아갔다.

"제 아버지께 빌려 간 돈을 갚아주십시오."

상인은 바다에 나갔다 돌아온 사이, 이자가 붙어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인은 시라제질의 아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 한 뒤, 단야세질의 아내를 찾아갔다. 상인은 단야세질의 아내에게 금 10만 냥을 주며 단야세질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고 증인해 달라 부탁했다. 단야세질의 아내는 고민 끝에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지금 상인이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편에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상인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야세질은 아내의 말에 크게 화를 내며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인은 아내에게 더 큰 돈을 주며 다시 부탁했다. 아내는 다시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약을 살 돈도 없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단야세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시간이 흘러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단야세질에게 말했다.

"큰아버지, 저 사람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셨으니, 저 자가 저에게 돈을 갚도록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단야세질은 조카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본 일이 없고, 이런 사실도 모른다."

시라세질의 아들은 단야세질의 말에 크게 화를 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큰아버지의 죗값은 다음 생에서라도 꼭 치룰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 과거 단야세질의 모습이다.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아 몸통만 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다. 다만 평소 남들에게 보시하는 것은 좋아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함부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대행 스님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이 마음의 놀음이에요, 마음놀음!

왜 마음공부를 하라 하시는지요

문)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그냥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 왜 굳이 마음공부를 하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 악업 선업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움죽거리려면 사대와 더불어 육근이, 육근과 더불어 육진이, 육진과 더불어 육식이, 즉 말하자면 모든 의식이 바깥으로 들고 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속에서 자기가 지은 대로 거죽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다 지수화풍으로 인해 이 몸뚱이가 물질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수화풍으로 이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수화풍에 의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거기에 재료로써 충만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전력도, 발전소가 한계가 있지만 무심 발전소는, 인간의 참 발전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도 내가 큰 거를 쓰려면 크게 끌어서 쓸 수 있고 작게 쓰려면 작게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두돼 있다는 얘깁니다, 광력도 그렇고 통신력도 그렇고. 내가 한생각을 하면 모든 게 머리에, 즉 말하자면 두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흩어져서 통신이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지만 과학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몸뚱이 속에 그렇게 있는데, 이 시쳇말로 말하겠습니다. 오신통 하면 그 속에는,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안통이라면 속눈이라는 얘깁니다, 마음의 눈. 듣는 것도 마음의 귀.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마음으로 남의 속을 알 수 있고 남의 과거생도 내가 알 수 있는 거. 신족,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거. 지금도 집 밖에 앉아서 집에 갔다 와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쳇말로 말하겠어요. 컴퓨터, 팩스, 또는 탐지기, 천체망원경, 천체무전통신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대두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작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살던 인연으로 인해서 뭉쳐진 그 모습들, 생명들이, 그 의식들이 전부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 운명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모면하려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그 컴퓨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 모든 내 생활을 전부 다시, 앉았다 서는 것도 모든 게,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악행, 병고, 액난 등 이렇게 전부 들어오는 거를 다 '아하!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겠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겨라 이겁니다. 자기 주인을 믿고 맡겨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또 이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대신 못해 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죠. 잠자는 것도 대신 못 자 줘, 똥 누는 것도 죽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가 못해 준단 말입니다. 대신 누가 해 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못해 주느니만큼 자기 주처, 즉 말하자면 한울의 뜻도, 태양의 뜻도 근본이 어디에 있나.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이 생활 가설이 된 것은 근본이 어디에 있나.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천지인, 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서 어찌 내가 온 곳을 모르고 내가 갈 곳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그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해서 '주인공, 당신만이 나의 아픔도 해결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당신만이 내 앞길을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당신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내 일상생활을,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내고, 내가 사는 거 전부 내 주인공이 살게끔 이끌고 간다.' 이렇게 믿는다면 거기에 다시 입력이 돼 가지고 앞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입력됐던 그 팔자 운명 또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그 모든 병고나 모든 일체가 다 무너집니다. 업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인과가 무너지고. 여러분, 카세트에다 노래 넣어 가지고 다시 노래를 넣을 때에 앞서 노래 넣은 건 지워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다 그냥 삭쳐 무너져 버리니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지울 수밖에는 없는 거죠. 남이 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이 팔자 운명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남이 뺏어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지으라고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벗겨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료가 있으니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친구예요. 자기 주인공이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끌고 나온 그 영원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주인공, 당신만이 내 영원한 친구요, 내가 당신 생각나는 대로 움죽거려 주는데 내가 당신 심부름을 하려면 잘 이끌어 줘야 심부름을 하지 않느냐.'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업보라든가 병고라든가 이런 것이 낫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100% 중 30%밖에, 40%밖에는 병원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70%나 60%는 누가 충당을 하나요? 바로 여러분이 해야죠? 누가 해 주지 않아요. 병고뿐만 아니에요. 모든 전체 살아나가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허공에서 해 주나요? 신이 바깥에 있어서 해 주나요? 나 자신도 못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딴 신이 자기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한마음 주인공!' 한다든가 '한마음 친구'라 한다든가, '주인공, 영원한 친구야!' 한다든가 그냥 '친구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깊은 속에서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주 맑은 물에 내 얼굴도 비출 수 있고 달빛도 비출 수 있듯이 그렇게 내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떤 애고가 수없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그 마음은 빛보다 더 빨리 가서 벌써 전달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모두 이 마음의 놀음이에요, 마음 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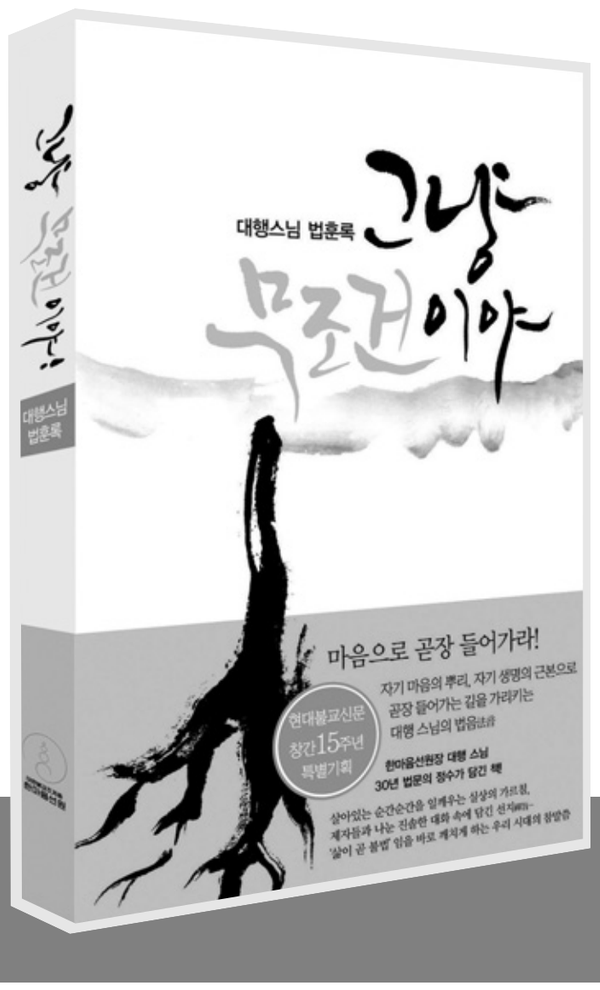
여러분이 병고가 생기는 것도 이 몸뚱이 집이 비면 집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그림 · 최주현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29면에서 계속

내 마음 이 자체의 주인이 없다면 이 집은 빈집이 돼서 병고가 나고, 이 공장 하나만 망가져도, 간장 공장 하나만 망가져도 이 기능이 다 망가져요. 안 그래요? 방광 공장만 망가져도 그렇고 콩팥 공장이 망가져도 그렇고. 심장 공장이 망가지면 더하고, 또. 그러니까 이 공장, 공장장들을 지배를 하고 그러는 거, 직원들을 지배하는 거는 전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이 마음 나기 이전은 뭐냐. 자기 영원한 친구가 거기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에 직결된, 이 세상에 직결된 이 인간의 마음,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이며 또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나를 본다고 강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답) 이 우주 전체의 생활이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이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이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 한군데다가, 한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마음을 내기 이전은 기름과 같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바로 법이 되고, 그러니까 몸이 움죽거리는 건 차와 같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하나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했다고 하고 그거를 놓고 가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사이에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런다면 바로 남편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죠. 그런 많은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찰나찰나 이렇게 아버지, 남편으로 착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가는 그 도리를 알면 바로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냥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항상 그게 지금 습관에 의해서, 물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러기 때문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내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현실에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짊어지고 모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뚱이 속에, 즉 말하자면 그 많은 생명이 13억이라고 해도 고건 간단히 추린 건데 그 의식이 만약에 한마음에서 수만 개도 나올 수 있으니깐 그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의식들이 내 한마음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따라 주고 언짢게 생각하면 언짢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남과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데도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그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그 이익한 데로 따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숙명통이라는 것은 비유해서 말할 때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현실에 이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우환이라든가 어떤 안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과거의 모든 그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다 좋게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를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거며, 바로 입력을 다시 되시키는 거며, 앞서 입력된 게 다 없어지는 거며, 동시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던 게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거기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서의 입력된 팔자나 운명은 다 녹아져 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광대무변한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사 상차림을 간단하게 하는 뜻은

문)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절에 다니고 있는데 선원에 아는 인연이 있어 천도재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절처럼 음식을 많이 차려 놓지 않고도 정갈한 상차림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차리는 뜻이 무엇인지요?

답) 우린 재사 지낼 때 과일만 놓고 둥근 떡 하나 놓곤 그냥 지냅니다. 누구든지 신도들도 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일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떡집에 전화 걸어놨다가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갈 때 들고 가서 지내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죠.

>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
>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놓는다면
>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 그래서 앞서 입력된 팔자나 운명이 다 녹아져 버리고
> 자유인으로서의 광대무변한 그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으니
>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상세계에 오를 때에는, 그 의식적으로 벌써 먹고 입고 살던, 뭐 이런 거에 착을 두기 때문에 영 상세계로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영령들을 아예 재사 지낼 때 그냥 둥근 떡 안에다가 다 그냥, 그러니까 우주 전체 안에다가 '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거는 당신 거요.' 그러곤 그냥 다 거기다가 넣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애착, 그런 게 다 떨어져요. 그래야 상세계에 보살로 출현을 하시든가 뭐 또 선관선녀로 출현하시든가 부처로 하든가 뭐, 뭐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세계만 생명들이 산다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만 생명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뜨거운 데서도 생명이 있고 차면 찬 대로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사를 지낼 때 둥근 떡, 어떤 집은 영령들이 많거나 또 식구들이 많은 집은 일곱 켜를 해 놓고, 찰떡을 그릇에다 이렇게 해도 좋고 백설기를 둥그렇게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설탕만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놓으면 이 우주의 그 근본이 다 응감을 하게 돼 있어요. 우주의 근본이 다 응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신들이 다 내려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사람 움죽거리는 거까지 사왕천에서 다 이렇게 통해서 누구나 어떠한 영가든지 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려면 막대기 기다란 데다 굵은 사탕 하나 낀 것처럼 끼워 가지고, 이게 법륜이거든요. 그것이 표시예요. 그것만 들었다 하면 무사통과죠,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은 도무지 그 도리를 하나도 모르니…. 너무나 이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 도리를 몰라서 오히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고, 그 도리를 몰라서 울고불고 야단법석이고 아, 이러니 글쎄 내가 어떻게 애원치 않겠어요?

힘들면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문) 부끄럽습니다만 마음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결국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게 쉽고 빨리 해결될 것 같아서요. 스님, 제가 마음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답)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더뎌 가는 거고 그거는 기필코 빠르게 가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주인공은 내 보디가드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즉 말하자면 아프거나 그래서 관하면 의사로 찰나에 바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겼다 하면 관세음이 되고, 좋은 데로 간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허공신이 돼 주고 뭐, 별거 별거 다 돼 줍니다.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는데 뭐가 답답해서 바깥에 가서 그렇게 묻고 다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말을 해도 얼른 자기한테 하는 게 더 빠르지 나가서 하는 게 빠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곧바로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그렇게 듣느냐 안 듣느냐도 문제지만 올바로 나가는 게 못되고 또 빠른 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내가 그렇게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내가 더 빠르지 누가 더 빠릅니까? 그러니까 정히 답답하면 '야,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세 번 부르고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아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길에 가다가도 하고 앉았다가도 하고 섰다가다 하고 뭐, 그 누구하고 같이 있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그냥 재깍, 재빨리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빠른 거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부처님에 직속, 즉 말하자면 통신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니면 제삼자가 자기를 대신 살아줄 리 없고요. 그러니깐 꼭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 아닌 자기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렇게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고 그런다 해서 나가서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는 거기다가 관하시란 얘깁니다. 거기다 관하시면 그것이 슬금슬금 돌아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문) 스님께서는 치열한 산중고행으로 득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같이 어리석은 범부들도 바쁜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물론입니다. 누구나가 다 잘살든 못살든 또 못났든 잘났든 자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불성은, 즉 말하자면 지금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말합니다마는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참 광대무변하고 묘하고 각자 자기들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보배답게 쓰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가정적으로도 싸우게 되고 나라, 나라끼리도 싸우게 되고. 또 싸우는 거뿐만 아니라 강도도 많이 생기고 사기도 많이 생기고, 이건 불난 이 한두 건이 아니죠. 애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지요. '네 나무는 네 뿌리부터 믿어야 한다. 그 나무와 뿌리와 같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고 남의 이름과 남의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니 그것은 몇백 몇천 년 가도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만이 너를 의지하고 살아라. 너만이 너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신계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모든 고통은 사회적이다



이 도 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설날이다. 설빔으로 갈아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하고,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새해의 소망을 빌며 덕담을 나누는 날이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가득히 흐뭇하고, 가족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며 새록새록 정과 사랑이 샘솟는 날이다. 이를 함께 누리고자 멀리서, 때로는 10시간 이상의 교통체증 속의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조상들의 선영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다.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 라면조차 먹지 못하여 배고프다고 우는 자식을 앞에 놓고 피눈물을 흘릴 어머니들이 있다.

우리가 따스한 온돌방에서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울 때 얼음장과 같은 지하도에 라면 박스 종이 하나 걸쳐 놓고 오들오들 떨며 긴 겨울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서 우리는 마냥 행복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실제로는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1%의 배는 터질 정도지만, 99%는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20% 정도는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다.

인류 가운데 13억 명이 하루에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9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계를 잇고 있다.

100만 명 가량의 이주노동자들이 우리가 포기한 일들을 열악한 상황에서 민족차별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그 중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주 노동자들은 그 일조차 하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운데 벌써 19명이 목숨을 끊었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1월 20일로 용산참사 3주년을 맞았건만, 아무 죄없이 구속된 철거민 8명은 시린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이들의 고통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정녕 깨달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고통이 사회적이라는 점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고통을 직시한다. 생노병사에 더하여 7고를 말하며 이를 멸하라 이른다. 하지만, 7고 모두 사회적이다. 혹자는 남녀의 사랑과 이에서 오는 고통을 지극히 개인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의 사랑도 자본주의 체제가 빚은 소외의 모순과 화폐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속된 말로 이 체제에서는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사랑의 가치를 교환가치가 대체하고, 화폐를 향한 욕망이 두 사람의 사랑을 왜곡한다. 인격 대신 연봉을 따져 사람을 선호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화폐욕망의 달성 여부가 판가름한다.

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은, 어느 광고 문구처럼 간 때문이 아니라 그 체제에서 과잉으로 시달리고 억압당하며, 그에 물든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이 사회적이라면, 사회의 개선과 개혁 없이 고통의 소멸은 불가능하다. 개인적 고의 소멸만을 말하는 지금의 한국 불교는 공허할 뿐이다.

모든 고통이 사회적이라는 점과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에 연기론을 결합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찰나의 순간에도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하는 상호 생성자(inter-becoming)다.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내 호흡에 영향을 받아 대기의 미생물이 달라지고 그리 변한 대기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달라진 몸은 달라진 공기를 내뿜으며, 그는 대기를 변화시키고 그를 마시는 내 주변 사람의 몸을 변화시킨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호흡 또한 대기와 내 몸을 변화시킨다. 타인은 나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이루는 나의 분신이자 구성원이다. 그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가 없으면 나 또한 없다.

그러니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에 영향을 주며, 그 역도 성립한다. 타인,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아파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자리한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졌어도 인도네시아 참사나 희망버스 때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 때 인류에게 희망은 있다. 그 순간 서 있는 그 발밑이 바로 도솔천이다.

사부대중 칼럼

내 안에 담겨 있는 쓰레기



남 지 심
소설가

년 초에 이삿짐을 쌌다. 마포에서 6년 정도 머물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매일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늘 깨끗하고 필요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다.

그런데 이삿짐을 싸기 위해 사용하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보니 삼분의 일은 없어도 무방한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늘 닦고 털어서 깨끗하다고 믿었던 공간은 구석구석 먼지로 가득 차 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공간까지 머리카락이 흘러 들어가 먼지와 뒤엉켜 있었다.

이삿짐을 싸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 봤다. 소중하다고 믿고, 그것을 움켜쥐려 노력했고,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고 흐뭇해했던 것들이 실은 언제 버려도 무방한 허섭스레기는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정갈하게 자신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의 내면이 실은 너무도 흉한 오물로 뒤엉켜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큰 것 같다.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도 큰 것 같다. 인생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눈에 보이고 의식하는 세계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엄숙해 질 수 밖에 없다.

나라 안이 참으로 어지럽다. 이렇게 어지럽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나는 언젠가부터 선거야 말로 대승보살을 뽑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국가는 통치자에 의해 통치된다. 왕조는 세습제이기 때문에 백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통치자를 뽑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얼마든지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훌륭한 통치자를 뽑는 일일 것이다. 훌륭한 통치자는 가장 강한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체 생명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발원하는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훌륭한 통치자를 뽑는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 중 한 사람은 인도의 아소카 왕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마침내 인도 대륙을 통일했다. 그런 후 전쟁을 통해 무고한 생명을 살생한 자신의 죄과를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불교에 귀의 해 다르마 정치를 현실 속에서 펼쳤다.

그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돌봤고, 마을마다 병원을 지어 병든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우물을 파서 갈증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 주었고, 일정한 장소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한 동물병원을 지어 병든 가축을 돌보게 했고, 전국 곳곳에 사람과 가축을 위해 약초를 재배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보다 더욱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백성들이 진리를 실천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의 바위나 나무에 새겨 놓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인간은 물질의 안정뿐 아니라 정신의 고양에 의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끝없이 도와주었던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소카 같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나라를 이끌어 갈 통치자를 찾는다면 적어도 국민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 주고자 원력을 세운 보살은 만나지 않겠는가?

맹독성 쓰레기는 사람을 죽게 까지 한다. 나라 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자신 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 아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청결하게 가꾸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찾도록 하자. 금년 한 해 동안 두 눈 크게 부릅뜨고. 그것 역시 보살의 행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말이다.

社說

전법은 '전도선언' 실천 불자의무

새해를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법'을 내세우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날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교육원의 2012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19일에는 조계종 포교원이 비전과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이에 앞선 16일 태고종도 연두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지종은 17일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각종은 9~15일 새해대서원불공을 통해 신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종단·단체의 다짐은 각기 시방세계 곳곳에 모습을 달리해 화현하는 부처님의 모습이나, 중생의 근기에 따른 대기설법과 같다. 그 진신은 전법을 통한 불국정토 구현과 다름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란 제하의 연설문을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을 위한 쇄신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스님의 연설문은 임기 3년차를 맞은 조계종 집행부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자성)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쇄신) 결사의 실천이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계종이 내세운 것은 '대중공사' '천일기도' 등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초청 무차대회 등을 기획한 것은 신선하다.

하지만 종단출범 50주년의 해를 기념하는 사업을 펼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조계종 교육원이 기본교육기관 수업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이버 강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포교원의 SNS를 통한 포교 계획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에 문화센터 중심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도 불교중흥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수년째 내홍에 휩싸인 태고종도 올해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인 기로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총지종이 충북 괴산에 80만평 부지를 활용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고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해 복지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발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불광연구원이 실사구시 하는 불교학을 표방하며 학술지 〈전법학 연구〉를 펴낸다고 한다. 우리 시대 포교승으로 도심포교의 기틀을 다진 광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창간한 책은 앞으로 전법교화의 지남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 제불조사가 성불하는 길을 상세히 남겼음에도 우리가 중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만불교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었던 까닭을 참구다면 올해 한국불교의 화두인 '전법'은 쉽게 해결되리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처음이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도리에 맞고 언설이 정돈된 가르침을 펴라"는 전도선언을 되새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1215-중-9677호

알츠하이머 치매!

아직도 방치 하십니까?
당신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알츠하이머성치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적 화두 치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저희 한의원이 꼭 도와 드리겠습니다.



명 지 한 의 원

예약 문의 052)261-7502~3
울산 남구 야음2동 459-44
(야음시장 맞은편)

한의사 원장스님 흥화(권대일)

백의 관세음 보살님이 나투신 곳,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2012 임진년은 해동용궁사에 특별한 해 이다. 용의 해이기 때문이다.

동해 최남단에 자리한 해동용궁사는 1376년에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나옹 대사(懶翁大師)가 창건한 전통사찰이다.

나옹 스님이 경주 분황사에 주석할 때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몽중(夢中)에 동해 용왕이 스님에게 배읍하고 말하기를 "봉래산 끝자락에 절을 짓고 기도하면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할지니"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나옹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해동용궁사 터를 찾았다. 스님이 지세를 살피니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아침에 불공을 드리면 저녁 때 복을 받는(背山臨水 朝誠暮福地)곳이었다. 스님은 절을 짓고 산 이름을 봉래산, 절 이름을 보문사(普門寺)라 이름 지었다. 그러나 보문사는 1592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됐다. 이를 300여 년 지난 1930년대초 통도사 운강(雲崗) 스님이 중창했다. 이후 여러 스님을 거쳐 정암(晟庵)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부임했다.

정암 스님은 통도사에서 수도하다 우연한 계기로 해동용궁사(당시 보문사)를 찾았다. 해동용궁사 주위는 산과 논 뿐이었다. 길은 논 사이로 난 좁은 길 뿐이었다. 절에 사용할 땔감도 적당치 않아 다른 포구에서 배로 연탄을 실어 날라 생활하고 있었다. 스님은 해동용궁사와 처음 인연 후 5년여를 전국 산하를 옮겨 다니며 수행을 했지만 해동용궁사가



대웅보전



만복전

마음 한켠에 걸려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일 수 없었다. 결국 스님은 해동용궁사를 관음도량으로 중창키로 발심했다.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다. 회향법회를 앞둔 새벽녘 꿈에 백음관음(白衣觀音)보살님이 해동용궁사(당시 보문사)로 걸어들어 오시어 오색광명을 놓으며 용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친견했다. 관음재일 전국 각 사찰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누추한 해동용궁사에 오셨다는 기쁨에 스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스님이 기침한 후 이른 아침부터 모르는 손님들이 밀려 들었다. 정암 스님은 이때를 "마치 방죽터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관음보살님 친견 후 사명(寺名)을 해동용궁사로 바꿨다. 스님이 관세음보살 친견 후에 중창한 해동용궁사는 기도 영험이 있어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현몽을 받고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신령스러운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정암 스님의 불사는 말 그대로 실천궁행하는 불사였다. 해동용궁사 중창은 스님이 반이상 몸으로 이뤄낸 개척사찰이었다.

이후 정암 스님은 중국 보타낙가산 성지순례를 하며 그 섬 불자들이 개인 불상을 소중하게 모시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명을 받았다. 스님은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낙가산과 진배없는 한국의 관음성지 해동용궁사를 만들겠다고 서원했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피로 서원한 불사는 반드시 이뤄졌습니다. 반드시 성사되었죠."

반도로 이뤄진 해동용궁사 터 주위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스님은 원력의 실천을 통해 현재 3만여 평 부지를 확보했다. 또한 바다에 상주하시는 해수관음대불, 송림사이로 나타나는 108계단, 이 계단 끝자락에서 반겨주는 반월교 , 불이문, 미륵불포대화상, 사리탑, 만복문 등 많은 불사를 일궈냈다. 불사마다 녹아든 스님의 땀은 반도 뒷산 전체를 관음성지로 바꾸어 놓았다.

해동용궁사가 관음성지 기도성취 도량, 파란 바닷물의

관음성지 해동용궁사에서는
희유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파도가 철썩이는 천혜의 명지로 알려져 참배객들이 줄을 잇자 2012년 1월 10일에는 부산씨티투어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시티투어 코스로 선정된 곳은 부산의 수천 여 가람 가운데 해동용궁사 포함 세 곳 뿐이다.

정암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까닭에 관음성지 해동용궁사에서는 희유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 큰절 신도회장의 며느리가 해동용궁사를 찾았다. 당시 용궁사는 협소한 사찰이었다. 해동용궁사에서 불공을 드린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런 작은 사찰에 다닐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꿈에 며느리는 고향을 가고 있었다.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에 도착하니 화살표로 '해동용궁사'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닌가. 정말 희유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꿈을 깨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다.

또 다른 꿈에서는 어느 날 대학입시를 앞둔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면담을 청했다. 이 보살은 해운대의 유명한 음식집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은 작고 허름한 집이나 최고의 음식점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것 아닌가. 따라가 보니 108계단을 내려가는데 도착지는 해동용궁사였다. 그러고는 담임선생님은 "이번에는 안되고 다음에 되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말했다. 현실에서 아들은 담임선생님이 말한대로 됐다. 결국 이 인연으로 그 보살은 해동용궁사 신도가 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암스님이 공양을 마치던 어느 날 스님에게 달마그림 3장이 배달됐다. 그림과 함께 사연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희유했다. 보낸 이는 당시 대전에 충남도청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불자였다. 그는 평생 달마그림을 그렸는데 10만장째 그리는 날이 되어 목욕재개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불자가 꿈에서 붓을 잡고 화폭 앞에 섰는데 달마
스님과 비슷한 분이 들어와
말을 했다. "달마 대사를 10만장 100만장을
그린다 한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달마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면서, 대체 달마 대사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는 말문이 턱 막혔다. 꿈 속에서 달마 대사를 닮은 이는 그의 손을 이끌고 물속 길로 가기를 청했다. 그냥가면 숨 막혀 죽을 수 있으니 포대걸망 안으로 들어가라 하여 걸망 안으로 들어갔다. 물속 길을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는 포대 밖을 나오라해서 보니 해동용궁사의 방생터였다. 대웅전 부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오지않아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이곳에 데리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해동용궁사의 부처님이었다. 이 꿈이 너무 희유했던 그는 마지막 10만 번째 그림 가운데 3점을 정암 스님에게 보냈다. 몇일 뒤 정문화 당시 부산시장이 해동용궁사를 찾았다. 부산시장의 일행까지 모두 3명이었고, 달마도는 부산시장 일행에게 전달됐다. 이처럼 해동용궁사에는 희유한 일이 끊임 없이 이어져 중생들을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정암 스님은 "해동용궁사 중창 불사를 시작한지 30여년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누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 기도하면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기도영험도량

이 지났습니다. 별보고 나가서 별보고 들어온다는 말처럼 이 도량은 피와 땀이 서린 도량입니다"라고 말한다. 해동용궁사의 돌 하나 나무 한그루는 정암 스님의 화두였다.

바다와 용과 관음대불이 조화를 이루어 그 어느 곳보다도 신앙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관음성지 해동용궁사, 불국토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포대화상



사리탑



봉축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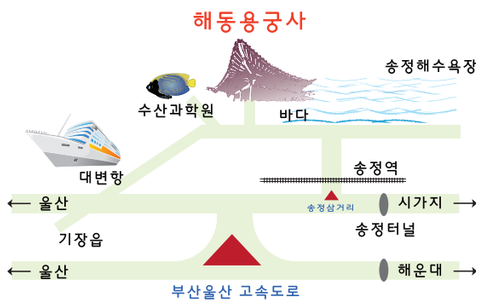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 동 용 궁 사
HAEDONG YONGKUNG TEMPLE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읍 시랑리 416-3
TEL : 051)722-7755

오시는 길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용
노포동 고속버스 :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환승) – 해운대역 하차
동 부 시외버스 :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환승) – 해운대역 하차
서 부 시외버스 : 지하철 2호선 – 해운대역 하차

철도 이용
KTX : 부산역 하차 지하철 1호선 – 서면(2호선 환승) – 해운대역 하차
동해 남부선 : 7회, 송정역 하차 – 택시 및 181번 버스 이용
동해 남부선 : 17회, 해운대역 하차 – 택시, 181번 및 송정행 버스 이용
영동선 : 해운대역 하차 – 택시 및 181번 및 송정행 버스이용



인터뷰

해동용궁사의 현재 추진중인 불사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암스님

해동용궁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소중한 삼보정재이기에 (재)해동불교진흥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암장학회를 설립해 4년째 지방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고, 불자님들의 수행과 불교 홍보를 위하여 해동용궁사 주변에 시민선방인 해동선원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젊은세대 관광객이 해동용궁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조상의 얼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민속박물관을 신축 중입니다. 골동품과 사찰 성보 등 가치 있는 문화재가 전시된 박물관의 성격과는 다른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옛 정신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즉 보존하는 차원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장 큰 서원은 동해 최남단 위치해 있는 해동용궁사에 통일 대불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라고 하는 이유는?

해동용궁사는 평범하면서도 특이한 점이 많은 사찰입니다. 신앙과 관광문화와 정신적인 안식처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세도 배산임수 조성모복지(背山臨水 朝誠暮福地) 아침에 정성을 드리면 저녁에 복을 받는다는 지세입니다.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 또한 백의관음보살님의 가피가 서린 사찰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신령스러운곳으로써 수많은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동용궁사를 찾아 일념으로 기도하신다면 서원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해동용궁사만의 특징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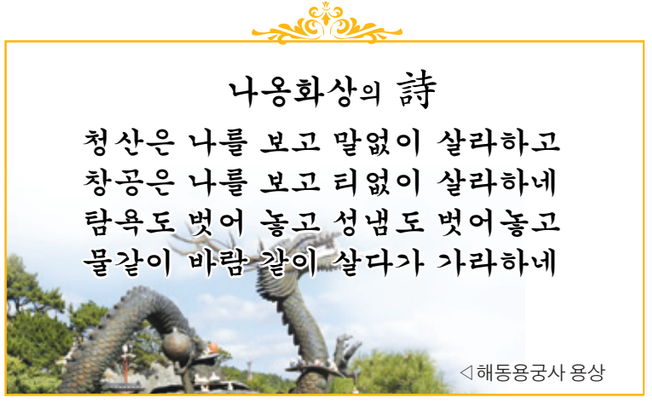
해동용궁사 도량 전체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련이 가장 특이합니다. 사찰주련은 대개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게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동용궁사 주련은 도량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쓰여 있고, 어느 조사스님이 이리 해 놓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대중에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수처작주(隨處作主)라 어디가서나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른마음으로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그릇에 따라서 되고 안됨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가 나쁘면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일이나 정진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바퀴만 잘 굴린다면 어느 서원을 세우던지 80%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자기분야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잘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옹화상의 詩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해동용궁사 용상